금주의 법구–〈잡보장경〉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 말라.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17호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11월 28일) 2022년 12월 21일 수요일

‘사단법인’ 상월결사 불교중흥 닻 올린다

12월 18일 서울 봉은사서 사단법인 창립총회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단법인 상월결사의 창립을 새로운 출발로 삼겠습니다. 순례 공덕을 불교중흥과 사회평화에 회향하는 ‘상월순례단’을 필두로, 새인연맺기 ‘수미산원정대’를 바탕으로, 정기 모임인 ‘상월포럼’, 불교문화 프로그램 ‘상월아카데미’를 개설하여 불자들의 신심을 고취하고, 미래세대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상월결사’가 사단법인 창립을 통해 새해 적극적인 포교사업에 나선다. 기존 상월결사 순례와 수미산원정대와 함께 상월포럼, 상월아카데미 등을 통해 미래세대 포교에 뛰어든다.

상월결사(회주 자승)는 12월 18일 서울 봉은사 보우당에서 ‘사단법인 상월결사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날 창립총회서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작금

회주 자승스님, 법인 이사장 맡아
‘상월순례단’ 및 ‘수미산원정대’에
‘상월포럼’ ‘상월아카데미’ 추가해
각 지역본부 두고 전국 조직 박차
‘대학생 불교 활성화’ 최우선 집중

불교는 포교가 가장 문제다. 상월결사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대학생 포교”라며 “어린이 법회를 하는 곳이 소수에 불과하다. 어린이법회를 하여도 1~200명 이내로 모일 뿐이다. 중고등학교 법회는 더욱 심각하다. 종립학교에서 교법사들이 할 일이 없을 정도로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자승 스님은 “대학생 불교는 사람 몸으로 따지면 가장 중요한 허리”라며 “하지만 대불련 수련대회에 참여하는 인원은 300여 명에 불과하고 대학생 불자도 과연 몇 명인지 알 수 없을 정도다. 기존 신도들은 봉은사에서 수미산원정대를 통해 새로운 신도를 확보해 나가고 있지만, 어린이법회와 대불련 법회는 형식적인 부분만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스님은 “법인에서 대학생 포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대학 불자모임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며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침몰해가는 불교를 다시 일으키는 계기가 이 자리에서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창립총회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상월결사가 내딛는 한걸음 한걸음은 불교중흥을 위한 정진이며, 세계 평화를 위한 불법의 실현”이라며 “사바세계 어느 곳에서도 빛나는 수미산을 이루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법인 상월결사, 각계 인사 참여

상월결사는 순례기간 동안 사단법인 설립을 차근차근 준비해왔다. 이사장을 맡게 될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을 중심으로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사무국, 총괄본부 조직과 함께 고문단, 자문위원단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서울, 경기인천, 강원, 충청, 영남, 호남, 제주에 지역본부가 설립된다.

지난 11월 1일 문체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11월 24일 사단법인 설립등기를 진행, 12월 1일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

사단법인 상월결사 이사회에는 이사장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해 상임이사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동국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 조계종 교육원장 혜일 스님,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덕문 스님,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총무부장 호산 스님(상월결사 총도감),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 불교문화사업단장 원명(담화) 스님, 불교신문사장 삼조 스님과 김진문 신성약품 회장, 최진식 심팩 회장, 정충래 동국대 이사, 김용우 더존비즈온 회장, 이태경 상월결사문화특보, 박기련 동국대 건학위원회 사무총장이 이름을 올렸다.

인도순례 이후 본격 활동 시작

상월결사는 사단법인 출범으로 새해부터 새롭게 ‘상월포럼’과 ‘상월아카데미’를 진행한다. 상월포럼은 상월결사가 진행하는 불자배가운동 새인연맺기 프로그램인 ‘수미산원정대’의 전국 조직화를 의미한다. 상월포럼에서는 매분기 정기포럼과 지역본부별 포럼, 각종 학술대회와 상월결사 정신을 계승하는 자료 발간을 진행한다.

상월아카데미는 상월결사의 교육 및 연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상월결사 체험프로그램, 상월결사 학술연구, 유튜브와 SNS활성화, 회원사찰 홈페이지 관리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단법인으로 상월결사 기부금 또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가능해지며, CMS신청이 가능한 홈페이지 구축도 새해를 맞아 이뤄질 예정이다.

박기련 사단법인 상월결사 정책기획단장(동국대 건학위원회 사무총장)은 “인도순례를 마치고 오면 4월 상월결사 출범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12월 1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49재에서 희생자 유족들이 소전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이태원 참사 49재… “아픔 없는 곳으로”

12월 16일 조계사서 위령재 봉행
참사 희생자 가족 150여 명 참석해
영단에 영정 67명 위패 78위 모셔
화암 스님 집전으로 위령의식 엄수
500여 사부대중 참석해 영가 추모
진우스님 영가 · 가족에 한없는 위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추모 법문을 하고 있다.

“못다 핀 꽃들이여, 어여쁜 영령이여 무릎 꿇고 통곡하며 그대들 위해 빕니다. 우리 좋은 세상에서 다시 만나 다시 한 번 사랑하고 다시 한 번 꿈꾸고 다시 한 번 살아가는 좋은 목숨이시길 빕니다.” (시인 나태주 추모시 중)

폭설과 함께 찾아온 매서운 바람 속, 이태원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마지막 인사가 서울 조계사 경내에 울려 퍼졌다. 이태원 참사 49일째인 12월 16일, 조계사 경내에 운집한 500여 스님과 대중들은 합장한 채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이날 영단에는 유가족이 동의한 67명의 영정과 78명의 위패가 모셔졌다. 영하 8도에 달하는 강추위에도 동참자들은 희생자들의 극락왕생 발원과 함께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서원했다.

오전 10시.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노제와 함께 158번의 명종타종으로 49재가 시작됐다. 희생자들의 이름을 불러 영단에 모시는 시련 의식 후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이 영단에 헌향했다.

“꽃 같던 그대들을 떠나보내는 길에 우리 모두의 마음은 깊이 아팠습니다. 그날 그곳에 있었던 건 그대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비통한 현장 속에서도 그대들을 위해 한걸음에 달려온 이들이 있었고, 그대들을 위해 온 몸을 던졌던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대들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대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부디 모든 고통 잊으시고 아픔 없는 곳에서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이수민 조계사 청년회장은 추모사 후 나태주 시인의 추모시를 읊고 영단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속세에 남은 애착을 씻어내 영혼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는 ‘대령 관욕’ 의식에 이어 희생자들의 영혼을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의미의 바라춤이 이어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추모 법문을 통해 영가가 고통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이고득락(離苦得樂)과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진우 스님은 영가에 “이제는 미련과 집착을 놓고 평안한 피안의 업멸을 지어야 한다”며 “다음 세상에서는 괴로움을 느낄 수 없는 세상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희생자 가족들의 마음도 다독였다. 진우 스님은 “영가는 영가대로 가족은 가족대로 마음을 하루빨리 추스르고 냉철한 마음이 돼야 한다. 평안한 마음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영가를 위하는 일”이라면서 “우리모두는 서로서로 연결돼 있는 인드라망 안에 살고 있으므로 나의 일이 너의 일이고 너의 일이 나의 일이다. 우리 모두는 영가와 가족들에게 한없는 위안을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며 우리사회의 반성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아 두 손을 모아 합장했다.

위령의식은 조계종 어산종장 화암 스님이 집전하는 가운데 20여 분간 이어졌다. 회심곡과 함께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유가족들이 차례로 영단에 올라와 헌화했다. 영정 앞에서 목놓아 우는 가족들의 모습에 49재에 동참한 이들 사이사이 조용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어 故 이지한 배우의 어머니 조미은 씨가 유가족을 대표해 49재를 개최해준 조계종에 감사인사를 하고 가족들이 희생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다.

“누나. 잘해준 게 없어 미안해. 누나가 나한테 했던 말들은 내가 싫어서 한 게 아니었다는 걸 지금 알았어. 많이 사랑하고 보고 싶어.”

“딸아. 엄마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이승에서 모든 고통, 슬픔 다 버리고 부디 힘내서 잘 가. 정의로운 세상, 안전한 세상이 올 때까지 엄마 아빠가 최선을 다할게.”

이날 49재는 희생자들의 위패와 종이옷을 태우는 소전의식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됐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현대불교신문 선정 2022년 10대 뉴스 7면

다음호는 2023년 신년특집호 입니다

www.boryeon.com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도량장엄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등자동승강장치
원불전, 인등, 위패
각종 시설물 제작·시공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89번길 27
도 량 장 엄 등
연 등 자 동 승 강 장 치
원 불 전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인 등
위 패

주요 종단 수장 교체…한국불교 발전 이끈다

2022 종단 결산

3월 성파 종정예하 추대법회
조계종 등 새 총무원장 선출
印분황사, 세종 광제사 낙성
연등회 3년 만에 대면 재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022년은 한국불교 발전을 이끌 주요 종단 수장들이 교체되는 변화의 시기였다. 장자 종단 조계종의 신성(神聖)인 종정으로 중봉 성파 대종사가 공식 추대됐으며, 조계종 · 천태종 등 주요 종단 총무원장이 교체됐다.

조계종은 3월 30일 조계종 제15대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 추대법회를 조계사에서 봉행했다. 중봉 성파 대종사는 3월 26일 임기 시작과 함께 이날 추대법회에서 처음으로 대중법문을 설했다. 대종사는 "언필칭(言必稱) 한국불교를 '호국불교' 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호국불교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면서 "초발심으로 돌아가자. 새롭게 출발한다면 우리 마음, 가정, 사회, 국가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했다.

편안하게 이야기하듯 전한 법어에 세간은 중봉 성파 대종사의 '부드러운 리더십' 에 주목하고 있다. 근엄하고 다가서기 어려운 큰스님이 아닌 누구에게나 열린 '무차(無遮)의 선지식' 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주요 종단 수장들의 교체도 이어졌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으로 진우 스님이 10월 5일 취임했다. 진우 스님은 종도들이 공의를 모아 단일후보로 추대돼 무투표 당선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취임사를 통해 "진심으로 소통하고, 신심으로 포교하며, 공심으로 불교중흥의 새 역사를 열겠다"고 선포한 진우 스님은 '경주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를 대국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은 4월 9일 단양 구인사에서 취임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무원 스님은 취임사에서 "천태종의 발전을 위해 힘을 아끼지 않고 노력하면서 이웃 종교 · 다문화와 화합하며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겠다. 4차 산업시대의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고자 한다"고 취임 각오를 밝혔다. 또한 임기 4년 동안 △찾아가는 불교문화 활성화 △비구 · 비구니스님 위상 강화 △효율적인 종무행정을 위한 재가불자 종무 참여 확대와 전문성 제고 등을 약속했다.

관음종 제11대 총무원장에는 법명 스님이 7월 14일 취임했다. 법명 스님은 취임사에서 "더욱 본분사를 충실히 하여



10월 5일 열린 취임법회에서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있다.

관음종단 뿐 아니라 불교 미래를 위해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고 종정예하께서 반석을 다져놓은 관음종단의 위상에 흠이 안 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다. 불교의 신앙적 가치를 확산하고 불국정토를 실현하는 데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 나아가 종단과 불교 중흥에 이바지 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전했다.

같은 날에는 관음종 前 총무원장 홍파 대종사가 제9세 관음종 종정으로 추대됐다. 홍파 대종사는 "천태 지의 스님, 고려 제관 스님, 왕자 의천 스님, 경운 원기 스님, 그리고 태허 조사님, 제가 반드시 미묘한 법을 더욱 펴겠다"고 결의에 찬 수락 법어를 내렸다.

조계종 36대 총무원 집행부의 핵심사업인 백만원력결집 불사 가운데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와 세종 광제사가 사부대중 원력으로 문을 연 것도 눈길을 끌었다.

조계종은 5월 21일 인도 부다가야에서 분황사 낙성식을 봉행했다. 부처님 깨달음 성지 인도 부다가야에 한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한 분황사는 조계종이 종단 차원에서 인도 부다가야에 건립한 첫 사찰이다. 수행관, 도서관과 식당이 있는 다목적 건물, 지역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를 갖췄다.

8월 9일 도심 포교 중점 도량의 힘찬 시작을 알린 세종 광제사와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은 행정수도이며 정치 · 사회 및 지리적 중요도시인 세종시에 신도시 포교를 위한 거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4월 26일에는 불교 문화유산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수리를 담당할 전문 연구시설인 양평 불교문화재 연구시설의 착공식이 열렸다. 조계종 백만원력결집불사의 주요사업으로 추진된 '불교문화재연구시설 건립불사' 는 종단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된다.

2013년 처음 계획이 수립된 후 좀처럼 진전되지 못했으나 용문사가 부지를 제공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9년만에 비로소 첫삽을 뜬 불교문화재연구시설은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45-22번지 대지면적 5019.00㎡ 부지에, 건평 1889.19㎡, 연면적 6769.28㎡ 규모로 건립된다.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지하 2층, 지상 2층 건물이다. 교육연구시설로, 불교문화유산 연구는 물론 성보의 수리와 보수, 복원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코로나19 이후 3년간 대폭 축소됐던 연등회가 재개된 것도 기쁜 소식이었다. 4월 30일 서울 동대문에서 조계사까지 진행된 연등회에는 10만 연등이 밤하늘을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올해는 연등회가 2020년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무대였다. 연등행렬 구간의 거리마다 가득 찬 행렬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에, 불자들의 정성으로 꾸며지던 연등회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축제임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었다.

불교왜곡 · 종교편향 적극 대응…세상 아픔 보듬는 지원도

2022 대사회 결산

올해도 이어진 불교왜곡에
교계, 감시 · 개선 기능 강화
재해 · 전쟁 인한 대중 아픔
각종 캠페인 등 지원 나서



조계종에서 모니터링을 통한 종교 간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제작한 종교차별신고센터 홈페이지.

올해 불교계는 대사회 이슈가 이어진 해다. 지난해에 이어 잇단 종교편향 논란 사례들이 줄을 이었고 범불교적 차원에서 불교왜곡 · 종교편향 대응에 나섰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자연재해와 전쟁 등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이어지기도 했다. 불교계는 대중의 아픔을 보살피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활동에 나섰다.

불교왜곡 · 종교편향…감시 기능 강화

지난해에 이어 반복돼 온 불교왜곡 · 종교편향에 불자들의 공분은 더해갔고 범불교 차원의 대응 활동도 잇따라 확산됐다.

올해에만 가톨릭 성지화 사업으로 불거진 주어사지 문제와 국공립 및 시립합창단 편향 사례, JTBC드라마 '인사이더' 의 불교폄훼, 신안군 천사섬 사업 논란, 법계도 도용 등 다각도에서 불교왜곡 · 종교편향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조계종은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종교 편향 행위에 대한 감시와 개선 기능 강화에 나섰다. 종교 간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종교차별신고센터 홈페이지' (http://buddh.kr)를 개설, 종교 침해와 편향 사례를 수시로 수집하고 사안별 대응 조직을 꾸렸다. 조계종은 천주교 성지화 사업관련 연구 및 대응을 위해 불교역사제자리찾기운동본부 등 사회시민단체와도 연대, 각종 현안 연구사업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자연재해 · 전쟁 대해 동체대비행

올 한 해 국내외를 불문하고 안타까운 사건들이 줄을 이었다. 불교계는 대중의 아픔을 보살피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에 나섰다.

3월 초 발생한 경북 울진과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지역주민들을 위로하고 복구를 돕기 위해 불교계는 자비온정을 나눴다. 이어진 중부지방 집중호우에도 수재민들에게 구호물품을 전달하며 이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 불교계를 넘어 대사회적으로도 큰 감동을 줬다.

불교계의 자비나눔은 국외까지 이어졌다. 2월 24일 러시아가 미사일 공격을 시작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진행하며 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불교계는 인도적 위기 해소를 위한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적극 나섰다. 긴급 모금 캠페인을 통한 모연 등을 이어갔으며 평화를 염원하는 기도회도 잇따라 봉행됐다. 불교계가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 전달한 기금은 40만 달러(약 5억 2400만 원)에 달한다. 또 국가부도로 생명의 위기까지 겪고 있는 스리랑카 국민들을 위해 캠페인을 펼치고 필수의약품과 식료품을 꾸준히 지원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에 이어 불교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활동에 두드러지는 행보를 보였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력 촉구해 온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은 올해도 결국 무산돼 아쉬움을 남겼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6월 17~18일 열린 대행선연구소 국제학술대회. 대행 선사 열반 10주기를 맞아 열렸다.

세계 석학 '한자리'…대형 국제대회 잇달아

2022 문화재 · 학술 결산

세계불교학대회 서울대 일원서
대행 선사 10주기 국제 대회
동국대서 불교인식논리학회도
문화재→국가유산 변경 추진돼

2022년에는 굵직한 국제학술대회들이 잇달아 열리며 세계 석학들이 한국을 찾았다. '불교학 올림픽' 이라고 불리는 세계불교학대회가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대 일원에서 열렸다. 세계불교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행사인 세계불교학대회는 1978년 뉴욕 컬럼비아대학에서 제1회 대회를 개최한 이래 유럽, 북미, 아시아를 순회하며 3년마다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대만, 태국에서 열렸으며, 한국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외 불교석학 250여 명이 참석해 불교철학부터 문헌학, 미술사, 역사를 비롯해 수행 · 명상, 사회문제, 윤리학 등 폭넓은 주제의 발표들이 이뤄졌다.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동국대에서는 제6차 세계불교인식논리학회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20여 개국에서 50여 명 발표자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불교 인식론, 존재론, 논리학에 대한 연구 성과를 공유 · 논의했다.

대행 선사 열반 10주기를 맞아 '세계 비구니 승가' 와 '공생의 삶' 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가 잇달아 열리기도 했다. 한마음선원 산하 한마음과학원은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뉴노멀 시대, 지구촌 공생의 삶: 마음, 과학, 종교' 를 주제로 '2022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 를 개최했다. 미국 · 캐나다 · 독일 · 이스라엘 · 아랍에미레이트 · 대만 · 아르헨티나 등 8개국 20여 명의 석학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이 자리에서 석학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기에 처한 지구촌의 문제를 되짚고 공생, 통합, 평화의 방안을 모색하고 비전을 제시했다.

한마음선원 대행선연구원은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세계 비구니 승가 현재와 미래' 를 주제로 묘공당 대행 선사 열반 10주기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동 · 서양을 대표하는 비구니 스님들과 여성불교 전문 연구자들이 대거 참석해 한국을 비롯한 미국 · 일본 · 미얀마 · 티베트 등 전 세계 비구니 승가의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그간 통칭돼 온 '문화재' 가 '국가유산' 으로 변경이 추진되는 것도 한 해 동안 이슈가 됐다.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은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년 만에 변경되는 것으로 재화(財貨)의 느낌이 강한 '문화재' 의 '재(財)' 를 '유산(遺產)' 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지난 60년간 사용해 온 '문화재' 는 '국가유산' 으로 통칭되며, 하위 분류 체계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뉜다.

2022년은 불교 성보들의 '환지본처' 가 추진되거나 완료가 잇달았다. 지난 2월에는 조선왕조실록 · 의궤 오대산 사고본(이하 오대산 사고본)을 월정사로 환지본처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오대산 사고본의 환지본처에 청신호가 켜졌다.

'흥천사 동종' 의 경우 국립고궁박물관 입구에 보호각을 설치해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불교계의 반발로 흥천사로의 환지본처를 논의 중에 있다.

지난 6월에는 1989년부터 1994년 사이 도난된 7개 사찰의 성보문화재 25점이 30년 만에 원봉안처로 돌아갔다. 조계종은 이를 기념하는 고불식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서 봉행하기도 했다.

신성민 기자

코로나 극복 순례 · 미래청년 포교 '눈길'

2022 신행 포교 결산

2022년은 코로나 팬데믹 종료 시점을 맞아 순례와 걷기명상을 통한 전법포교의 움직임이 활발히 일었다. 상월결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평화방생 순례를 매월 한 차례씩 진행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힘입어 조계종 포교원도 순례길 개발에 나섰다. 포교원은 2월 27일 '허응당 보우의 길' 을 발간하고 4월 '창원 용지호수의 길' 을 발간하였으며, 6월 11일에는 포교원장 범해 스님과 교역직 스님들, 제주지역 포교사단 포교사 200여 명과 함께 '제주 관음순례길' 제1코스 '관음사 순례길' 을 순례했다. 이어 포교원은 11월 19~20일 구례화엄사와 천은사 일대에서 청년대학생 신행순례를 개최하기도 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을 필두로 불자들이 제주 관음사길을 순례하고 있다.

2022년은 각 전법포교 분야에서의 종단 정책지원도 활발히 이뤄졌다. 종단 차원에서 각 분야의 전법 포교를 담당할 전법단도 새롭게 출범했다. 포교원이 5월 27일 개최한 전법단 지도법사 위촉식에서는 경찰(2010), 청년대학생(2010), 병원(2010), 신도시(성남,2010), 교정교화(2011), 장애인(2011), 체육인(2012), 국제(2013), 어르신(2017) 전법단에 이어 연예인 전법단도 구성됐다. 포교원은 이를 위해 '대한불교조계종 전법단 운영 · 관리에 관한 령' 제정을 통해 종단 차원의 지원체제도 구성했다. 11월 22일 출범한 연예인전법단은 적조사에 사무실을 두고 단장 탄탄 스님을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간다.

이와 함께 지난해 조계종 포교원과 불교여성개발원의 갈등은 6월 23일 조계종 여성불자들의 전국구 결집체인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발족으로 마무리됐다. 전국여성불자회는 전국 25개 교구본 · 말사에서 활동해 온 여성 불자들의 저력을 결집하고 활동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출범한 만큼, 침체된 한국불교를 견인할 대표적인 포교단체로 성장할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군승 파송 미달사태를 겪은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11월 29일 제6대 교구장 능원 스님 취임을 계기로 군승 수급 및 홍제사 불사 성만에 역주한다는 방침이다. 군승 수급 문제가 종단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 인식 전환과 스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독려가 필요한 만큼 군종특별교구는 이 부분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교구장 능원 스님은 젊은 스님들이 일선 군법당에서 주지직을 소화하며 다양한 사판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린다는 계획을 전했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제20대 총장에 6명 후보 등록

12월 13~14일 지원 접수 결과
재임 도전한 윤성이 총장 비롯
박명호, 송일호, 윤재웅, 임중연
최응렬 교수, 총장 출사표 던져


박명호 교수
정치외교학전공


송일호 명예교수
경제학과


윤성이 총장


윤재웅 학장
다르마칼리지


임중연 교수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최응렬 교수
경찰행정학부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 제20대 총장에 윤성이 현 총장을 비롯해 박명호 · 송일호 · 윤재웅 · 임중연 교수 등 6명이 입후보했다.

학교법인 동국대는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제20대 총장 후보 지원서를 접수받았다. 12월 14일 오후 5시까지 접수를 진행한 결과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전공 교수 △송일호 동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윤성이 현 동국대 총장 △윤재웅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학장 △임중연 동국대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교수 △최응렬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이상 가나다순)가 제20대 총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비교정치를 전공한 박명호 교수와 노동경제 전문가인 송일호 명예교수로 지난 총장 선거에 출마했었다. 건학이념 정립 공약으로 당시 박명호 교수는 불교대학 중심의 인성교육프로그램 강화를, 송일호 명예교수는 불교한류문화원 설립 등 불교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사업 개발을 내세운 바 있다.

윤성이 현 총장은 건학위원회 원력에 발맞춰 대규모 취업박람회 등 여러 사업들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2021, 2022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2년 연속 9위 달성하는 등 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당 서정주의 제자인 윤재웅 학장은 학사부터 박사까지 모두 동국대에서 받은 '동국인'으로 1991년 세계일보 신춘문예 문학평론 부문에 당선된 평론가이기도 하다. 국어교육학과 교수이자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다르칼리지 학장으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임중연 교수는 버클리대학에서 공학박사를 받은 재원으로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경찰행정학부, 법학과 등 초학제적인 연구진으로 구성된 스마트 커뮤니티 폴리싱 시스템 Googi 개발 연구센터를 이끌고 있다.

최응렬 교수도 학사부터 박사까지 모두 동국대에서 받은 '동국인'으로 사회과학대학 · 행정대학원 부학원)장(2007~2011), 대외협력본부장(2012~2015) 등을 역임했다.

동국대는 12월 19일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위원장 혜일, 이하 총추위)는 2차 전체회의의 자격심사 후 지원자들의 공약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 이날 2차 전체회의에서는 이사회에 추천할 최종 후보자수도 확정했다.

12월 26일 오전 10시 로터스홀에서 열리는 총추위 3차 전체회의에서는 후보자 소견발표(PPT)와 총추위원 질의응답이 진행되며, 이 과정은 유튜브 등 온라인 중계를 통해 공개된다. 최종후보자 선정 및 이사회 추천은 12월 27일 오전 10시 총추위 4차 전체회의를 통해 이뤄진다.

한편 총추위원으로는 △혜일 · 오심 · 성화 · 서봉 스님(조계종 대표) △김영일 · 임명배 · 김봉석(사회인사 대표) △허남결 · 노헌균 · 송민규 · 오미영 · 이재철 · 임성묵 · 장원희 · 안종석 · 이승철 · 양윤호 · 이무열 · 윤상호(교원 대표) △박세훈 · 김종윤 · 장기복 · 김계철(직원 대표)△박대신 · 문선배(동문) △안현민(학부 대표) △김정도(대학원 대표) 등 총 27명이 위촉된 바 있다.

"간화선 · 응용명상 수업 학생 정신건강 증진 효과"

동국대 종학연구소 연구진들 'SCI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

한국 전통 간화선 수행과 현대 응용명상을 결합한 프로그램이 대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특히 해당 연구논문은 SCI 국제 저명 저널에 게재되기도 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소장 정도)는 "연구소 연구진들의 공동연구 논문이 SCI 국제저널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 게재됐다"고 12월 13일 밝혔다.

'마음챙김과 불교명상 코칭이 대학생의 정신건강 결과에 미치는 영향(The Effects of Mindfulness and Buddhist Meditation Coaching on Mental Health Outcomes in College Students)' 이라는 제하의 연구논문은 김유리 동국대 불교학술원 전임연구원이 제1저자로 참여했으며 공동 저자로는 길재원(식품영양전공) 씨가, 교신 저자로는 정도 스님(종학연구소장)과 금나나(동국대 식품생명공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 불교의 전통 수행인 '간화선의 효능'을 처음 SCI 국제저명저널에 게재한 논문으로 대학생들의 정신건강과 관련해 동국대에 개설된 명상 교과과정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담았다.

연구진은 동국대의 교과과정인 '자아와 명상'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응용명상과 전통명상(간화선) 프로그램으로 구성 된 15주간의 수업 전과 후의 변화를 관찰했다. 이를 통해 '자아와 명상' 수업이 성인 ADHD, 자아정체성에 유의미한 개선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김유리 종학연구소 전임연구원은 "명상의 기능적 활용을 넘어 수행의 관점에서 명상 코칭을 연구해왔으며, '제3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의 '명상대담'을 통해 이 같은 주제로 대담을 진행했는데, 논문으로 출판하게 돼 기쁘다"며 "지도교수이자 공동 교신저자인 종학연구소장 정도스님과 금나나 식품공학과 교수, 공동 제1저자인 길재원 식품공학과 학생의 도움으로 이뤄낸 결과"라고 밝혔다.

동국대 종학연구소장 정도 스님은 "조계종 종단과 동국대 및 한국불교의 수행 · 문화 · 역사 · 사상 · 응용불교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정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화합 기원"…크리스마스 트리등 불 밝혀

12월 14일, 트리 등 점등식 개최
진우스님 "상호이해 존중 기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조계사가 트리등을 밝혔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은 12월 14일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종교 간 화합과 평화를 기원하며 '크리스마스 트리등 점등식'을 개최했다.

이날 점등식에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위원장 김희중 대주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등 종교계 인사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김대현 종무실장,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범종스님을 비롯한 부 · 실 · 국장스님과 조계사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사랑과 평화를 전하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는 크리스마스 축하메시지를 통해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종교 간 상호이해와 존중, 연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진우 스님은 "헐벗은 이를 위해 신발과 옷을 내어주고 굶주린 이를 위해 자신의 밥그릇을 내밀었던 예수님의 행동이야말로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자리이타행으로 종교를 떠나 따르고 본받아야 할 것"이라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보편화된 현실에서 타인의 이익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이 세상을 진정 조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탄생일을 맞이해 우리 모두가 상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희중 대주교는 "부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사랑이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이라면서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살려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밝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임은호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종단협 회장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종단협 이사회서 만장일치로 추대
대통령 초청 국태민안법회 추진 등
내년 사업계획, 21억원 예산안 확정


종단협 신임회장으로 추대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새 회장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추대됐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는 12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만장일치로 신임 종단협 회장으로 추대했다.

종단협 회장으로 추대된 진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종단 대표자 스님들의 의견들을 잘 청취하며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한국불교와 종단협 발전에 필요한 정책과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종단협은 21억 원 규모의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심의 · 결의하고 내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종단협은 코로나19로 개최되지 않았던 대통령 초청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를 내년 4월 중 봉행키로 했다. 또한 그간 순연돼 왔던 '제23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한국대회'를 내년 10월 경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 동원된 조선인 유골을 고국으로 봉환하는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사업'을 추진키로 했으며, 한국불교지도자 성지순례는 내년 6월 경 진행하기로 했다.

내년 사업에 대해 종단협 사무처는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됐던 대통령 초청 법회를 부처님오신날 한 달전에 진행하려 한다"며 "내년에는 대통령 초청 법회, 봉축 행사, 한중일불교대회 등 대형 행사를 중심으로 사무처 역량을 집중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한 종단협은 부회장에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상임이사에 조계종 총무부장 호산 스님과 조계종 사회부장 범종 스님으로 각각 변경했다. 일붕선교종을 상임이사 종단에서 이사 종단으로 변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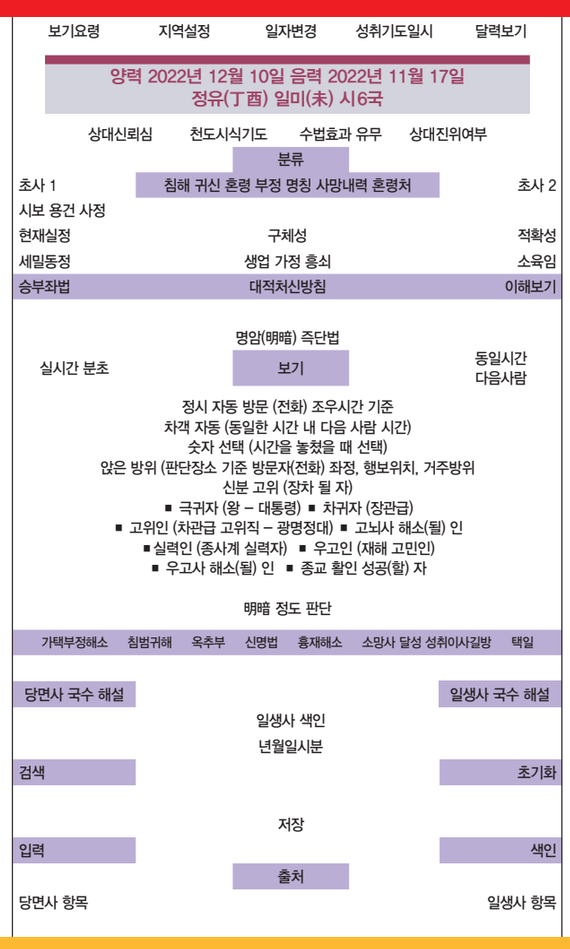
이밖에도 종단협은 내년 1월 18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불기2567(2023)년도 계묘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키로 했으며, 2월 28일 총회와 이사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성민 기자

육임 CD 프로그램 '효사비결'의 차원을 높인 본 '앱'을 특별 할인 가격으로 즉시 전송해드리겠습니다

'육임 AI'



* 번호변경 분실 · 파손시 파일 재전송함
* 영구적 서버 지원
* 우측 첫창 화면에는 항목 단추 표시만 기재되었으나 실물에는 내용및 착목도가 매우 우수함.
* 동일시간 내 여러 사람의 판단은 '다음사람' 단추만 누르면 자동적으로 각기 달리 적용됨.



개 요

■ 과학성을 담보하여 말 한마디 묻지 않고 듣지 않고도 만난(전화) 시간만으로 미리 먼저 상대의 속사정(비밀)을 속속들이 알게 됩니다.
■ 속도성과 효과성이 강렬합니다.
■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을 달았습니다.
■ 방문(전화)자의 신분, 즉 극귀자, 차귀자, 고위자, 실력자, 우고인, 우고 재해 해소(될)자, 종교귀의 성공(할)자, 상대 운세 명암(明暗)의 정도가 한 눈에 잡힙니다.
■ 침범鬼, 부정(邪崇), 산소탈(묘지속 상태)과 각 그 해소방법을 적시했습니다.
■ 각종 제의, 치성, 기도 부(符)의 효과유무를 적시했습니다.
■ 방문(전화) 자의 생업 가정 흥, 쇠를 밝혔습니다.
■ 원터치 방식으로 매우 간단합니다.
■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 세계 어느 곳이든 국내와 같은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 육임 CD 프로그램 '효사비결'을 변환했습니다.

당면사 항목 클릭 (첫창 下 좌측)

01. 육임 상대(전화)자 선입견
02. 육임 목적사 달성
03. 육임 당면 소송 승패
04. 육임 남녀용모가문 우열 배우시기
05. 육임 선출직 품성 업무 추이
06.육임 계획 도모 사
07. 육임 형이상 법
08. 육임 출생연도(띠)별 익명상황
09. 남녀 성력 선호 태위
10. 육임 전화 친견 (이동 위치 장소 불문) 즉단
11. 육임 일상생활 길행
12. 육임 각 일별 사안 질병 육친변수
13. 육임 세세년년 1년 신수
14. 행운
15. 육임 묻는 항목별 정답 및 확정 띠

2024년도 1분기 업데이트 항목

16. 육임 사복법 인물류 (신분 귀천 종사업 부빈)
17. 육임 사복법 물품류
(물품 동식물 신구 장노 색깔 모양 수맛 구별)

일생사 항목 클릭 (첫창 下 우측)

01. 육임 일생 남녀 성격 대체 궤적
02. 육임 일생 전체 구체 적합 특이점
03. 육임 질병 생사
04. 육임 자녀 친화 구해 선별
05. 육임 현재신상
06. 남녀 성력 선호 태위
07. 육임 가묘(家墓) 좌법
08. 육임 명좌신불문(命座神佛門) 법
09. 육임 일생 침범 귀해(鬼害)
10. 출산 길일길시선택
11. 육임 출생시각 별 부모선후망 처 자녀수
12. 육임 일간 대 나이별 운세
13. 육임 출생 일주 별 부부 남녀 배려 상극 애증
14. 상하 의복 색 판단

2024년도 1분기 업데이트 항목

15. 작명 감정 (7대법칙 맞춤 작명된 양식 출력됨)
16. 사주 대세 운 항목별 정확변별 (출력됨)

■ 전화: 02 – 567 – 3850 010 – 2536 – 3850 ■ 가격 : 휴대폰 + 태블릿 병용 45만원 / 휴대폰 (아이폰) 용 35만원 / 태블릿용 25만원 ■ 카드 전화 결제됨 ■ 입금 : 농협 301–0252–7245–11 (가북)

스무살 템플스테이 "K-컬쳐 열기 지속되는 힘 될 것"

한국불교문화사업단, 12월 17일 20주년 기념식

사부대중 500여 명 '스무돌' 축하
진우 스님 "대한민국 풀무될 것"
윤석열 대통령도 메시지로 축하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12월 17일 열린 20주년 기념식에서는 다양한 축하공연도 진행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12월 17일 '템플스테이 20주년 기념식'을 열고 템플스테이 발전에 헌신한 유공자를 표창했다.

스무살 성년이 된 템플스테이를 축하하고 새로운 미래 100년을 응원하는 법석이 열렸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명)은 12월 1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템플스테이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마음을 더해온 20년, 인연을 향한 100년'을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해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기념식은 단장 원명 스님의 템플스테이 20년 경과보고로 문을 열었다.

2002년 한일월드컵대회를 계기로 33개 사찰에서 시작된 템플스테이는 2022년 현재 전국 150여 개 사찰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국가브랜드로 성장했다.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전 세계 성공적인 5대 문화관광상품'으로, 2010년 대한민국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대 아이콘'으로 선정되는 등 전 세계에 한국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는 한편 국위를 선양하는 성과를 이뤘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국민이 고통 받던 2020~2022년에는 '치유 템플스테이' 등을 통해 국민의 아픔을 함께하면서 공익적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템플스테이는 안으로는 일반 국민들의 여가선용 및 문화 향수권 증진에 기여하고 밖으로는 전 세계에 한국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많은 역할을 해왔다"면서 "그 결과 205개 나라에서 템플스테이를 다녀갔고 누적 연인원은 600여만 명에 이를 정도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어 "온 국민들의 사랑과 전 세계의 성원 속에서 성년이 된 템플스테이가 문화체험의 영역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아픔과 국민들의 고통을 보듬는 적극적인 사회공익 수행자의 역할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템플스테이는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K-컬쳐' 열기가 더욱 커지고 오래오래 지속되도록 대한민국의 풀무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템플스테이의 지난 행보에 박수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축하메시지를 통해 "템플스테이는 우리 국민의 심신건강에 기여하고 종교를 초월해 세계인에게 전통문화를 알리는 대한민국 홍보대사"라면서 "국민들의 행복추구와 문화복지 실현은 물론 자랑스러운 우리문화를 세계 곳곳에 전하는 귀한 자산으로 거듭나도록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마음을 전했다.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도 템플스테이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 밖에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종민 前 문체부 차관, 불교문화사업단 역대 단장 스님, 전국 템플스테이 종사자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템플스테이 20주년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20년간 템플스테이 발전에 헌신한 유공자 표창도 진행됐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코레일관광개발과 하나투어에 감사패를, 천태종 총무원장인 무원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주경 스님, 황찬익 조계종 前 포교과장에게 특별상을 수여했다. 템플스테이 발전에 기여한 전임 단장 1, 3대 현고 스님, 2대 현진 스님, 6대 지현 스님, 9대 진화 스님, 10대 성효 스님, 11대 수암 스님, 12대 원경 스님에게는 공로패를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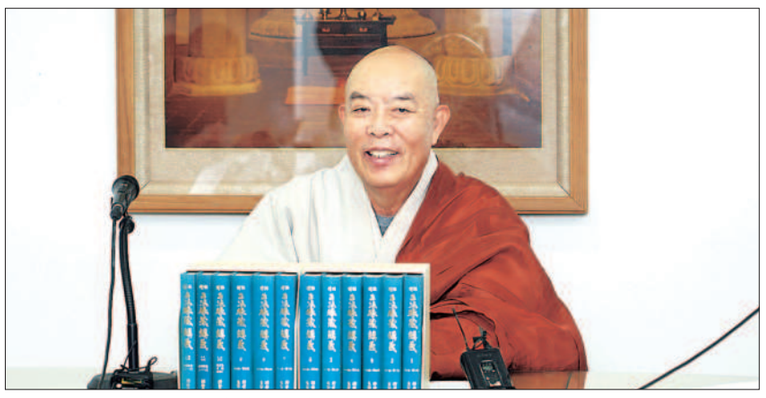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은 순천 송광사에 돌아갔으며 사찰음식 명장 계호 스님, 대안 스님, 선재 스님, 우관 스님, 적문 스님, 정관 스님이 총무원장상을 받았다.

이 밖에도 각 사찰에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지스님 부문에서는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 영평사 주지 환성 스님, 지도법사는 각안 스님(前 송광사 포교국장), 묘향 스님(내소사), 보행 스님(심원사), 선우 스님(진관사), 혜아 스님(회암사)이 수상했으며 실무자 부문은 곽일민, 김경숙, 김태영, 안혜란, 이동익, 이정옥 씨가 수상했다. 특별공로상은 4대 포교원장인 도영 스님이 수상했다.

이날 2부 축하 공연은 미디어 타악공연의 좋은 친구들, 한국 전통 소리의 계승과 발전에 앞장서는 소을소리판, 싱어송라이터 루시드 폴과 재즈 피아니스트 조윤성의 합동무대, 찬불포교사 LMB싱어즈, 풍물판국과 아리랑을 선보인 야단법석 무대로 진행됐다.

40년 역주 원력 결실, 보광 스님 〈정법안장 강의〉

12월 15일 완간 기념 기자간담회
선의 교과서 도겐선사 〈정법안장〉
난해한 일본 고전어, 쉽게 풀어내
266명의 불교학자 번역에 동참해
"목숨이 담겨 있는 결과물" 평가


보광 스님이 12월 15일 40년 원력이 담긴 〈정법안장 강의〉를 공개했다.

일본 선의 핵심 텍스트로 꼽히는 〈정법안장〉은 일본 조동종 개산조인 도겐(1200~1253) 스님이 중국 유학 중 체험한 송(宋)대 선문화 뿐만 아니라 일본 선문화, 당시 동아시아 사상의 흐름과 문화 등을 함께 읽을 수 있는 것으로 꼽힌다.

특히 간화선 중심의 한국 선문화에는 또 다른 선의 모습을 보여주는 훌륭한 지침서이기도 하다. 성철 스님, 서옹 스님, 혜암 스님 등 고승들이 〈정법안장〉 읽기를 권유하고, 법정 스님이 〈정법안장〉의 한글본을 고대했던 것은 이런 연유에서였다.

이런 〈정법안장〉이 조계종 호계원장 보광 스님의 40년 원력과 30년 노력으로 드디어 완간됐다. 바로 〈역주 정법안장 강의〉다. 40년이란 세월을 거쳐 〈정법안장〉이 완간된 것은 95권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 뿐만 아니라 일본 고전어로 되어 있어 일본 사람들도 읽기 난해했기 때문이었다.

1980년 일본 유학 당시 교토의 불교서점서 수많은 〈정법안장〉 연구서적을 보고 놀란 보광 스님은 〈정법안장〉 역주에 대해 원력을 세웠다. 보광 스님이 유학을 마치고 1993년부터 번역과 강의를 하며 한국에서도 드디어 〈정법안장〉 30년 역주 장정이 막을 올렸다.

보광 스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하고자 하는 원력을 세웠기에 진척은 더뎠다.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과 토론을 하고, 그 내용을 교차 검증하였으며, 영문본과의 비교분석 등을 진행했다. 스님과 함께 번역에 나선 노학자들은 세상을 떠났고 학생들은 석·박사를 거쳐 교수가 됐다.

이렇게 필생의 사업으로 진행한 〈역주 정법안장 강의〉 1권부터 9권까지는 도겐 스님의 〈정법안장〉 번역과 주석, 강의 내용이 담겼으며, 10권은 총목차 해제, 11권과 12권은 사전으로 주석이 집대성됐다.

보광 스님은 〈역주 정법안장 강의〉 1권에서 밝혔듯이 이 번역사업을 필생의 사업으로 생각했다. 12년간 95권 중 30권을 번역해 2006년 〈정법안장〉 10권 분량을 담아 〈역주 정법안장 강의〉 1권으로 펴냈다. 당시 스님은 완간까지는 약 30여 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2006년 1권에 이어 2012년 2권이 나왔으며, 2020년 3,4권이 나왔다. 그리고 2년 만인 2022년 12권이 완간됐다.

그 이면에는 보광 스님의 이러한 원력에 힘을 보탠 불교학자들이 있었다. 총 266명의 학계 인사들이 참여한 데 이어 결정적으로 교수, 대학원생, 학부생 등이 편찬위원회를 거쳐 4년간 교정과 윤문, 증의에 동참했다.

보광 스님은 12월 15일 완간 기자간담회서 "수많은 이들의 목숨이 담겨 있다"고 평가하며, 번역에 참여한 이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스님은 이어 각 책에는 그동안 참여한 학생들의 이름까지 함께 담았음을 소개했다.

스님의 원력이 담긴 〈정법안장〉은 한국선에서 보는 것과 다른 다양한 각도의 공안과 조사들의 행적을 살피고 해석한다. 대중공양 예법과 같이 중국 선문화나 한국 선문화에는 전승되지 않는 선문화도 함께 담겨있어 한국 선문화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스님은 "정법안장은 중국선종어록 뿐만 아니라, 대승경전, 〈아함경〉 등 방대한 자료를 다양하게 인용하여 불교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책을 읽고 많은 선지식들이 배출되기를 기원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노덕현 기자

"인력 강점 한마음선원, 전법 인재 양성을"

대행선연구원, 12월 17일 제13회 계절발표회

백도수 교수, 선원 전법방안 제안
전법교육기관과 플랫폼 구축 필요
법장 스님, '범망경' 계체론 분석해
"계체론, 범망경 발전 중요한 토대"


백도수 능인대학원대학 교수가 12월 17일 열린 대행선연구원 계절발표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대행 선사가 창건한 한마음선원이 지속·발전하기 위해서는 훈련된 전법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토대로한 전법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은 12월 17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에서 제 13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백도수 능인대학원 대학 교수(한국불교학회장)는 '한마음선원의 전법토대와 전법 실천방안 고찰'을 통해 한마음선원의 전법 환경을 분석하고 향후 실천 방안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한마음선원 전법환경을 'SWOT(강점·약점·기회·위기) 분석'으로 살핀 백 교수는 승려 수와 신도의 강한 신심, 연구·신행 등 다양한 활동을 강점으로 꼽았으며, 약점으로는 승려·재가 교육, 인터넷 관리, 창의적 대안부족, 외국인 전법 역량 등을 제시했다. 또한 기회로는 연구활동, 국제화 가능성, 명상상담 활성화를, 위기로는 종교인구 감소, 불교 위상 축소, 대행 선사 열반 등을 꼽았다.

이를 토대로 백 교수는 잘 훈련된 전법 전문가 양성을 최우선적으로 제안했다. "한마음선원은 150여 비구니와 비구스님, 전법활동에 참여할 신도, 그리고 선원만의 전법자료와 연구 인력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한 백 교수는 "150인의 비구니와 비구스님들은 전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우선시해야 한다. 전법전문가 양성을 위해 전법 노하우와 기술을 익히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한마음전법사' 양성은 2대 한마음선원 발전의 틀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전법교육기관의 형성과 플랫폼을 구축하고 대행선연구의 체계와 한마음선원의 국제화 토대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발표회에서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법장 스님은 '〈범망경〉 주석서에 나타난 계체론 연구'를 통해 〈범망경〉 계체론을 대표하는 주석서인 〈지의소〉 〈원효기〉 〈법장소〉를 비교하고, 이들이 〈범망경〉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폈다.

법장 스님은 "〈지의소〉 〈원효기〉 〈법장소〉에 나타난 계체론은 불성인 마음을 토대로 하며, 그 존재성은 인연에 의해 생겨난 유무를 떠난 것이라고 보는 공통된 견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망경〉에 대한 다양한 계체론은 후대 의적, 태현 등으로 넘어가 더욱 긴밀한 형태로 융합된다"며 "이는 〈범망경〉이 동아시아 대승보살계를 대표하는 경전으로 발전하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회 논평자로는 이자랑(동국대), 고승학(동국대), 서재영(성철사상연구원), 김봉래(BBS불교방송) 등이 참여했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서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대행 선사 열반 10주기를 맞아 이 자리에서 대행선연구원과 한마음과학원이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두 학술대회 모두 대행 선사의 사상을 국내외에 알리는 뜻 깊은 자리였다"면서 "다양한 학술대회와 발표회를 통해 국내외 학자들이 꾸준히 불교와 대행선 연구에 인연을 맺어가는 점은 큰 보람이다. 오늘 발표자와 논평자에게도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행선연구원장 혜선 스님도 인사말을 통해 "대행선연구원이 창립된 지 6년 5개월이 됐다. 지난 7월부터 원장 소임을 맡았는데 어깨가 무겁다"면서 "제가 이생에서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다면 소명으로 받들어 심부름을 하려고 한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태고종 중앙종회, 내년 예산 44억 100만원

12월 14일 전통문화전승관서 제146회 정기회 개최
종단의식집 편찬, 태고문화전승연구소 설립 등 결의



한국불교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법담)는 12월 14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제146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내년 예산 44억 100만 원을 확정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연기했던 △동방불교대학 개교 40주년 기념행사 △종단의식집 편찬 △종단 기록유산 보존자료 아카이브 사업 실시 △태고문화전승연구소 설립 △영산문화축제와 태고문화축제 등 사업계획도 결의했다. 이에 앞서 종회의장 법담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서 "어느 단체를 불문하고 건강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첫 걸음은 투명한 재정이 밑바탕 되어야 할 것"이라며 "소중한 종도들의 자금이 불필요하게 소모되지 않도록 짜임새 있는 예산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중앙종회의원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총무원장 호명 스님도 "태고종이 더 존경과 신뢰를 받고 더 책임감 있는 종단, 역사의 큰 종단이 될 수 있도록 종회의원과 종도들의 성원을 바란다"며 "2023년도에는 해야 할 일이 더욱 많다. 특히 1/4분기에는 제 28대 총무원장 선거를 차질없이 치러야 하는 등 그 어느해보다 크고 중요하고 묵직한 일들이 많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한국청소년聯, 청소년 포교 재도약 다짐

12월 13일, 단체명칭 변경 기념식
선일 스님 "세계화 활동 펼치겠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대한민국 청소년 전법 운동에 앞장서온 한국청소년연합회가 출범 56주년을 맞아 단체명 변경과 함께 재출발을 선언했다.

한국청소년연합회(총재 미광 선일, 이하 한청연)는 12월 1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56주년 및 단체명칭 변경 기념의 날'을 개최했다.

1966년 청소년교화연합회로 출발한 한국청소년연합회는 운문 스님과 안병호 거사, 황해진 변호사가 뜻을 모아 설립한 한국 최초 불교 청소년 단체다. 현재 서울과 경기 등 15개 지부에 어린이집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9개 산하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4만 명의 회원을 거느린 전국적인 조직으로 성장했다.

반세기가 넘는 활동을 이어온 한국청소년연합회는 청소년교화연합회의 '교화'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인식이 현대사회에 팽배함에 따라 이날 한국청소년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하게 됐다.

기념식에서 총재 미광 선일 스님은 조직을 대대적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선일 스님은 "후원이사와 홍보 이사 영입, 해외 지부 활성화, 한청년 회원 확보 등을 추진하려 한다"면서 "전국 불교조직을 잘 활용해서 청소년 교육 문화 체육 복지 등 세계화 시대에 맞는 체계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한국청소년연합회는 숙원사업인 회관건립을 위한 천불봉안 동참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은행 023501-04-022101 예금주 (사)한국청소년연합회 임은호 기자

“생명나눔 후원회원 확대로 제2의 도약할 터”

생명나눔실천본부 · 현대불교신문 공동기획
‘생명나눔 희망선물’
⑫ 이사장 일면스님 인터뷰

대담=김주일 기자, 정리=임은호 기자

불교계 유일 장기기증 단체로, 생명나눔 문화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불가항력과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올해 눈에 띄는 사업성과를 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전년에 비해 143% 증가한 3100명을 모집, 3년 만에 모집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코로나19가 2020년부터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홍보 캠페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룬 성과다. 대면활동이 희망등록 성패를 좌우하기에 더욱 뜻깊다.

성과의 중심에는 이사장 일면 스님의 노고가 고스란히 담겼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일정뿐 아니라 각종 행사에 참석해 희망등록을 직접 권선을 하는 것으로도 유명한 일면 스님은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단체의 정체성과 같은 것”이라면서 “이를 이어가기 위해 전 직원이 일심단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월 16일, 올 한 해 그 누구보다 힘차게 달린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을 만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회와 2023년 계묘년(癸卯年) 계획을 들어봤다.

전국 180 복지관 릴레이 캠페인
코로나19 이후 첫 목표치 달성
고난은 첩경…“어려움은 기회”
전 직원 발로 뛴 일심단결 결과

간 기증받아 새 생명 얻은 기억에
매일 이름 모를 청년 위해 기도
주석처 불암사 천도재 외연 확대
본부 활동 믿음 간다는 평가받아

2023년 30주년 ‘제2 도약’ 기대
후원자 확대 중점사업으로 선정
일면 스님이라는 개인 원력 아닌
공익법인 확고한 자리매김 서원



일면 스님은… 1959년 해인사에서 명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해인사승가대학, 동국대 승가학과를 졸업했으며 조계종 포교부장, 사회부장, 중앙종회 수석부의장, 교육원장, 군종특별교구장, 동국대 · 광동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이다. 사진=박재완 기자

Q 2022년 한 해 동안 생명나눔실천본부가 펼친 사업 중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설립목적이자 최대사업인 장기기증 희망등록의 목표치를 달성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장기기증 희망등록 실적이 최근 2년간 매우 저조했습니다. 전 직원이 일심단결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이 강화되면서 2020년에는 목표치의 71%를, 2021년에는 43%를 겨우 넘겼습니다. 올해도 사회 분위기가 비대면으로 지속되면서 4월까지 캠페인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모집은 캠페인을 통한 대면활동이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이전과는 다른 캠페인이 필요했습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협력, 산하 180여 개 복지관에서 5월부터 적극적으로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했고 10월 경 정부와 약속한 모집목표(3000명)를 100% 이상 달성했습니다. 12월 현재 3100명이 모집된 상태로,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모집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전 직원이 일심으로 단결한 결과입니다.

Q 올 한 해 희망등록 목표치 달성을 위해 역점을 둔 전략이 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시작과 함께 대단위 캠페인을 펼치는 것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조계종사회복지재단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산하에 있는 전국 180여 개의 복지관 실무직원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펼쳐보겠다는 마음으로 대표이사 보인 스님을 직접 찾은 것입니다.

저의 아이디어는 릴레이 캠페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복지관을 소개받아 직원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펼친 후 그곳에서 다음 복지관을 소개를 받아 가는 형식이었습니다. 전 직원이 20명 이하인 소규모 복지관도 개념치 않았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희망등록을 한다면 대한민국 저 끝까지라도 찾아가겠다는 마음으로 반년 이상을 달렸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며 근무하는 복지사들인 만큼 장기기증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넘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또한 각종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해 권선했습니다.

Q 이사장 스님께서 언제 어느 현장에서든 직접 희망등록을 권선하는 모습을 보곤 감동했다는 불자분들을 취재현장에서 꽤 많이 만났습니다.

저는 1993년 간경화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1년 동안 16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모든 것을 정리했을 때 기적같이 나타난 기증자로부터 새 생명을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남은 인생,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겠다” 발원했습니다.

올해 릴레이 캠페인이 한창 진행 중일 때 하안거를 떠났지만, 캠페인을 진행해준 관장님들에게 감사인사를 잊지 않고 전했습니다. 법납이 상좌를 넘어 손상좌나 다름없는 관장스님들은 제 전화와 문자를 받고 몸 둘 바를 몰라 하기도 했습니다. 복지관 릴레이 캠페인 결과 1000여 명의 동참자를 이끌어냈습니다.

Q 복지관 릴레이 캠페인 외에도 특별히 신경 쓴 캠페인이 있을까요?

광동학원 이사장을 오랜 기간 역임한 저는 교육을 통한 생명나눔 가치 전달에 특별히 신경을 씁니다. 당장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지 못하지만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생명나눔의 가치를 인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광동학원 학생들은 캠페인뿐 아니라 걷기대회, 봉사활동 등 생명나눔실천본부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자연스럽게 참석합니다.

동국대 참사람사회공헌센터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교내에서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을 꾸준히 개최했고 500여 학생이 동참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올해 전년 43회에 비해 3배 이상인 128회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2~3일에 한 번꼴로 캠페인을 펼쳤다는 것인데, 이는 전 직원이 전국 곳곳을 누볐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에 설치된 희망등록 부스에도 신경 썼습니다. 불심 있는 직원을 상주시켜 운전면허를 위해 시험장에 오는 방문객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시험장에서 눈에 띄는 성과가 나자 올해 생명나눔대상 시상식에서 도봉운전면허시험장에게 생명상을 수여하고 격려했습니다.

Q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편견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려움은 기회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힘든 상황에 부닥칠 때마다 고난은 오히려 성과를 이루는 첩경(捷徑)이라는 생각으로 삶에 임합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도 역시 코로나19로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었지만, 교계의 도움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복지계에 종사하고 계신 스님들이 자신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줘 장기기증 희망등록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Q 실천서약 및 등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실질적인 기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교육과 홍보입니다.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SNS와 소식지 ‘행복한 빈손’을 통해 지속적으로 미담사례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998년부터 소식지 ‘행복한 빈손’를 매달 제작해왔습니다. 법문이 담긴 ‘생명나눔 편지’ 서부터 생명나눔 실천 현장을 생생히 전달하고 장기기증 서약 방법을 담은 ‘함께해요 생명나눔’ 치료비 지원이 간절한 이들을 소개하는 ‘이달의 환자’ 희망등록자 및 후원자 명단이 기록된 ‘생명나눔 소식’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현재 300호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매달 1만 4000부가 전국 후원회원과 각종 기관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식지가 후원자들이 자신의 후원이 헛되지 않음을 알고 생명나눔 확산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하려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층의 장기기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최근에는 법인 SNS 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정보제공뿐 아니라 챌린지 이벤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희망등록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교계 언론뿐 아니라 사회복지분야 언론에도 보도자료를 배포, 홍보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Q 부처님 가르침에 비추어 생명나눔의 가치와 의미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장기를 기증한다는 것은 불교의 근본사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장기기증을 통해 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일은 최고의 자비인 동시에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동체대비 사상의 가장 헌신적인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계 안팎으로 다양한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대외활동 시 생명나눔실천본부의 활동을 가장 먼저 소개합니다. 많은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나눔 활동에 참여하길 염원하는 마음에서입니다.

회와 타인을 위해 나눔을 실천한 기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재로 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최근에는 한국전쟁 등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바친 공무희생자까지 범위를 넓혔고 세월호와 코로나19로 인한 희생자를 기리는 위패도 함께 모시고 있습니다.

Q 생명나눔실천본부의 내년 활동 계획에서 눈여겨봐야할 계획과 사업이 있을까요?

내년이면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설립된 지 29주년이 됩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현재 후원자가 2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법인으로 성장했습니다. 2005년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했을 당시만 해도 회원은 20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크나큰 발전이지요.

그러나 후원금 지원 등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은 10만 여명에 그칩니다. 사업이 커지고, 후원이 필요한 이들도 점점 많아지는 상황에서 후원자 수는 법인의 피땀 어린 노력이 담긴 역사의 공익법인으로서는 아쉽기 그지없는 수치입니다.

이에 2023년은 ‘후원자 확대’를 중점사업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2024년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이를 통해 ‘제2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나눔실천본부라고 하면 저, 일면 스님을 떠올립니다.

개인의 원력이 지금까지 법인을 이끌었다면 이제는 공익법인으로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또 다른 30년, 100년을 위한 ‘제2의 도약’을 준비 중인 생명나눔실천본부에 현대불교신문 독자여러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Q 연말연시를 맞아 생명나눔실천본부 후원자들과 불자들에게 희망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23년 계묘년은 ‘검은 토끼’를 의미하는 해입니다.

계묘년 새해 세간의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합니다. 긴 삼동을 이겨내면 처처에 동백꽃이 활짝 피고 복사꽃 망울지고 산빛도 물빛도 고와짐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영리한 토끼는 세 개의 굴을 파놓아 재난을 피한다는 교토삼굴(狡兎三窟)의 지혜와 노력으로 불황의 삼동을 극복해 나가길 서원합니다.

“장기기증은 최고 자비인 동시에 부처님이 강조하신 동체대비의 가장 헌신적인 실천행입니다”





일면 스님은 각종 행사에 참석, 직접 희망등록을 권선한다.



남산 일대에서 열리는 희망걷기대회를 통해 생명나눔의 가치를 알린다.



문화를 통해 생명나눔 가치를 알리기 위해 열리는 산사음악회서는 기금전달도 진행된다.



매년 겨울, 따뜻한 정나누기를 통해 소외이웃에 이불과 먹거리 등을 전달한다.

국립경주博 '신라불교'로 불교조각실 새단장

12월 12일부터 불교조각실 개편 전시

백률사 금동약사여래 등 70여 점 전시

유물과 함께 다섯 편의 영상도 상영해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남산 장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 신라 7세기, 보물.

이차돈 순교비, 통일신라 817년(또는 818년).

국립경주박물관(관장 함순섭)은 12월 12일부터 신라 불교조각을 주제로 한 새로운 전시실을 선보인다. 이번에 신라미술관 1층에 새로 마련한 불교조각실은 백률사 금동약사여래 등 신라 불교미술을 대표하는 불교조각 57건 70점(국보 1건, 보물 2건)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실은 작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색채와 장식을 최소화한 공간 연출과 노출 전시로 조각상이 지닌 조형성과 에너지를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했다. 또한 지진에 대비한 면진 받침대 설치, 전면 저반사 유리 도입으로 문화재의 안전과 함께 최적화된 관람환경을 제공한다.

천년의 신라 역사를 지켜온 다양한 불교조각을 관람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역사, 전설, 정토라는 개념 위에 불교조각의 아름다움과 시각적 다채로움을 선보인다.

총 3부로 구성된 전시는 각각의 전시에서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지킨다는 믿음, 신라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와 위안을 주고 전설이 된 부처와 보살 이야기, 불교적 이상세계인 정토가 전하는 희망과 위안의 메시지를 전한다.

전시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이차돈 순교비를 만난다. 신라가 불교를 공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차돈의 행적을 문자와 이미지로 기록한 비석이다.

제1부 '신장(神將), 신라와 불법(佛法)을 보호하다' 에서는 불교가 나라를 지켜준다는 신라 사람들의 믿음을 신장상이라는 유형의 조각을 통해 보여준다. 금강역사, 사천왕, 팔부중 등 다양한 신장상이 보여주는 강렬한 표정과 근육질의 몸, 역동적 자세는 불국토 신라를 수호하는 그들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석굴암에서 발견된 금강역사상 단편(얼굴, 팔, 손)과 천불소탑(千佛小塔)도 함께 선보인다.

제2부 '전설이 된 신라의 부처와 보살' 에서는 〈삼국유사〉에 전하는 부처와 보살이 등장하는 설화를 배경으로 신라의 불 · 보살상을 소개한다. 장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 인왕동 출토 석조불좌상, 경주 남산 용장곡 출토 불두 등이 소개된다. 낭산 출토 석조약사여래좌상과 석조십일면관음보살상, 읍성 출토 석조여래입상 등에서는 동아시아에서 유행한 국제양식을 바탕으로 전개된 통일신라 불상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아기부처' 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장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은 별도 공간에 전시함으로써 감상의 집중도를 높였다.

제3부 '약사여래의 정토' 는 팔각 평면에 돔 천장을 올린 성소와 같은 공간을 조성하여 백률사 금동약사여래입상을 단독 전시했다. 백률사 불상은 180cm에 가까운 크기가 인상적이며 조형적 완성도가 뛰어나 신라 불교조각을 대표하는 명품으로 꼽힌다. 깨달음과 더불어 청정한 유리광세계를 상징하는 약사여래의 아름다운 모습은 신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의 대중에게도 위안과 안식을 주기에 충분하는 평가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시품을 다각도에서 바라봄으로써 조각의 입체성을 부각하는 데 힘썼다. 기존의 정면 위주의 배치 방식에서 벗어나 작품 주변에 충분한 공간을 두어 360도 감상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자유로운 관람 동선으로 관람객들이 조각 사이를 거닐며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했다. 백률사 금동약사여래입상 역시 전면에서 수준 높은 조각과 주조기술을 자세히 볼 수 있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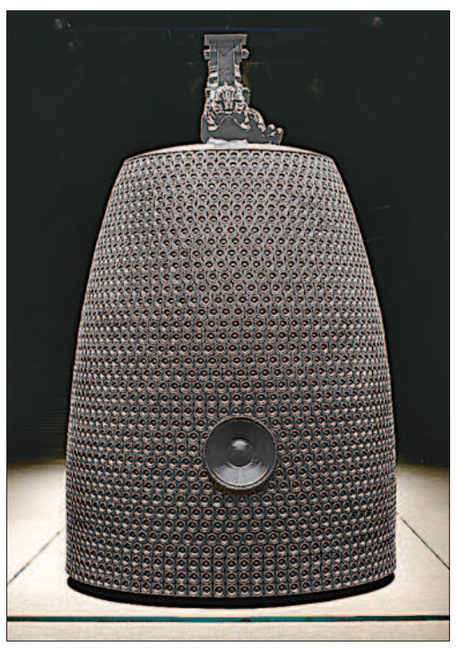
이번 전시실에는 유물과 함께 다섯 편의 영상을 상영한다. 도입부 이차돈의 순교에는 디지털 맵핑영상 '이차돈-꽃비 내리는 길' 을 20분마다 상영하여 불교 공인의 계기가 된 역사를 한 층 더 입체적으로 전달한다.

제1부에서는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든 신장상의 다양한 이미지를 담은 영상 '돌과 빛으로' 를 상영한다. 또한 석굴암 사진을 활용한 영상을 상영함으로써 석굴암 조각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제2부에서 〈삼국유사〉에 전하는 불 · 보살에 대한 이야기를 독특한 미감으로 표현한 일러스트 영상 '불국(佛國)에 닿은 신라인의 삶과 꿈' 을 상영한다. 더불어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불상군, 신선암 마애불, 배동 삼존불 등 경주 지역의 불상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고 있으면 마치 경주 곳곳을 답사하고 있는 듯하다.

전시실 로비에는 불교조각실의 대표 전시품인 백률사 금동약사여래입상과 장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의 축소 모형을 점자 설명문과 함께 전시하고 있어 관람객은 전시품을 직접 만져보고 느낄 수 있다.

이번 개편 전시는 2018년부터 국립경주박물관이 진행해온 전시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서 관람 만족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함순섭 국립경주박물관장은 "마치 숲속을 걸어가듯 신라 불교조각 사이를 누비며 신라 불교조각의 힘차고 온화하고 아름다운 미감을 맘껏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전시 공간"이라고 소개했다.

시대의 소리 들려주는 스피커에밀레종



한원석 – 성덕대왕신종.

한원석 초대전 '無心–BLACK Silhouette'

서울 금호알베르 12월 17부터 31일까지

버려진 스피커 3088개 모아 6176번 납땜

높이 3.7m 폭 2.3m 성덕대왕신종 선보여

설치미술가이자 건축가인 한원석이 성덕대왕신종(에밀레종, 국보 제29호)을 재현한 작품을 선보인다. 한 작가는 12월 17일부터 31일까지 서울 금호알베르에서 한원석 초대전 '無心-BLACK Silhouette' 을 개최한다.

한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버려진 스피커 3088개를 모아 6176번의 납땜을 통해 완성한 높이 3.7m, 폭 2.3m의 성덕대왕신종을 선보인다. 한 작가는 지난 2월 경주엑스포공원 엑스포문화센터에서 같은 모습의 황금색 성덕대왕신종을 전시한 바 있다.

이번엔 'BLACK' 이다. 어떠한 채색도 없는 스피커 본래의 모습으로 성덕대왕신종을 재현했다. '무심(無心)' 은 마음을 비워냈을 때 보이는 것들의 표현으로, 이것이 곧 '블랙 실루엣' 이며 내려놓고 본질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종 안쪽에는 모든 스피커들이 서로 다른 각각의 소리를 낼 수 있게 80개의 앰프를 설치했다. 각각의 앰프가 서로 다른 음원을 재생하며, 이를 하나의 채널믹서가 컨트롤한다. 나-너-우리의 소리를 더한 합창, 개개인의 소리는 하나의 메아리가 되어 큰 실루엣을 만든다.

이번 전시의 작품은 '보고 듣는'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깨달음 속에서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한다. 작가는 인간 심성에 내재해 있는 '빛과 그림자' 를 주제로 선택했다. 한 작가의 심연에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인간의 거룩함과 본질을 발견할 수 있다는 깨달음의 사유가 있다. 정형을 비정형화하고 있는 한 작가의 작품은 인간적이며 솔직한 감성들 사이에서만 예술의 본질을 보여줄 수 있다는 깨달음의 표현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예술은 인간의 힘겨움을 줄이고 희망을 보게 한다.

박재완 기자

불복장 의복 복장물, 현대 공예로 재현되다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대통령상 김명자 작가 '불복장'

복장물 해인사 요선철릭 등

모티브 삼아 현대적 재현해



대통령상 김명자 작가의 불복장 중 요선철릭.

불복장 복장물로 발견된 고려시대 의복인 해인사 요선철릭과 문수사 답호가 현대 공예로 다시 태어났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이경훈)과 (사)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이사장 박종군)는 12월 15일부터 21일까지 '제47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수상작 전시회' 를 서울 강남구 소재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전시관 '결' · '올' 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승공예대전에는 전통공예 12개 분과에서 총 311작품이 접수됐으며, 1차 심사와 대국민 인터넷 공람, 전문가 현장실사, 2차 심사를 거쳐 대통령상을 비롯한 7개의 본상 수상자가 결정됐다. 심사결과 대통령상에는 김명자 작가의 '불복장(문수사 답호, 해인사 요선철릭)' 이 선정됐다. 해당 작품은 합천 해인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유물 요선철릭(국보)과 서산 문수사 금동여래좌상 복장유물 답호(보물)를 모티브로 해 창작됐다.

복장유물인 해인사 요선철릭과 문수사 답호는 현재 남아있는 대표적인 고려시대 의복으로 당시 복식사를 알게 해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심사위원회는 "정교하고 뛰어난 바느질 솜씨로 제작된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전승 기술의 정수를 보여준다"고 높게 평가했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의 미래를 리드하는 동방불교대학이 새로운 인재를 기다립니다.

동방불교대학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 공고

Ⅰ. 모집요강

1. 본교는 본 종단의 종법(교육법 제19조/22조)이 정한 기본교육기관으로서 출가득도자의 의무교육기관이다.
2. 본 종단의 합동득도 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승적취적 및 법계 등 각종 자격고시 응시자격을 부여받는다.
3.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적할 승려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한다.
4. 범패학과 신입생은 매년 1학년 입학을 원칙으로 한다.(편입학 불가)
5. 본교가 개설하고 있는 모든 학과 공히 출가자(사미·사미니 포함)와 재가자 모두 응시 가능하다.
6. 본교는 한국불교태고종이 설립한 종도양성 의무교육기관으로서 정부당국의 인가여부와 무관하다.

Ⅱ. 모집인원 및 편제

학 과	모집인원	편 제	비 고
불교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범패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 접수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Ⅲ. 전형일정

구 분	날 짜	장 소
원서교부 및 접수	2022. 12. 26(월) ~ 2023. 02. 10(금)	· 총무원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 인터넷 교부. 접수 :www.dongbang.org
서류심사 결과 및 합격자 발표	2023. 02. 17 (금)	·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공고 ※입학식 및 학사일정 추후 공지

*입학전형의 서류심사는 학사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Ⅳ. 지원자격

◎ 본교 지원자는 공히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1. 본 종단의 합동득도 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로서 교육이수 의무대상자
2.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적한 승려로서 교육이수 의무대상자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불교교학·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
4. 본 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불교교학·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

♣ 특전: 본종 승려가 동방불교대학 졸업 시 선덕 법계 품수

Ⅴ.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학 과	제출서류	접수방법
공 통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필수)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필수) 3. 기본증명서 1부(필수) 4. 사진: 반명함판 2매(필수) (득도수계자는 가사·장삼 수한 모습) 5.수계증 사본 1부(해당자) 6. 승적증명서 1부(해당자) 7. 종단간부 추천서 1부(해당자)	1.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직접 방문 및 이메일(dongbang2030@naver.com), 우편 접수 ※ 문의 :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T. 02-745-2030, 010-3089-9983

Ⅵ. 교육비

■ 전형료 : 5 만원
■ 입학성금 : 20 만원
■ 등록성금 : 학기당 70 만원 농협 301-0212-6468-11 예금주/한국불교태고종 동방대불원

▣ 입학문의

한국불교태고종총무원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 www.dongbang.org
우)0306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사간동112)
TEL: 02-745-2030, 010-3089-9983,
FAX: 02-733-0728

현대불교 선정 10대 뉴스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 마무리되고 있다. 올 한해 불교계가 주목한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봤다.

정리=신성민 · 임은호 기자



조계종, 천태종, 관음종 각 종단 총무원장 선출

불교계 여러종단에서 새로운 수장이 탄생했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0월 5일 취임했다. 종단 개혁 이후 단일 추보 추대에 따른 첫 총무원장이다. 진우 스님은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취임 법회에서 한국불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오직 부처님 법대로 살며 중생의 아픔을 보듬고 세상의 벗이 돼 불교중흥의 새 역사를 열어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은 4월 9일 단양 구인사서 취임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무원 스님은 임기 4년 동안 △찾아가는 불교문화 활성화 △비구 · 비구니 스님 위상 강화 △효율적인 종무행정을 위한 재가불자 종무 참여 확대와 전문성 제고 등을 약속했다.

관음종 제11대 총무원장에는 법명 스님이 7월 14일 취임했으며, 같은 날 관음종 前 총무원장 홍파 대종사는 제9세 종정으로 추대됐다.



국내외 재난에 불자 모연 십시일반 동체대비 앞장

올 한해 국내외를 불문하고 안타까운 사건사고가 줄을 이었다. 불교계는 대중의 아픔을 보살피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에 나섰다.

3월 초 경북 울진과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지역주민들을 위로하고 복구를 돕기 위한 불자들의 십시일반 보시행이 줄을 이었다. 이어진 중부지방 집중호우에도 불교계는 수해민들에게 구호물품을 전달하며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 불교계를 넘어 대사회적으로도 큰 감동을 줬다.

불교계의 동체대비는 국외까지 이어졌다. 국가부도로 위기를 겪고 있는 스리랑카 국민들을 돕기 위해 캠페인을 펼치고, 필수의약품과 식료품을 꾸준히 지원했다. 또 전쟁 발발에 따른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위기 해소를 위한 긴급구호 모금도 활발히 진행됐으며, 평화를 염원하는 기도회도 잇따라 봉행됐다. 조계종과 상월결사는 각각 난민구호기금 20만 달러, 총 40만 달러를 전달했다.



잇단 종교편향에 불교계 적극 대응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각종 종교편향 사례들이 줄을 이었다. 가톨릭 성지화 사업으로 불거진 주어사지 문제와 국공립 및 시립합창단 편향, JTBC드라마 '인사이더'의 불교폄훼, 신안군 천사섬 사업 논란, 법계도 도용 등 올 한해 사회 전반에서 종교 편향 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한 감시와 개선 기능을 더욱 강화하려는 불교계 움직임이 커져만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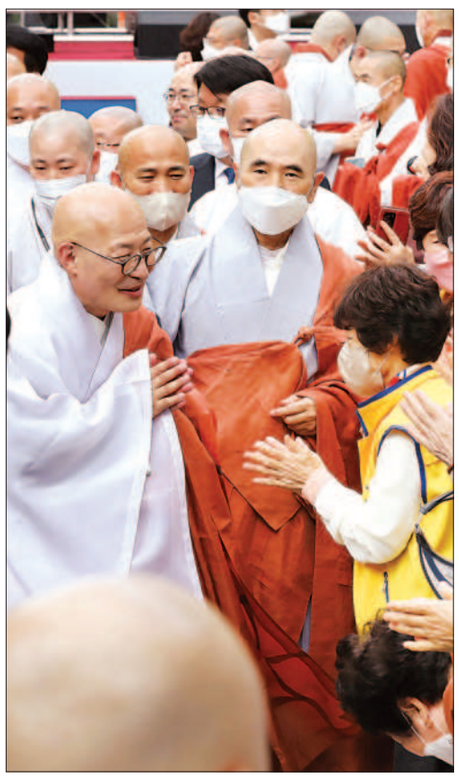
이에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종교차별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종교 침해와 편향 사례를 수시로 수집, 사안별 대응 조직을 꾸렸다. 조계종은 교육과 연구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여, 종교평화를 구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각종 교육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기존 연구사업 자료를 활용한 콘텐츠도 제작한다는 방침이다.

연등회 3년 만에 재개 10만 연등 밤하늘 밝혀

부처님오신날을 찬탄하는 마음들이 담긴 연등이 서울 밤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4월 30일 서울 동대문에서 조계사까지 진행된 연등회에는 10만 연등이 밤하늘을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올해는 연등회가 2020년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무대였다. 거리마다 행렬을 기다리는 가득 찬 시민들의 모습에, 연등회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축제임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3년 만에 선보인 연등회이기에 장엄등 행렬을 따르는 참가자들의 얼굴은 환희로 빛났고 이를 반기는 시민들의 환호성은 다시 돌아온 일상을 실감케 했다. 봉축 메시지인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를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사부대중 원력으로 분황사 · 광제사 건립

조계종 36대 총무원 집행부의 핵심사업인 백만원력결집 불사 가운데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와 세종 광제사가 사부대중 원력으로 문을 열었다.

조계종은 5월 21일 인도 부다가야에서 분황사 낙성식을 봉행했다. 부처님 깨달음 성지 인도 부다가야에 한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한 분황사는 조계종이 종단 차원에서 인도 부다가야에 건립한 첫 사찰이다. 수행관, 도서관과 식당이 있는 다목적 건물, 지역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를 갖췄다.

8월 9일 도심 포교 중점 도량의 힘찬 시작을 알린 세종 광제사와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은 행정수도이며 정치 · 사회 및 지리적 중요도시인 세종시에 신도시 포교를 위한 거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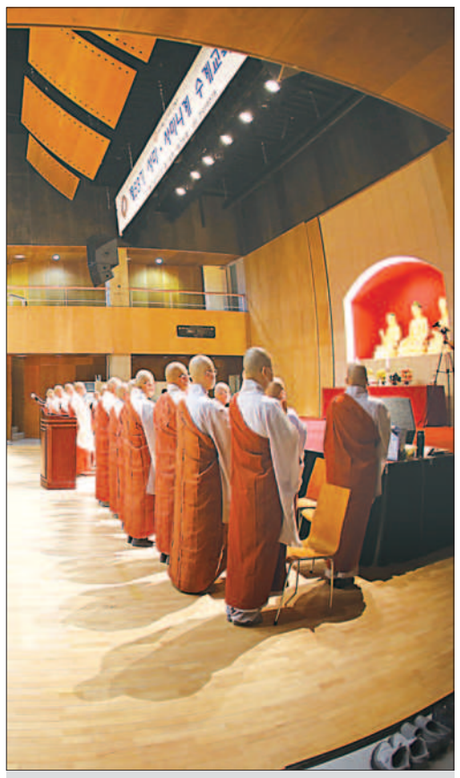


세계 석학들 한국으로 국제학술대회 잇달아

2022년에는 굵직한 국제학술대회들이 잇달아 열리며 세계 석학들이 한국을 찾았다. 세계불교학대회가 8월 15~19일 서울대 일원에서 열렸다. 국내외 불교석학 250여 명이 참석해 불교철학부터 미술사를 비롯해 수행 · 명상, 사회문제 등 폭넓은 주제의 발표들이 이뤄졌다.

8월 22~26일 동국대에서는 제6차 세계불교인식논리학회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20여 개국에서 50여명 발표자가 연구 성과를 공유 · 논의했다.

대행 선사 열반 10주기를 맞아 '세계 비구니 승가'와 '공생의 삶'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가 잇달아 열리기도 했다. 한마음과학원은 9월 23~25일 '뉴노멀 시대, 지구촌 공생의 삶: 마음, 과학, 종교'를 주제로 '2022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한마음선원 대행선연구원은 6월 17~18일 '세계 비구니 승가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묘공당 대행 선사 열반 10주기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동국대, 대학평가 2년 연속 9위 달성

조계종립 동국대가 2022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9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역대 최고 순위 9위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으로 9위를 기록하며 명실상부 톱10 대학으로 기반을 다졌다.

특히 학생교육과 교수연구의 성장이 눈에 띈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한 'Energize Dongguk'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중심 대학으로 거듭난 동국대는 대학 본연의 가치인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는 물론 전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대학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값진 결실을 맺고 있다. 2022년 11월 입금액 기준으로 지난해 역대 최고 연구비를 넘어선 870.8억을 달성하고 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연구비 1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국대 측은 "제2건학을 위한 건학위원회 출범을 통해 종단과 법인, 학교가 힘을 모으고 있는 만큼 현 순위에 만족하지 않고 쉼없이 나아가 톱5를 달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템플스테이 20주년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

2002년 운영을 시작한 템플스테이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2002년 33개 사찰에서 시작, 현재 전국 143개 사찰에서 운영될 정도로 템플스테이는 명실상부한 한국전통문화 관광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년 동안 600만 명의 내외국인이 템플스테이를 찾았고, 브랜드 인지도와 종합 만족도는 매년 상승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템플스테이가 △한국문화 세계화 △국민행복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혁신 가치 창출 등의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앞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시장 경쟁력 확보와 운영인력 전문화, MZ세대와 외국인들을 위한 특화 마케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출가자 급감 대책 마련 시급

출가자 감소 문제는 이젠 해묵은 과제가 됐다. 그러나 그 심각성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조계종은 올해 상반기 26명, 하반기 35명이 사미 · 사미니계를 수지해 1년 출가자가 61명에 그쳤다. 이제는 '출가 절벽 시대'가 도래했음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군승 요원 수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군종사관후보생의 경우 2018년 이후 응시자가 없어 출가 이후 군승이 되는 군승요원에 의존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조계종 중앙종회는 출가특별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 출가자가 군승으로 의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계종 출가 정책을 담당하는 조계종 교육원의 경우 제9대 원장으로 혜일 스님이 취임하며 전방위적인 출가 종책 추진을 예고해 눈길을 끈다.



전국여성불자회 창립 지역 · 분야 저변 넓혀

6월 23일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를 창립했다. 김의정 초대회장을 필두로 발기인으로만 1080명의 발기인을 모집됐다.

전국여성불자회는 조계종 여성신도 조직으로, 각 지역과 직능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을 회원으로 한다. 특히 종단 포교단체 중에서도 처음으로 전국 교구별 포교조직을 구성,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을 지도법사단으로 흡수하는 등 지역조직 활성화를 위한 확고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종단과 전국 교구본사 전폭적인 지원을 토대로, 교구별 · 지역별 세분화된 신도조직을 구성해 나가는 등 여성불자 네트워크 확대를 예고하고 있어 앞으로 종단을 대표하는 포교단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범어사, '지유 대종사 선설법회' 연다

〈禪說〉

12월 27일~31일 범어사 보제루

함허득통의 금강경 서문 禪說
원융화합 일심수행 당부의 장
참석 희망자 누구나 참석가능
기초 수행금 지원, 신청 받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범어사가 12월 27일부터 31일 보제루에서 '방장 지유대종사의 함허득통선사의 금강경 서문 선설(禪說) 법회'를 봉행한다. 사진은 방장 지유대종사의 설법 모습.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보운)가 12월 27일부터 31일 보제루에서 '방장 지유대종사의 함허득통선사의 금강경 서문 선설(禪說)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특별법회는 부처님이 깨달은 날을 기념하는 성도재일을 맞아 수행 정진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5일간 매일 오후 2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사부대중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범어사는 2016년 10월 1338주년 개산대재 행사의 일환으로 금강경 선설법회를 봉행한 바 있다. 이후 6년 만에 재개되는 이번 법회는 범어사 대중의 원융화합과 일심수행에 전념할 것을 발원하고 독려하는 지유 대종사의 발원으로 마련됐다.

'함허 득통 선사의 금강경 서문'은 함허 득통 스님(1376~1433)이 〈금강경오가해〉를 풀어 적은 〈금강경오가해설의(金剛經五家解說誼)〉의 서문이다. 〈금강경오가해설의〉는 〈금강경〉에 대해 규봉 종밀, 육조 혜능, 부대사, 야부 도천, 예장 종경 등 오가(五家)가 붙인 글 '금강경오가해'를 함허 득통 스님이 해설한 주석서이다. 1417년에 함허 득통 스님이 탈자, 중복, 오자 등을 바로잡고 정확한 교정본을 만들었으며, 이 책으로 인해 〈금강경〉이 우리나라에 유통되기 시작했다. 〈금강경오가해설의(金剛經五家解說誼)〉의 서문은 함허 득통 스님이 설명하는 선의 세계를 함축하고 있다.

범어사는 이번 특강과 관련해 사부대중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범어사 포교국장 눌은 스님은 "방장 스님이 이번 법회를 직접 제안해주셨다"며 "그동안 방장 스님의 법문에 목말라하는 불자들이 많았던 만큼 선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수행을 실천하는 정진의 장이 될 것이다. 새해를 수행 정진으로 맞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지 보운 스님은 "이 시대 불자들에게 겨울 동안거와 성도일 용맹정진을 새롭게 적용하고 정진하도록 돕는 법석"이라며 "방장 스님의 명쾌한 선 법문으로 〈금강경〉에서 설명하는 깨달음의 요체를 발견하고, 함허 득통 선사의 가르침과 경전의 핵심을 체득해 재발심과 점검의 기회를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유 대종사는 동산 스님을 은사로 1949년 범어사에서 사미계를 수지했으며, 1950년 해인사에서 구족계를 수지 후 제방 선원에서 수행 정진했다. 1975년부터 1977년까지 범어사 주지였으며, 1991년 범어사 조실로 추대됐다. 2013년 5월 21일 산중총회에서 금정총림 방장으로 추대되었으며, 현재 범어사 원효암에 주석하고 있다. 지유 대종사는 현대 한국을 대표하는 선지식으로 알려져 있으며, 법회마다 즉설법문으로 대중에게 선의 요체를 전하고 있다.

한편, 범어사는 재적 비구와 비구니스님에게 기초수행금을 지원한다. 기초수행금은 범어사 소속 수말사에 책정된 특별분담금을 기금으로 진행되며 특별분담금 지정사찰은 마하사, 법륜사, 선암사, 성주사, 운수사, 은하사, 장안사 등이다.

신청 자격 및 지급 대상자는 비구·비구니계를 수지한 범어사 재적승으로 결계 및 포살에 관한 종단 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 사찰(공찰, 사설, 포교원, 산내 암자)의 주지(대표, 감원)가 아닌 스님이며, 사찰과 종단, 기관, 시설의 소임자는 월 보시 100만 원 이하를 받는 스님에 한한다.

지급 시기는 2023년 1월부터이며 매월 15일 지급한다. 지급액은 매월 20만 원이며 신청 대상자의 인원에 따라 지급액 변동이 있을 수 있다. 1차 신청기간은 12월 15일부터 다음해 1월 9일까지이며 1차 신청 후에는 상시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서류는 범어사 홈페이지에서 기초수행지원금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 후 통장 사본과 함께 범어사 종무소 및 이메일(beomeosa@daum.net)로 접수하면 된다.

'수행자 사표' 무애 대종사 영결식 엄수

12월 11일 통도사 송수정서 영결식



통도사 안양암에 주석하며 검소함으로 수행자의 모범을 보였던 무애당 무애 대종사의 영결식이 12월 8일 통도사 다비장 앞 송수정에서 엄수됐다. 무애 대종사는 12월 9일 오전 7시 30분 주석처인 통도사 안양암 심우실에서 입적했다. 법납 61년, 세수 81세다.

영결식에는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 주지 현문 스님, 前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을 비롯해 통도사 경봉문도회스님 및 사부대중이 참석해 무애 스님의 마지막을 함께했다.

영결식은 행장소개, 영결법요, 헌다·헌향이 이어졌으며 장의위원장이자 통도사 주지인 현문 스님의 추모사, 前 조계종고시위원장 지안 스님의 조사 등으로 진행됐다.

현문 스님은 "통도사 도량과 무풍한 송길을 거니시며 언제나 총림의 대중이고자 하셨던 스님께서 영축산 영산회상의 부처님 품에서 홀연 열반에 드셨다"며 "대종사의 이별을 고한 저희들의 가슴은 대지를 비추는 환한 산달처럼 텅 비어가고 있다. 스님은 매일 하루도 거름 없이 안양암에서 산문에 이르는 길을 두량하시며 본분종사의 일상사를 있는 그대로 보이셨다"고 추모했다.

지안 스님은 "스님은 조용한 성품에 검소하게 사셨고, 남에게 폐를 끼치는 일을 삼갔으며, 공사가 분명해 승가의 위신을 올곧게 세우고 사셨다"며 "영원한 부처님의 세계를 동경하며 살아온 세월이 깊어서, 사바에서 맺었던 인연이 부처님 나라로 돌아가는 환지본처의 길이 되리라 생각된다. 본원의 원력이 펼쳐지는 대로 원적의 안락을 누리다가 속환사바하시라"고 말했다.

종현 스님은 "무애 대종사는 오랜 시간 통도사에 머물며 평생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사시고 수행정진하신 스님"이라며 "자애롭고 올곧은 스님의 뒤를 이어 우리 후학들은 더욱 정진수행 할 것이다. 오늘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도를 대표한 종현 스님의 인사말 후 사부대중은 법구를 연화대로 이운했다. 연화대에 도착한 스님의 법구는 대중들의 애도와 장엄 염불 속에 사라졌다. 검소한 수행자의 사표로 통도사 대중의 존경을 받은 무애 대종사는 사부대중의 배웅 속에 적요의 세계로 떠났다.

무애 대종사의 초재는 12월 15일 안양암에서 매주 목요일 오전10시, 6재까지 거행됐다. 2재는 동지날로 인해 12월 21일 봉행한다. 49재는 다음해 1월 26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오전 9시 20분에 봉행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통도사 반야암 해운대 포교원 개원

12월 13일 개원법회 봉행



마산과 경남 지역 경전 공부의 전당이었던 반야불교학당이 통도사 반야암 해운대 포교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부산 해운대에 새롭게 자리 잡았다.

새롭게 문을 연 통도사 반야암 해운대 포교원(원장 신경, 이하 반야암 포교원)은 12월 13일 부산 해운대 포교원에서 개원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그동안 반야불교학당을 이끌어왔던 지안 대종사는 "법당은 무엇보다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데 의미가 있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며, 가르침을 바르게 알아야 바른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오늘 개원을 통해 공부에 대한 발심을 내고 더욱 성장하길 바라며 포교원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안 대종사는 일반 불자의 경전 공부가 전무했던 1978년 당시 부산 남부민동 대법사에서 재가자를 대상으로 경전 강의를 시작했다. 불교경전을 토대로 미신과 기복에 치우치지 않도록 제도하는 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불교의 지성화와 생활화를 위해 노력했다. 이후 1991년부터 1998년까지 마산 정법사 주지 당시 〈대승기신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가교육에 앞장서왔다. 이후 경남 지역 불자들은 동참금을 마련해 마산 삼원빌딩에 개원하고 30여 년 동안 경전공부를 이어왔다. 그동안 지안 대종사는 〈육조단경〉, 〈임제록〉 등 수 많은 경전을 강설해왔다. 지안 대종사는 1970년 통도사에서 벽안스님을 은사로, 월하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비구계를 받았고 통도사 강원을 졸업했다. 운허 스님의 강맥을 이었으며, 통도사 불교전문강원 강주, 조계종 고시위원, 조계종교육원 역경위원장, 조계종 종립 승가대학원 원장, 조계종 고시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통도사 반야암 감원, 사단법인 반야불교문화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다. 반야암 해운대 포교원은 마산 삼원빌딩 재건축으로 인해 이전하게 됐다.

반야암 포교원 경전 강독은 3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장(書狀)〉 강의를 시작으로 열린다. 강사는 지안 대종사이다.

또 사찰 기본 예절교육과 불교의식·기초교리는 3월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와 7시 30분에 각각 진행되며 강사는 원장 신경 스님이다. 신행을 위한 인등 법회는 2월부터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되며, 지안 대종사가 법문한다. 신중기도는 매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051)747-0180.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쿠무다, 개원 9주년·명상문화센터 1주년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KUmuda, 이사장 주석)가 '개원 9주년 및 명상문화센터 신축개관 1주년'을 기념하는 법회 및 음악회를 12월 9일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쿠무다 명상문화센터에서 봉행했다. 행사에는 정산 스님(마하사 주지), 심산 스님(홍법사 주지), 목종 스님(대광명사 주지), 석산 스님(안국선원 주지), 만초 스님(전법도량 의장), 원돈 스님(시흥 대각사 주지), 정관 스님(원오사 주지), 묘련 스님(법계사 주지), 최원심(원불교 교무), 신명환 대운사 신도회장, 장유정 미소원 이사장 등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이사장 주석 스님은 기념사에서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로서 문화전법이라는 이 이름으로 부처님 팔만사천법문의 한 자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원력으로 삼았다. 그 원력은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었다"며 "지금 이 마음 그대로 부처님의 제자로서 시대가 원하는 것, 그리고 현대적인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하고 우리 수행자가, 불교가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살아 갈 것이다. 앞으로도 더욱더 정진해 내년 10주년에는 또 다시 어른 스님들과 내외귀빈 여러분들을 모시고 또 한 번 자랑할 만한 일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쿠무다 명상문화센터 이사이자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과 최대경 이사의 환영사 및 승·재가 내빈들의 기념 축사도 이어졌다. 한편, 쿠무다는 오는 12월 26일 오후 7시에는 서울 종로 JCC 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명경문화재단 설립 기념 및 조윤성 재즈피아니스트 명상음반 제작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하림 스님, 시민 위한 명상 특강



CM명상상담센터를 이끌고 있는 (재)영도문화복지재단 이사장 하림 스님의 명상 특강이 12월 10일 동명대학교 경영관 강당에서 열렸다.

특강은 '시민과 함께하는 치유 특강-명상을 통해 세상을 보자'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전호환 동명대학교 총장, 박재현 학과장 및 동명대학교 선명상치유학과 학생들이 참석했다.

이날 진행된 특강은 지식전달형 강의가 아닌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사이코드라마 형식으로 진행해 학생들의 이해력과 관심을 높였다.

하림 스님은 "우리는 예쁜 꽃을 보는 순간에 기쁘고 계속 보고 싶어 하고, 싫은 것을 보면 불뚝이처럼 싫어하는 의식이 자동으로 생긴다. 그런데 대상이 사라져도 마음은 계속 남아있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늘 마음하고 싸우고 있다"며 "마음을 떨어져서 자세히 보아야 한다. 그러면 익숙하게 되고 영향을 적게 받게 된다. 마음치유는 그냥 될 수 없고 오감명상, 호흡명상, 걷기명상 등을 통한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호환 총장은 "지금 세상은 전쟁과 경기침체로 모두가 힘들다. 이럴 때일수록 책을 읽고 명상을 하며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울산광역시불교신도회 송년의 밤 개최



울산광역시신도회(회장 이병호)가 12월 13일 울산 문수컨벤션 다이너스티홀에서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올 한 해 지역불교발전과 전법에 공로가 큰 불자들에 대한 시상식에서는 통도사 방장 스님상을 불교여성회 김미선이 수상했다. 통도사 주지스님상은 불교신도회 강한설, 김용석, 조계종 사암연합회장상은 불교신도회 김정미, 정토사 정연숙 합창단장이 수상했다.

또 울산시장상은 불교신도회 박정화, 울산시의회 의장상은 불교신도회 배상철, 사암연합회 합창단 이경숙, 지정정사 합창단 남순일, 불교여성회 김수화, 정토사 합창단 지휘자 박준홍이 수상했다.

이 날 송년의 밤 행사에는 이병호 울산불교연합신도회장, 정토사 덕진 스님, 월봉사 보화 스님, 정관암 대활 스님, 해남사 혜원 스님, 성불사 혜안 스님, 벽선암 혜진 스님, 여여선원 효암 스님, 내원암 진응 스님, 법륜사 남수 스님, 지장정사 현우 스님, 이영수 신도회수석부회장, 박순란 울산불교교육대학동문회 회장, 조미강 울산불교 선다회장, 각 사찰 합창단장 및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신뇨엔, 해외불교문화 탐방 장학금 지원

동명대에 1000만 원 지원



재단법인 신뇨엔(상임이사 정경)이 12월 17일 부산정사 법당에서 '동명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및 불교동아리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장학금은 동명대 불교동아리 학생들과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학생들의 해외불교문화탐방 지원금으로 회향된다. 장학금은 총 1000만 원이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마쯔나가 아쯔시 신뇨엔 국제원장, 신뇨엔 상임이사 정경 국원, 신뇨엔 부산정사 영준 국원, 장재진 동명대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장과 학생 20여 명이 동참했다.

마쯔나가 아쯔시 신뇨엔 국제원장은 "신뇨엔 개조님은 항상 청년들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 학생들이 성장해 사회를 위해 공헌하고 필요한 사람이 되어 준다면 많은 사람들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울산불교교육대학총동문회, 음악회 개최



울산지역의 대표적인 불교교육도량인 울산불교교육대학(학장 진응)과 총동문회(회장 박순란)가 12월 9일 울산예술문화회관에서 제21회 함께해요 우리! 발고여락(拔苦與樂) 무루(無漏) 음악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법요식과 2부 공연으로 진행됐다.

울산불교교육대학 총동문회는 1994년 울산불교교육대학동문회를 창립 후 일일찻집 자비성금 학생 10명에게 200만 원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학생 455명에게 자비성금 1억 3570만 원을 전달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마산 정법사, 삼귀의·오계 수계법회 봉행



통도사 마산중앙포교당 정법사(주지 광우)가 12월 10일 정법사 2층 만불보전에서 삼귀의계, 오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전계사 덕문 스님은 "사람은 계를 잘 지키는 사람과 계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뉜다" 며 "보시를 하면 많은 공덕이 따르지만 부처님께 보시하면 무량공덕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날 수계법회에는 정법사 주지 광우 스님, 전계아사리 덕문 스님, 교수아사리 정문 스님과 송정 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 안미옥 신도회장, 신도 및 수계제자들이 참석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인과가 역연하니 참선공부 잘해라”

혜암 스님 열반21주기 추모다례재
문도, 기초수행기금 천만 원 전달

성낙두 경남지사장


12월 10일 해인사에서 열린 혜암당 성관대종사 열반 21주기 추모다례재에서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이 분향 헌다하고 있다.

“공부하다 죽어라” 스님의 평생 법문이 다시 들려온다.

해인사(주지 현응)가 12월 10일 조계종 10대 종정을 역임한 혜암당 성관 대종사 열반 21주기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2001년 12월 31일 아침, 혜암 스님은 여느 때처럼 미소굴에서 의자에 앉아있었다. 의자에 몸을 기댄 평소의 모습이었다. 그것이 스님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2002년 1월 6일 해인사에서 치러진 영결식에서 5만여 사부대중이 스님의 마지막을 함께했다. 스님은 늘 “공부만이 살길이다”고 대중에 일렀다. 스님이 항상 대중에 말한 것은 마음을 찾는 공부만이 살길이라는 것이었다. 평생을 장좌불와와 하루 한 끼만을 먹으며 후학들과 함께 용맹정진했다. 대중은 그런 스님을 두타수행자라고 불렀다. 그리고 입적하기 전까지 신도들과 선방에 앉아 정진한 스님의 모습을 보며 정진불이라고도 불렀다. 스님은 일흔 살까지 대중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지켰고, 한 산중의 방장으로 있던 칠십대 중반일 때도 빠지지 않고 정진했다. 공부하다 죽는 것이 가장 수지맞는 일이라며 죽는 날까지 수행을 멈추지 않았다. 조계종 제10대 종정, 해인사 해인총림 제6대 방장을 지낸 스님은 늘 우리 스스로가 부처임을 확인하는 길을 설했다. 스님은 늘 수좌들에게 목숨 걸고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열린 추모 다례재에는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 주지 현응 스님을 비롯한 해인사 대중스님, 신도회장 및 임원진 등이 참석했다.

추모 다례재에 앞서 문도스님과 대중스님, 제가불자들은 혜암 대종사 부도전을 참배했다. 참석 대중들은 죽비에 맞춰 삼배를 올린 후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석가모니불정근을 하며 부도탑돌이를 했다.

노전 유초 스님의 집전으로 봉행된 추모 다례재는 방장 원각 스님의 분향, 헌다에 이어 문도대표 성법, 무영, 무상, 여연 스님의 분향, 헌다에 이어 종사영반, 무모입정, 육성법어 청취, 세민 스님, 무관 스님, 현응 스님의 헌화, 대중스님 헌화, 행장소개, 문도대표 인사, 공지사항, 회향게의 순으로 진행됐다.

문도대표 성법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항상 인욕정진하라, 자비를 실천하라’ 는 혜암 대종사 의 수행정신을 이어서 열심히 수행정진하겠다”며 “스님의 21주기 추모법회를 맞이하여 참석하신 대중스님들과 사부대중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추모 다례재에 참석한 대중스님들은 2001년 부처님오신날 법어를 낭독했다. 이날 혜암당 성관 대종사 문도회에서는 해인사 기초수행기금으로 1000만 원을 해인사에 전달했다.

혜암당 성관 대종사는 1920년 음력 3월 22일, 전남 장성에서 태어났다. 1946년 합천 해인사에 입산 출가하여 인곡 스님을 은사로, 효봉 스님을 계사로 하여 수계득도하고, ‘성관’ 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1947년 문경 봉암사에서 성철 · 자운 · 우봉 · 보문 · 도우 · 법전 · 일도 스님 등 20여 납자와 더불어 ‘부처님 법대로 살자’ 는 봉암사 결사에 참여했다.

2001년 12월 31일(음력 11월 17일) 해인사 원당암 미소굴에서 문도들을 모아놓고 “인과가 역연하니 참선공부 잘해라”라고 당부한 후 “나의 몸은 본래 없는 것이요, 마음 또한 머물 바 없도다. 무쇠소는 달을 물고 달아나고 돌사자는 소리 높여 부르짖도다”라는 임종게를 남기고 열반에 들었다. 세수 82세이며 법랍 56세이다.

울산 벽선암, 동지 팥죽나누기

새해 행복 · 소원성취 발원하고
문화공연 · 동지팥죽 · 달력 나눠



울산 벽선암(주지 혜진)이 다사다난했던 임인년 한 해를 정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야단법석 제10회 전통놀이문화와 함께하는 동지 팥죽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12월 11일 울산 호계역 광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새해의 행복과 소원을 발원하며 지역민에게 팥죽을 전달했다.

사물 길놀이를 시작으로 국악과 한국무용, 연 만들기, 새알 만들기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이어졌고, 벽선암 신도들은 3000명 분의 동지팥죽과 새해달력 등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기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벽선암 혜진 스님, 야단법석 김은아 대표, 박천동 울산시 북구청장 및 임직원, 전순남 신도회장, 김기원 대외협력단장, 김영란 운영위원, 조희경 북구여성자원봉사회, 란 국악원, 농소2동 적십자회, 한국 춤 사랑회 농이 예술단 등 많은 시민들이 함께했다.

벽선암 혜진 스님은 “매년 연말이 되면 한 해의 계획들을 되돌아보고 감사와 희망, 정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더욱 한마음으로 다짐하고 두루 건강하고 희망의 새해 계묘년이 되길 서원한다”고 말했다.

야단법석 김은아 대표는 “자비의 향기로 이웃과 사회와 세상을 물들이고자 진행하는 팥죽나누기 행사가 10회째를 맞았다”며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액운은 물리고 이웃들의 안녕과 행복이 가득한 희망의 2023년을 맞이하기를 소망하는 자리가 되길” 서원했다.

박천동 북구청장은 “벽선암이 준비한 나눔행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팥죽을 먹고 가정과 직장 어디에나 새해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북구자원여성봉사회 조희경 회장은 “작은 힘이나마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바람으로 동지팥죽 나눔에도 동참하게 됐다” 며 “코로나로 인해 답답한 마음들이 새해에는 희망차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전북불교대학, 전북불교대학인의 밤 개최

임원 · 재학생 · 동문 등 참석
전법 · 봉사대상 임태빈 이기석



사단법인 부처님세상(이사장 백준기) 부설 전북불교대학(학장 이창구)은 12월 10일 전북불교대학 4층 대법당에서 ‘불기2566년 임인년 전북불교대학인의 밤’ 을 개최했다. <사진>

이날 행사는 사단법인 부처님세상 백준기 이사장을 비롯해 전북불교대학 이창구 학장, 김인석 전북불교대학총동문회장, 태기준 전북불교대학전법사 회장, 조강숙 자원봉사단장, 재학생과 동문 학인 등 120여 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1부 송년법회와 2부 만찬 및 축하공연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또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인해 희생된 영가들의 극락왕생과 유가족을 위로하는 발원문을 낭독하는 시간도 가졌다.

법사과 윤수현 학인이 낭독한 발원문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불행하게 생을 마치신 영가께서 생전에 업장을 소멸하고 극락정토 연화대에 왕생하여 정각을 이룰 수 있게 해 달라”고 기원했다. 이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 속에 빠져있는 유족들이 지금의 역경을 이겨내고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기 바란다”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부처님세상 백준기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이 있기까지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로 사찰의 도움을 받는 불교대학들도 어려워하는 가운데에도 안 보이는 곳에서 학사를 청소하고 자원봉사를 해주시는 많은 불자님들이 있어 전북불교대학의 미래가 밝다”고 말했다.

전북불교대학총동문회 김인석 회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로 많은 불교대학이 수업을 중단하고, 휴교하거나 폐교하며 힘들어하는데도 전북불교대학은 동문 여러분의 원력과 희생으로 굳건하게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고 있다”며 “전북불교대학의 미래를 위해 법보시가 최고의 보시임을 알고 불교대학에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창구 학장은 송년사에서 박노해 시인의 시 ‘회향’ 을 낭독하며 “부처가 위대한 건 버리고 떠났기 때문이 아니고 고행했기 때문도 아니고 깨달았기 때문도 아니고 회향했기 때문”이라며 “모든 것을 크게 되돌려 세상을 바꾼 부처님처럼 학인 여러분의 멋진 연꽃을 보여주는 학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임인년 한 해 전북불교대학의 발전을 위해 봉사와 전법에 앞장선 학인들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전법대상은 임태빈(22기) 학인과 한초숙(24기) 학인이 수상했고, 봉사대상은 이기석(29기) 학인과 이영산(31기) 학인이 수상했다. 개교한 1988년부터 지금까지 35년째 전북불교대학에서 활동 중인 1기 김명심 학인에게는 공로상을 수여했다. 또 전북불교대학총동문회가 시상한 자랑스런동문상은 김재선(32기), 신용훈(17기) 학인이 수상했다.

한편 1988년 개교한 전북불교대학은 뜻있는 재가불자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불교전문교육기관으로 지역 재가불자의 교육도량이자 비불자의 포교요람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전북불교대학은 상대적으로 불교세가 열악한 전북지역의 환경 속에서도 35년간 시민강연회, 인문학 특강 등 질 높은 강연과 초청법회, 보살계, 산사수련회, 철학과 문화가 있는 문화재답사 등의 신행활동을 이어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송년행사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 노인복지관(관장 대원)은 연말을 맞아 ‘자원봉사자 · 후원자를 위한 송년행사 및 향상음악회’ 를 개최했다.

12월 9일 복지관 대강당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후원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송년음악회는 야간보호사업 반딧불학교 아동의 우크렐레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우수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감사장 전달, 아동정서발달서비스 향상음악회 등으로 진행됐다.

지역 내 복지사업 증진을 위해 애써준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에 대한 시상에서는 동백꽃예술봉사단 권계순, 선배시민봉사단 송순희, 나누면봉사단 황선호 외 10명, 신용정수산 정선희, 형제농장 김동남 대표 등에 감사장을 전달했다.

2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Happy 클래식 음악교실 ‘향상음악회’ 에서는 어린이들이 1년 동안 갈고 닦은 플룻, 바이올린 등 합주실력을 선보였다.

대원 스님은 “어려운 시기에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함께해주신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화엄사빛고을불교대학 첫 졸업식 개최

첫 졸업생 43명 배출



화엄사의 광주 포교당인 빛고을포교원(주지 연성)은 지난 12월 12일 ‘화엄사빛고을불교대학’ 졸업식을 갖고 43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불교 공부의 첫 해이자, 첫 졸업을 맞은 사찰과 학생들의 남다른 졸업식에는 학장 연성 스님을 비롯해 전병호 신도회장, 이동배 정광고등학교장, 서재현 졸업생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연성 스님은 법문을 통해 “불교대학 첫 졸업식을 갖는 날이어서 행복하다. 오늘 졸업식은 불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날로 큰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삶이 조금 더 행복으로 가는 길,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득 한 길이기를 소원한다”고 격려했다.

화엄사빛고을불교대학은 광주지역 불자를 위해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의 원력으로 지난 3월 6일 개교했다.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 현대화를 위해 진리탐구, 자비실천, 정토구현의 학훈으로 50명의 첫 신입생을 맞아 불교입문, 불교교리, 천수경, 반야심경, 특강, 찬불가 교육, 템플스테이를 2학기에 걸쳐 32강좌를 진행했다.

1기 졸업생을 대표한 서재현 불자는 “라이온스 봉사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앞으로 불교의 봉사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정광고 특별강좌 개최



스님의 특별한 공부비법을 학생들에게 전하는 강연이 열렸다. 불교종립 광주 정광학원(이사장 덕문) 정광고등학교(교장 이동배)는 12월 12일 룸비니강당에서 〈공부하는 힘〉 저자 황농문 교수(서울대)를 초청해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은 정광학원 이사 만당 스님(불갑사 주지)이 황농문 교수의 책 1200권을 학생들에게 기부하면서 진행됐다. 몰입하는 전문가로 알려진 황농문 교수는 스스로 생각을 키우는 몰입학습법을 제시한 책 〈공부하는 힘〉을 통해 ‘자신의 삶에 맞춘, 자신의 삶에 꼭 필요한 공부’ 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준다.

강연에 나선 황농문 교수는 이날 저서에 실린 몰입과 학습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1시간 30분 동안 학생들에게 강의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독거 어르신 10세대에 보일러 등 지원



선운사복지재단(대표이사 경우)과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 노인복지관(관장 대원)은 11월부터 사례관리사업의 일환으로 고창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에게 겨울철 난방을 위한 난방시설 및 난방물품지원사업을 총 90가구에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노후된 환경으로 겨울철 한파가 염려되는 위기 및 독거 어르신 10세대의 보일러를 교체하고 전기온수기를 설치했다.

저소득 어르신 80세대에는 겨울철에 필요한 이불, 토퍼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또 고창군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하여 120만 원 상당의 난방유 지원과 후원업체 사임당푸드(영)의 후원으로 1800만 원 상당의 인절미 선물세트 100박스를 함께 전달했다.

보일러 교체 지원을 받은 성내면의 한 어르신은 “보일러 설치 한 지가 오래 되어서 잦은 고장으로 한겨울에 힘들었는데 새 보일러로 교체해 주셔서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겠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대원 스님은 “찾아가는 복지, 그리고 맞춤 복지를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개발하고, 한시적인 복지가 아닌 함께 만드는 복지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우 스님은 “내년에도 복지사각지대, 특히 위기 및 독거노인가구를 위한 돌봄과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나누우리, 해외 교육환경사업 봉사



(사)나누우리(이사장 만우)가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캄보디아에서 교육환경사업 및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나누우리는 캄보디아 쁘레이롬초등학교와 삼부어초등학교를 방문해 식수정화시설 건립 준공식을 개최하고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이번 구호활동은 경상남도 국제개발협력(ODA)사업으로 선정돼 진행됐으며 지원금 2500만 원과 (사)나누우리에서 마련한 성금 5500만 원, 총 8000만 원 상당의 구호활동 자금을 투자했다. (사)나누우리는 이번 구호활동에서 초등학교에 식수정수시설을 설치했으며, 선풍기 80대, 칠판 20개, 우산 120개, 백미 100포, 슬리퍼 100켤레, 구충제 1000정, 학용품, 체육용품 등을 전달했다.

이사장 만우 스님은 “학생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바란다. 희망과 꿈을 이뤄 큰 일꾼이 되길 바란다”며 “세계일화의 마음으로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구호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고운사 동안거 결계포살법회 · 교구종회



조계종 16교구본사 고운사(주지 등운)는 12월 13일 경내화엄문화템플에서 동안거 결계 포살법회와 제74차 교구종회를 개최했다.

이날 포살법회에는 주지 등운 스님을 비롯해 고운사 본 · 말사 스님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가산불교문화연구원에서 펴낸 〈범망경보살계포살본〉을 중심으로 안거를 점검했다.

포살법회에 이어 진행된 제74차 교구종회에서는 △2023년 교구 예산안 심의의 건 △인도 성지순례의 건 △연말 이웃돕기 성금 모금의 건 △기타 안건 등을 상정해 확정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95



▶한줄요약
아쇼까왕은 즉위 37년 71세로 숨을 거두었다. 임종 전에 잠부띠바 전체를 승가에 보시하겠다는 아쇼까왕의 유언은 삼빠딘이 곧바로 묵살해버렸다. 그런 뒤 삼빠딘은 극적으로 중병을 극복하고 복귀한 늙은 라다굽따 수상의 도움을 받아 마우리아국의 제왕에 올랐고, 잠부띠바의 상속자가 되었다.

아쇼까왕, 최후의 식사마저 보시하다

아쇼까왕 일행이 룸비니를 순례한 몇 년 뒤 아상디밋따가 눈을 감자, 정비는 모두가 예상한 대로 띠쉬아락시따가 차지했다. 꾸날라의 아들 삼빠딘은 분노가 치밀었다. 빠딸리뿌뜨라성을 벗어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싶었다. 차라리 아쇼까왕이 삼보디 뻡팔라나무를 참배하러 갈 때 따라가서 그곳에 정착해 살기를 바랐다. 아쇼까왕은 삼보디 뻡팔라나무를 참배하고자 순례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띠쉬아락시따는 기회가 왔다고 별렀다. 삼보디 뻡팔라나무를 아예 없애버릴 적기라고 생각했다. 띠쉬아락시따는 한밤중에 친위대장을 정비별궁으로 불렀다. 어둠과 짙은 안개 때문에 몇 걸음 앞도 분간할 수 없는 한밤중이었다. 친위대장은 약속 시간보다 더 빨리 정비별궁의 다실에 와 있었다. 띠쉬아락시따는 통금시간을 알리는 망루의 종소리를 들은 뒤 다실로 왔다. 궁녀들이 과일과 짜이를 들고 들어왔다가 곧 나갔다. 띠쉬아락시따가 말했다.

"대장님, 준비는 잘 돼가고 있는가요? 대왕님이 도착하기 전에 뻡팔라나무를 없애버려야 합니다."

"염려 마십시오. 마침 제가 삼보디로 순행을 나갑니다. 아무도 모르게 처리한 뒤 대왕님께 보고하려고 합니다."

"잘 부탁해요. 나는 대왕님께서 나보다 뻡팔라나무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요."

친위대장은 띠쉬아락시따가 어리석고 질투심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에게 돌아올 금은보화를 계산했다. 삼보디의 뻡팔라나무만 없앤다면 띠쉬아락시따가 자신에게 크나큰 보상을 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옥리 마땅가는 주술을 할지 압니다. 마땅가는 옥주가 되려고 하는 야망이 있습니다. 그의 야망을 이용하면 됩니다."

전타기리가는 아쇼까왕이 즉위한 뒤부터 옥주를 맡아왔으므로 물러가는 그의 자리를 욕심내는 옥리들 중에 마땅가도 한 사람이었다.

"제가 말하기보다는 정비님께서 직접 마땅가를 불러 지시하시면 그는 더 분발할 것입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데리고 오세요."

"마땅가를 삼보디 순행군사로 차출한 뒤 보내겠습니다."

다음날부터 친위대장은 삼보디로 순행할 군사를 지원받고, 또 차출해서 강가강 모래밭으로 나가 훈련을 했다. 며칠이 지난 뒤였다. 띠쉬아락시따를 만나고 온 마땅가는 더욱더 성실하게 훈련을 받았다. 자신의 출세 길이 열려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아쇼까왕은 친위대장을 불러 명했다.

"삼보디 순례는 규모가 가장 클 것이오. 왕궁이 텅 빌만큼 왕비들과 귀족들, 신하들과 대장들, 아쇼까라마 사문들이 함께 할 것이오."

"저는 삼보디에 먼저 순행을 가서 대왕님께서 참배 오실 때까지 뻡팔라나무를 돌보고 있겠습니다."

"대장, 그렇게 하시오."

친위대장은 삼보디로 순행가기 전날 밤에 또 띠쉬아락시따를 정비별궁에서 만났다. 띠쉬아락시따가 말했다.

"마땅가는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게 방법을 말했어요."

"뻡팔라나무를 어떻게 없애겠답니까?"

띠쉬아락시따가 말했다.

"독 묻은 실로 뻡팔라나무를 묶은 뒤 주술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뻡팔라나무가 곧 시들어 죽는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이번에도 우두머리 궁녀의 귀에 들어갔다. 다실에 과일과 짜이를 날랐던 어린 궁녀가 너무 놀란 채 오들오들 떨고 있다가 해가 뜨고 나서야 우두머리 궁녀에게 보고했던 것이다. 그때 그녀는 어린 궁녀에게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고, 자신은 기회를 보아 삼빠딘을 만날 생각을 했다.

그러나 우두머리 궁녀는 두 사람의 음모를 삼빠딘에게 바로 전하지 못했다. 띠쉬아락시따가 우두머리 궁녀에게 정원 일을 시켰기 때문이었다. 궁녀들을 데리고 정원의 꽃나무 가지치기 일을 하라고 시켰던 것이다. 우두머리 궁녀는 하루 종일 젊은 궁녀들과 함께 꽃나무 가지치기를 했다. 이후에도 우두머리 궁녀는 삼빠딘을 만나지 못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어 한 달 간 특별휴가를 받아 베샬리를 다녀왔던 것이다.



아쇼까왕의 대규모 순례단이 삼보디로 떠나기 며칠 전이었다. 삼빠딘이 뒤늦게 우두머리 궁녀의 소식을 듣고 위로하러 왔을 때였다. 우두머리 궁녀가 쭈뼛거리며 실토했다.

"대장님, 말씀 드릴 일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말이오?" "정비님과 친위대장님이 삼보디 뻡팔라나무를 죽이려고 합니다. 친위대장님은 주술을 하는 옥리 마땅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지금쯤 뻡팔라나무가 죽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정비님과 친위대장 사이를 눈치는 채고 있었소만."

삼빠딘은 놀란 기색 없이 담담하게 말했다.

"대장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잘하는 짓은 늘 음모였소. 그러니 놀랍지 않소."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대왕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삼보디 뻡팔라나무가 그들에게 큰 벌을 내릴 것이오. 선인선과, 악인악과라는 것이 붓다의 가르침이오."

삼빠딘은 뻡팔라나무가 훼손된 사실을 확인한 뒤, 띠쉬아락시따와 친위대장의 음모를 아쇼까왕에게 보고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순례에 대한 기대로 마음이 들뜬 아쇼까왕은 자신이 소유한 황금과 금전을 가능한 한 많이 챙겼다. 삼보디 사원에 보시하고 대규모 순례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였다. 이번에는 띠쉬아락시따도 정비가 된 것을 과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움직였다.

아쇼까왕의 삼보디 순례단이 떠나는 날이었다. 삼빠딘은 선봉대장을 자원했다. 기마부대장 못지않은 승마 실력 때문에 순례단보다 사흘은 빨리 도착해 삼보디를 수색하고 정찰할 수 있을 것이었다. 아쇼까왕은 옥주 전타기리가를 순례단에 참가시키자는 삼빠딘의 제안을 흔쾌하게 받아들였다.

삼빠딘은 선봉부대를 기마군사로만 편성하여 지체 없이 빠딸리뿌뜨라를 떠났다. 삼보디는 바라니시와 달리 배를 이용할 수 없었다. 말을 타고서 남쪽으로 쉬지 않고 달려가다가 수심이 얕은 네란자라강을 건너면 삼보디에 이르렀다. 삼빠딘의 선봉부대는 밤늦게 야영을 하고 낮에는 바람처럼 내달렸다. 삼빠딘의 머릿속에는 삼보디의 뻡팔라나무만 어른거렸다.

마침내 삼빠딘의 선봉부대는 한낮에 삼보디에 도착했다. 삼보디 주민들은 뻡팔라나무에 접근을 못한 채 수심어린 얼굴들을 하고 다녔다. 친위대장이 아쇼까왕이 참배 온다는 이유로 뻡팔라나무에 다가가지 못하게끔 금족령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삼빠딘은 아쇼까왕의 특명을 받은 선봉대장으로서 그곳의 경계군사를 물리치고 들어갔다.

과연 뻡팔라나무 푸른 이파리들이 노랗게 변해 땅바닥에 수북이 흩어져 있었다. 나뭇가지들은 병든 것처럼 하나같이 시들시들했다. 상가밋따가 왔을 때만 해도 새들이 날갯짓을 하고 날아다녔는데 단 한 마리의 새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친위대장과 마땅가가 삼빠딘에게 다가왔다. 친위대장이 말했다.

"뻡팔라나무가 말라가고 있소. 이유를 모르겠소. 빠딸리뿌뜨라로 돌아간 순행대 조장에게 이런 사실을 대왕님께 자세히 보고하라고 조치했소."

"순례 오시는 대왕님을 맞이하기 위해 대장께서는 여기 남았군요."

"이곳을 청결하게 유지하고자 이곳 사원의 사문들과 주민들을 모두 내보냈소."

삼빠딘의 쏘아보는 눈길에 마땅가는 안절부절 못했다.

"알겠소. 선봉부대는 오늘부터 여기서 야영을 하겠소."

"사원이 비었으니 숙소로 이용해도 되오."

친위대장이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지 돌아서려 했다. 순간 삼빠딘이 선봉부대 군사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러자 선봉부대 군사들이 번개처럼 빠르게 친위대장과 마땅가를 체포했다. 선봉부대 조장과 미리 짜놓은 작전이었다. 친위대장과 마땅가는 손발이 묶인 채 사원 창고에 갇혔다. 그날 밤 삼빠딘은 마땅가를 불러내 심문했다.

"사실대로 말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누구의 지시를 받고 뻡팔라나무를 죽이려고 했는지 말하라. 뻡팔라나무를 어떤 방법으로 죽이려고 했는지 말하라."

마땅가는 의외로 겁이 많았다. 온몸을 벌벌 떨면서 띠쉬아락시따와 친위대장의 소행을 다 털어놓았다. 더 심문할 것도 없었다. 삼빠딘은 마땅가를 사원의 기도실에, 친위대장은 사원의 창고에 아쇼까왕이 올 때까지 가두었다. 마땅가에게는 날마다 짜파티 세 장과 물을 주었지만 친위대장에게는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았다. 아버지 꾸날라를 참혹하게 만든 조력자이기 때문이었다.

삼빠딘은 선봉부대 조장과 함께 뻡팔라나무를 감은 흰 천을 풀었다. 흰 천을 벗겨내자 뻡팔라나무 껍질을 도려낸 자리에 독 묻은 실이 보였다. 선봉부대 조장은 칼로 뻡팔라나무를 친친 감은 실을 제거했다.

사흘 후. 마침내 아쇼까왕의 대규모 순례단이 삼보디에 도착했다. 아쇼까왕이 탄 대왕코끼리 뒤에 수백 명의 일행이 거리를 걸어 들어오자 삼보디는 뿌연 흙먼지로 휩싸였다. 삼빠딘은 대왕코끼리 앞에서 뻡팔라나무까지 인도하면서 사실대로 다 보고했다. 아쇼까왕이 분기탱천했다.

"아무도 내 분노를 막지 못하리라!"

아쇼까왕이 말라죽어가는 뻡팔라나무를 보더니 비틀거렸다. 그러자 젊은 왕비 두 명이 가까이 다가와 부축했다. 아쇼까왕이 너무 괴로워하자 뒤에 있던 한 장로가 소리쳤다.

"대왕님이시여! 뻡팔라나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물을 주면 살아날 것입니다."

"오, 살 수만 있다면 나는 지금 바로 수천 개의 항아리를 보시할 것이오."

삼빠딘은 아쇼까왕이 임시군막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동안 찾아가 말했다.

"대왕님이시여, 친위대장과 옥리 마땅가는 극형으로 다스려야 마땅합니다."

"난 그 자들을 보기도 싫으니 삼빠딘이 처형하라. 다만 이곳은 붓다의 성지이니 1요자나 밖으로 데리고 가서 처형하라."

"예, 알겠습니다."

"띠쉬아락시따 정비도 삼빠딘이 처리하라."

"정비님은 옥주 전타기리가에게 맡기면 어떠하겠습니까?"

삼빠딘은 자신의 칼에 띠쉬아락시따의 더러운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았다. 전타기리가라면 그가 즐기는 가장 고상한 방법으로 처리할 터였다.

"내 명이다. 전타기리가에게 띠쉬아락시따를 체포해 알아서 처형하라고 전하라."

삼빠딘은 지체하지 않았다. 친위대장을 1요자나 밖으로 끌고 가서 단칼에 목을 베어버렸다. 그러자 선봉부대 조장이 시신의 사지를 찢어 날아온 독수리들을 향해 던졌다. 마땅가는 전타기리가가 군사 몇 명과 함께 빠딸리뿌뜨라 지옥궁전으로 압송했다. 그런 뒤 띠쉬아락시따를 아담한 집에 넣고 아교로 문을 봉한 뒤 불을 질러 화형에 처했다.

한편, 띠쉬아락시따가 화형을 당하는 동안 아쇼까왕은 한 장로의 말대로 뻡팔라나무에게 밤낮으로 네란자나강 강물을 수 천 개의 항아리에 담아와 부어주었다. 순례단의 왕비와 귀족과 사문들이 항아리 한 개씩을 들고 시도 때도 없이 물을 주자 며칠 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뻡팔라나무 이파리들이 싱싱하게 되살아났고, 비로소 새들이 몰려와 우짖었다.

"추나르에서 온 호위부대 조장은 들으라. 조장은 즉시 산치로 내려가 탑에 이 사실을 조각하라."

아쇼까왕은 뻡팔라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주변에 담장을 당장 치게 했다. 담장이 완성되자 아쇼까왕은 신하들과 함께 직접 항아리를 들고 뻡팔라나무에 물을 주는 의식을 치렀다.

몇 달 후. 빠딸리뿌뜨라로 돌아온 아쇼까왕은 뻡팔라나무의 회생을 기념하는 무차회를 열었다. 산치에서 돌아온 목갈리뿟다띳사, 상카시아를 순례한 우빠굽따, 니그로다, 악기브라흐마 등이 참석했다. 무차회에는 황색 가사를 수한 사문과 장로 30만 명이 모였는데, 3분의 1은 아라한 장로들이었고 3분의 2는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문들이었다. 30만 명이 빠딸리뿌뜨라에 모이자 성은 숫제 황색으로 변했다. 아쇼까왕은 기쁜 나머지 막대한 재물을 또 승가에 보시했다. 아쇼까왕의 보시는 끝이 없었다. 아쇼까왕은 1백 꼬디의 금을 승가에 보시하겠다며 기회가 되는 대로 내놓았다.

그러나 아쇼까왕의 보시는 삼빠딘이 왕권을 빼앗아버림으로 해서 끝났다. 삼빠딘이 병석에 누운 아쇼까왕의 금접시와 은접시 한 개씩만 남기고 나머지 재산을 모두 몰수해버렸던 것이다. 삼빠딘은 할아버지 아쇼까왕에게 품었던 원망을 그렇게 풀었다.

아쇼까왕은 보시할 재물이 없어지자 두 개의 접시도 아쇼까라마 주지 야샤스 장로에게 보냈다. 뿐만 아니었다. 아쇼까왕은 병석에서 식사로 반 조각의 아말라까 과일을 받았는데, 그것마저 야샤스 장로에게 보시했다. 이에 야샤스는 아말라야 과일 반 조각을 갈아서 국에 넣어 모든 사문과 장로들이 보시 받을 수 있게 했다.

마침내 아쇼까왕은 즉위 37년 71세로 숨을 거두었다. 임종 전에 잠부띠바 전체를 승가에 보시하겠다는 아쇼까왕의 유언은 삼빠딘이 곧바로 묵살해버렸다. 그런 뒤 삼빠딘은 극적으로 중병을 극복하고 복귀한 늙은 라다굽따 수상의 도움을 받아 마우리아국의 제왕에 올랐고, 잠부띠바의 상속자가 되었다. 〈끝〉

해양심층수 미네랄을 담은 깨끗한 MQ 눈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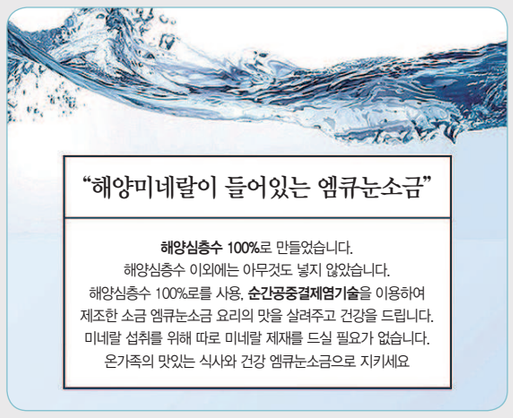
매일 매일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필수 미네랄 섭취, 모든 음식에 넣어먹는 소금으로 챙기세요.



세트구성 52,000원
150g×2, 125g×1=425g

◆ 엠큐 ◆
눈소금세트





"해양미네랄이 들어있는 엠큐눈소금"

해양심층수 100%로 만들었습니다.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로를 사용,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미네랄 섭취를 위해 따로 미네랄 제재를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 엠큐눈소금으로 지키세요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부처님 정법 세계로 펼친 아쇼까대왕

대하소설 〈아쇼까대왕〉 2년 연재를 마치며

내가 인도를 처음 간 것은 1995년 2월 초순이었다. 27년 전의 일로 여행기간은 한 달 간이었다. 인도 비하르주의 부처님 유적지와 수도 델리, 힌두교 최대성지인 바라나시, 영화산업이 발달한 뭄바이 등이었다. 후배 작가 두 사람과 동행했는데 모두가 초행길이었다. 그때 우리는 부처님 유적지에서 아쇼까석주와 아쇼까탑을 발견하곤 했다. 아쇼까석주와 아쇼까탑은 그 자리에 부처님의 성스러운 그림자가 남아 있음을 명명백백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불자인 나는 그때 아쇼까왕에게 고마워했는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행했던 후배시인 윤제림 작가도 마찬가지였다. 한 달 간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나는 아쇼까왕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서적이나 논문 등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서적이나 자료만 보는 것이 실감나지 않아서 다음해부터는 2년 터울로 인도를 가곤 했다. 그러고 보니 지금까지 인도를 15번이나 다녀온 셈이 됐다. 처음에는 단순한 여행이었지만 차츰 아쇼까왕 유적지답사나 부처님 성지순례로 바뀌었다. 그러는 동안 자연스럽게 아쇼까왕을 형상화하는 소설 집필이 작가로서 숙원작업으로 바뀌어버렸다. 불교작가로서 장편소설인 〈산은 산 물은 물〉 〈소설 무소유〉 〈인연〉 〈가야산 정진불〉〈야반삼경에 촛불춤을 추어라〉〈다산의 사랑〉 〈시간이 없다〉〈굿바이 붓다〉〈굿모닝 관세음보살〉, 그리고 산문집인 〈암자로 가는 길〉 〈선방 가는 길〉 〈불국기행〉 〈법정스님 인생응원가〉〈정찬주의 다인기행〉〈행복한 무소유〉 등을 발간하면서 나이 칠십에 이르도록 항상 머릿속에는 아쇼까왕 소설구상을 놓아버린 적이 없었던 것이다.

"발원이 간절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불가의 스승이셨던 생전의 법정스님께서 종종 말씀하셨는데, 마침내 작년 1월 나에게 연재할 기회가 선물처럼 주어졌다. 현대불교신문에 매주 1회씩 신문 한 면 분량을 연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나는 지면이 허락한다면 1백회 정도 연재하려고 생각했다. 그래야만 아쇼까왕의 진면목을 펼쳐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아쇼까왕은 알렉산더왕이나 징기스칸과 더불어 세계 3대 대왕이라고 불리어 왔기 때문에 충분한 지면이 필요했던 것이다.

더구나 아쇼까왕은 알렉산더왕이나 징기스칸이 가지지 못한 덕목이 있었다. 세 명의 위인 모두 정복왕이기는 하지만 아쇼까왕에게는 21세기 리더십으로도 손색이 없는 특별한 철학이 있었던 것이다. 아쇼까왕은 선왕이 이루지 못했던 깔링가국을 정복하면서 전쟁의 참혹함을 목격하고는 칼을 버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즉 '담마의 정복자'가 되기로 맹세했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아쇼까왕의 대전환은 갑자기 이루어진 즉흥적이고 돌변적인 것은 아니었다. 99명의 왕자들을 죽인 잔혹한 권력투쟁에서 성공하여 왕권이 안정된 이후였다. 왕위에 오르기로 돼 있었지만 독살당한 이복형 수시마의 아들인 니그로다 어린 사문으로부터 짧은 법문을 듣고 마음을 움직였다. 그때 아쇼까왕 마음속에는 이복형 수시마에 대한 미안함이 남아 있었던 것도 니그로다를 환대한 요인이었다고 본다. 그리고 자신이 창건한 아쇼까라마의 수석장로 목갈리뿟다띳사를 자주 만나면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갔다. 마우리아왕국의 도시마다 8만 4천 개의 사원과 탑을 조성하고, 고명한 장로들을 왕궁으로 초대하여 공양하는 등 '승가의 보호자'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을 출가시켰다. 친동생 비가따쇼까, 사위 악기브라흐마, 외손자 수마나, 아들 마힌다, 딸 상가밋따 등을 출가시키어 '믿음의 실천자'가 된 것이었다. 그러다가 십여 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깔링가 전쟁의 참상을 목격한 뒤 다야강에 칼을 버리고 '북소리의 정복자' 대신에 부처님 법으로 세상을 통일하는 '담마의 정복자'가 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나는 이러한 아쇼까왕의 다중적인 캐릭터를 그의 혈통에서 찾아냈다. 마우리아왕국을 건국한 할아버지 짠드라굽따왕은 주도면밀하고 영악했다. 동방원정에 나선 알렉산더왕에게 다가 가서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받아 인도를 통일하겠다는 그의 야망을 보아도 그랬다.

기원전 329년, 알렉산더는 네팔의 국경지방인 삡팔라바나에서 온 한 젊은 장수를 만났다. 그가 바로 짠드라굽따였다. 마우리아족인 그는 동인도 한 지역을 본거지로 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있던 난다왕국을 멸망시키겠으니 군대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난다왕국은 부처님이 계실 때 가장 강력했던 마가다왕국을 무너뜨리고 나서 20여 년간 왕조를 유지하다가 알렉산더의 동방원정으로 국력이 극도로 쇠약해진 탓에 민심이 흉흉한 왕국이었다.

탁실라와 인도서북 지역을 정복한 알렉산더왕은 짠드라굽따의 청을 거절했다. 알렉산더는 들어줄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인도를 정복하는 동안 자신의 군대가 풍토병과 독충 등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었던 것이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권위를 모욕했다는 죄목으로 오히려 짠드라굽따를 감옥에 가두고 사형을 언도했다. 그러자 짠드라굽따는 천신만고 끝에 정글로 도망쳐 나와 목숨을 구했다. 이후 와신상담하던 짠드라굽따는 뜻밖의 기회를 잡았다. 알렉산더왕이 인도서북 지역을 정복한 지 1년 만에 주력부대를 점령지에서 철군시킨 뒤 갑자기 죽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짠드라굽따는 점령군에게 핍박을 받던 인도서북 사람들을 선동하여 인도에 남아 있던 알렉산더 군대를 격파했다. 이후 짠드라굽따는 그 여세를 몰아 탁실라와 인도서북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파죽지세로 난다왕국을 멸망시키고 인도 전역을 정복해 갔다. 마침내 짠드라굽따는 마우리아왕국을 건국했다. 짠드라굽타는 마우리아왕국을 24년간 통치했다고 전해진다. 그의 군대는 인도의 어느 왕조보다 강했다. 60만의 보병과 3만의 기병, 그리고 9천의 코끼리부대를 보유했다. 알렉산더에 이어 기원전 305년에 그리스의 셀레우쿠스가 군대를 이끌고 왔지만 공격은커녕 점령한 인더스강 주변의 땅을 되돌려주고 짠드라굽따와 혼인동맹을 맺고 퇴각할 정도였다.



바이샬리 아쇼까석주, 사자가 응시하고 있는 곳은 부처님의 열반지 꾸쉬나가라이다.

아쇼까대왕, 21세기 리더십으로도 손색 없는 특별한 철학을 지닌 리더
전쟁 참혹함 목격하고는 칼 버리고 佛法, 즉 '담마 정복자' 되기로 맹세
인도 15회 순례 후, 머릿속에는 아쇼까왕 소설구상을 놓아버린 적 없어
처음에는 1백회 정도 연재 생각…시간에 쫓겨 아쉽게 결말 부분 마무리

마우리아왕국의 제2대왕은 짠드라굽따왕의 아들인 빈두사라였다. 빈두사라왕 역시 무력정복을 멈추지 않았다. 잔혹한 그의 영토는 더 넓어져 중앙인도와 데칸고원까지 내려갔다. 제국이 된 영토를 분할통치하기 위해 그는 많은 왕자를 두었다. 16명의 부인을 맞아들이어 101명의 왕자를 보았다. 첫째 왕자인 태자는 수시마였고, 맨 마지막 왕자는 아쇼까의 친동생인 비가따쇼까였다. 빈두사라왕은 자신의 성격을 빼닮은 아쇼까를 싫어했다. 아쇼까는 장성해서도 빈두사라의 눈에 들지 못했다. 태자인 수시마 부왕이 다스리는 탁실라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빈두사라왕은 아쇼까를 보냈다. 충분한 군사를 지원해 주지 않은 채 사지로 보낸 셈이었다. 그러나 아쇼까는 민심을 얻어 반란을 평정하는 공을 세웠으므로 대신들의 신뢰를 얻었다.

빈두사라왕이 병석에 눕자, 웃자인 지방을 다스리던 아쇼까 부왕은 마우리아왕국의 수도인 빠딸리뿌뜨라로 올라가 99명의 이복형제 왕자들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 4년 동안 살육이 끊이지 않는 왕자의 난이 벌어진 것이다. 살아남은 왕자는 친동생 비가따쇼까뿐이었다.

아쇼까왕의 캐릭터 형성에 있어서 또 하나 주목한 인물은 아쇼까왕의 어머니 다르마 왕비와 아쇼까가 웃자인에 부왕으로 내려가 있을 때 만났던 데비였다. 다르마 왕비는 브라흐민 신분으로 고향 짬빠성에서는 아지비까교 수행자들에게 공양했지만 빠딸리뿌뜨라성에 들어온 이후에는 목갈리뿟다띳사나 우빠굽따 같은 장로들에게 감화를 받으면서 독실한 불교신자가 되었고, 데비는 바이샤 신분으로 상인수장이었던 아버지가 산치 동산에 개인원찰을 조성했을 만큼 어린 시절부터 불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던 것이다. 아마도 아쇼까왕은 다르마 왕비와 데비에게서 부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알게 모르게 훈습되지 않았을까 싶다. 아쇼까왕의 캐릭터를 보면 영악한 야망도 있고, 잔혹하기 짝이 없는 비정함도 있고, 숨을 거둘 때는 자신이 먹어야 할 과일 조각까지 승가에 보시하는 자비가 있었으니 그것들이 어떤 인물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작가적인 관점에서 나름대로 살펴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한편, 나는 소설 연재를 들어가기 전에 아쇼까왕의 위대함을 불자의 입장에서 먼저 찾아보았다. 그 첫 번째는 아무래도 아쇼까왕에 의한 불교의 세계화였다. 불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된 것은 아쇼까왕이 담마사절단을 스리랑카는 물론 지중해 연안인 이집트, 그리스, 시리아 등에 파견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한중일 삼국은 물론 동남아 전체에 불교가 전통종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봐야 옳았다. 다시 말하면 아쇼까왕이 세상에 출현하지 않았다면 불교는 세계적인 종교가 되지 못한 채 인도에서 소멸했을지도 모르므로 부처님이 정법을 세상에 처음 드러내 보여주신 분이라면 아쇼까왕은 정법의 불빛이 꺼지지 않게 세계로 펼친 전륜성왕인 것이다.

두 번째는 종교 간에 화합을 도모한 관대함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승가를 정화하되 모든 종교 수행자들을 우대했는데, 아지비까교 교단에 사원의 규모와 버금가는 동굴법당을 세 개나 기증한 것만 봐도 그의 종교적 태도를 알 수 있음이다.

세 번째는 석주나 바위에 새겨진 담마칙령을 통한 통치이다. 담마칙령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람과 동물의 행복을 추구한 복지와 자선정책이다. 서구의 르네상스가 신본주의에서 인간중심의 휴머니즘사상을 일으켰다면 아쇼까왕을 통한 부처님 정법은 신본주의나 인본주의가 아니라 모든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운 생명중심사상이라고 해야 할 터이기 때문이다. 이는 21세기 오늘날의 지도자들과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생태복지 리더십이 아닐까 싶다.

아무튼 나는 아쇼까왕의 모든 것이 이 연재소설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아쉬운 점도 많다. 특히 시간에 쫓긴 마지막 결말 부분이 그렇다. 그러나 2년이라는 연재기회는 내게 큰 행운이 아닐 수 없었다. 현대불교신문사 여러분과 담당 기자 분, 삽화를 맡아준 화가 분께 거듭 감사를 드린다. 또 잊을 수 없는 분이 있다.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스님과 무량심 회장보살님이다. 이분들의 응원과 격려는 집필하는 동안 큰 힘이 되어주었다. 마지막으로 독자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특히 소설을 정독한 뒤 내게 문자로 보내온 허정스님의 촌평은 연재소설의 허술한 부분을 바로잡는 계기가 됐으니 말이다. 교정을 보아준 호연보살에게도 고마움도 표하고 싶다.

〈아쇼까대왕〉은 연재 중에 이미 불광출판사와 출판계약을 했다. 영역을 하고 칼라삽화를 선별해서 넣기로 했다. 내년 2월 말쯤에 발간될 예정이니 우리 불자 분들의 더 많은 기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2022년 12월 15일 이불재에서
소설가 정찬주 합장



몸과 마음에 유익한 氣를 발생시키는 제품 퀀텀참

QUANTUM CHARM!



정면 12×12cm, 측면 두께 4.5cm
순금판을 이용한 실제 제품 사진입니다.
옆에 두어도 뇌파,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퀀텀참은 양자파동을 내는 부적이란 뜻입니다. 인류는 예로부터 여러 부적을 사용해왔는데 그중 가장 수승한 것이 천부인(天符印)입니다.

퀀텀참은 천부인의 재현에 해당됩니다. 퀀텀참은 뇌파, 맥파를 안정시키고 생체자기장(오라)을 상향시킵니다. 뇌파, 맥파는 최정미 박사님의 예비시험에서 확인되었고 오라는 이영좌 교수님의 시험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자기기의 사용은 오라를 하향시키는데 퀀텀참을 간섭시킨 보조배터리(충전할 때 퀀텀참을 전선 위에 둠)를 사용하면 오히려 상향됩니다.

퀀텀참의 기가 전자에 얽혀 배터리에 저장됨으로써 휴대폰 사용시 소리와 영상을 통해 기가 증폭되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때 휴대폰의 소리와 영상의 상태가 좋아집니다. 모든 물질은 고유의 파동이 있지만 다른 파동을 간섭받으면 고유파동이 변하게 되며, 특별한 여건에서 수준 높은 상위의 파동을 간섭받으면 받은 파동이 얽히게 되어 얽힌 파동을 지속적으로 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재료가 순금으로 된 미묘한 기하학적 구조일 때 더 수준 높은 파동이 증폭되어 나옵니다.

전설의 금척, 천부인도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 졌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동경잡기, 삼국유사, 부도지 본문과 증심록 추기 등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부도지에서 천부인을 천지본음지상(天地本音之象)으로 묘사하고, 부도지 증심록 추기에서 금척을 '허실지수 구이성십 차즉천부지수야 (虛實之數 九而成十 此則天符之數也)'로 나타내는 것은 대단한 비밀입니다. 순금으로 미묘한 기하학적 구조를 만들고 이것에 천지의 수승한 기(氣), 수준 높은 상위 세계의 기(氣)를 전이시키는 비밀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시춘추에서는 천부를 성,명,정과 연계시키고 있으며 목은문집에서는 비서[(祕書)풍수비전]의 이치가 천부에 부합한다고 했습니다(의역). 풍수비전은 전후,좌우,상하로 분열되는 기가 중앙으로 응축되는 원리입니다. 이것은 천부에 부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 명, 정(性命精)의 원리는 연정, 연기, 연신(練精, 練氣, 練神)인데 간단히 말해서 기를 닦아 그 수준을 높이고 높아진 기에서 발생되는 마음으로 진리를 통달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는 기 수준에 비례하므로 기 수준을 높여야 마음이 밝아집니다. 이것이 곧 천부사상입니다. 천부인은 이 철학을 내포하는 동시에 수승한 기를 내는 신물입니다. 천부인을 부도지에서 천지본음지상이라고 한 자체가 천지의 수승한 기가 천부인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금척도 천부인과 궤를 같이 하므로 금척의 내용도 이와 같습니다. 증심록 추기에서 김시습은 훗날 누군가 금척을 재현하지 않을까 했습니다. 부도지에서도 천부를 옥에 새겨 이용했다고 했으니 이것도 재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퀀텀참은 이런 것에 부합하는 기를 내는 재현제품입니다. 퀀텀참은 소리, 영상, 빛 등에 공명하여 기를 좋게 하고 뇌파,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악 소리, 영상화면, 빛의 수준을 좋게 합니다.

앞으로 여건이 되면 산업적, 의학적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기전도율, 영상, 음향, 표면장력, 혈액점도, 활성산소, 인슐린 등을 시험해 볼 계획입니다. 퀀텀참1 외에 2,3,4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퀀텀참의 금판은 999.9‰이고 중량은 약 4.29g입니다. 정가는 500만원이고 일정기간 350만원에 보급합니다. 주문 시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지리산 홍명 밀행자

정가 500만원 특판가 350만원 구매문의 시산 010-3775-9981

‘스타워즈 시리즈’에 숨은 불교 철학은?

노팅엄대 리 클라크 박사 논평

우주 힘, 각 생명체 에너지 장
모두 연결됐단 불교 원리 같아
‘무상’ 가치 받아들인 제다이
자신 몰락의 ‘삼독’으로 이해

박정현 객원기자



스타워즈 포스터. 사진출처=디즈니

“철학자이자 불교도로서, 또 스타워즈의 열렬한 팬으로서 나는 스타워즈 시리즈 속 ‘제다이’란 집단의 세계관에 나타난 불교적 철학을 외면할 수 없었다.”

배우 이정재가 주연으로 발탁된 스타워즈 시리즈의 실사 드라마 ‘더 애콜라이트’가 한창 촬영 중인 가운데 역대 스타워즈 시리즈 속 불교적 요소에 주목한 논평이 이목을 끌고 있다. 영국 잉글랜드 노팅엄트렌트대학교(Nottingham Trent University)의 리 클라크(Lee Clarke) 철학박사의 논평이다.

리 박사는 지난 12월 6일 비영리 미디어 플랫폼 ‘더 컨버세이션 닷컴’(theconversation.com)을 통해 “조지 루카스 감독의 SF영화 ‘스타워즈’가 1977년 처음 영화계를 강타했을 때 그 영화가 역사상 가장 성공한 시리즈물이 될 것이라고 상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라며 “사람들은 그중에서도 우주와의 조화를 중시하는 종교이자 철학인 불교와 도교의 요소를 놓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렇다면 리 박사가 주목한 스타워즈 시리즈 속 불교적 요소는 무엇일까.

그는 우선 오리지널 스타워즈 영화에서 제다이의 그랜드마스터인 오비완 케노비가 루크 스카이워커에게 ‘힘’에 대해 “모든 생명체가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장”이라고 묘사하는 부분에 주목했다. 제다이는 영화에서 평화를 숭상하는 무력조직 및 학자 겸 수도사 집단으로, 제다이의 그랜드마스터는 그들의 대표자이다.

리 교수는 “우주를 이루는 ‘힘’이 각 생명체의 상호연결을 통해 생성된다고 보는 것”이라며 “이는 모든 것이 연결돼 있으며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고 주장하는 불교 원리와 같다”고 설명했다.

스타워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또 다른 불교 철학은 ‘탐욕(貪欲)’에 대한 내용이다. 영화에서 제다이의 그랜드마스터는 구성원들에게 사람이나 사물에 집착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특히 사람에 대한 집착을 떨치기 위해 제다이는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결혼하고 가족을 갖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리 박사는 “불교에서 ‘고(苦)’로 표현되는 고통이나 불만은 ‘갈증’을 의미하는 탕하(tanha)에서 비롯된다”며 “인간은 사람이나 사물이 자신의 원하는 모습이 아닐 때 고통스러워한다. 갈애의 뿌리는 ‘삼독’인 탐진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다이는 ‘무상’이라 불리는 불교의 또 다른 가치를 받아들여야 했고, 자신을 몰락시키는 것이 ‘삼독’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했다”며 “그들의 집단에서의 모든 가르침은 불교적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애콜라이트’는 ‘스타워즈: 보이지 않는 위험’(1999)으로부터 100여 년 전인 ‘하이 리퍼블릭 시대’를 배경으로 우주의 어두운 비밀과 다크사이드의 태동에 관한 이야기를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 영화 ‘오징어게임’으로 세계적 스타덤에 오른 국내 유명 배우 이정재가 제다이로 출연해 화제가 되고 있다.

한편 스타워즈의 감독이자 세계적 명장인 조지 루카스는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기독교인으로 자라났으나 지금은 불교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영국 맨섬에 최초 불교 사찰 문 열다

태국 커뮤니티 후원으로 태국 사찰 건립

영국 맨섬(Isle of Man)에 최초의 불교 사찰이 문을 열었다.

맨섬의 지역 언론인 맨섬 투데이(Isle of Man Tody)는 지난 12월 12일 “불교 신자뿐만 아니라 웰빙과 명상에 관심 있는 사람, 태국 문화를 체험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가 생겼다”며 맨섬의 동부 지역에 새롭게 문을 연 태국 사찰을 소개했다.

주지 스님은 태국에서 온 마하 곤(Maha Gone) 스님이다. 해당 매체는 “마하 곤 스님은 사찰 창건까지 부단한 노력을 했다”며 “이 사찰은 지역 사회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정서적 수양 공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마하 곤 스님은 “이 지역에는 태국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동안 불교와 태국 문화를 공유할 공간이 전무했다”며 “사찰은 수행 공간으로써 뿐만 아니라 태국 공동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기뻐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전통적으로 스님들은 영적 인도와 정서적 지원, 명상 교육 등을 신도들에게 전파했다”며 “사찰이 이 섬에 문을 열 수 있던 것은 오로지 이러한 가르침을 열망한 태국 사람들 덕분”이라고 했다.

현지 태국인 커뮤니티는 이번 사찰 건립을 위한 자금 마련도 전적으로 도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님은 “나는 승려로서 이 사원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역할에 불과하다”며 “사찰은 승려가 아닌 신도들의 것이다. 여러 사람들의 자비행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해당 사찰은 지난 12월 11일 대중에게 공식 개방됐다. 향후 명상과 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을 갖출 계획이다.

박정현 객원기자



영국 맨섬에 설립된 최초의 불교 사찰. 사진출처=맨섬 투데이

“CEO로서 받는 압박…불교로 극복했다”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 저명 CEO 테인 로리

‘더 부디스트 CEO’ 발간해
불교와 비즈니스 고민 담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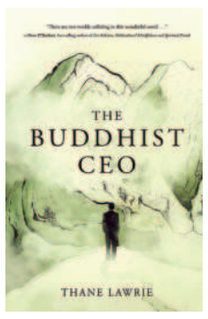
“대규모 조직을 이끄는 최고경영자(CEO)가 받는 압박감은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거대하다. 나는 그 압박감에서 벗어나 균형을 찾기 위해 불교를 수행했다.”

뉴스와이어 등 복수의 외신 매체에 따르면, 12월 13일 저서 ‘더 부디스트 CEO’를 발간 테인 로리(Thane Lawrie)는 리더로서 받는 압박이 건강에 얼마나 해로울 수 있는지 직접 느낀 인물이다. 오랫동안 대규모 비영리 조직을 이끌며 영국의 저명한 CEO로 인정받았지만 급격한 건강 악화로 지난해 은퇴했기 때문이다.

성공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압박으로부터 그를 지탱했던 것은 불교다.

뉴스와이어는 “로리는 지난 25년간 지도자이자 불교도로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책을 펴냈다”며 “현대사회의 CEO가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끊임없는 내적 탐구가 담겼다”고 소개했다.

소설 ‘더 부디스트 CEO’의 주인공 해미시(Hamish)는 어느 날 불교 승려를 우연히 만나 출가를 꿈꾸지만 가족과 사회적 위치 등으로 인해 비영리 단체의 CEO로 일하게 된다. 수년동안 CEO로 일하며 그는 경영 철학에 불교를 투영하려고 노력하지만 종종 내적 수행의 한계에 부딪힌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는



테인 로리의 저서 ‘더 부디스트 CEO’. 사진출처=뉴스와이어

절을 찾아 평화와 내적 안정을 좇는다.

저자 로리는 “해미시는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내면의 혼란을 경험한다”며 “사회적으로는 성공을 거듭하지만 직원들과의 문제를 겪기도 하고 도덕적 혼란에 휩싸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로리는 “그는 불교적 접근 방식을 통해 경영을 시작하며 해답을 찾는다”며 “그런 변화를 통해 회사를 큰 성공으로 이끈다”라고 부연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젠 로하츠’(Zen Rohatsu)를 펴낸 노라 데클레시스는 로리의 저서에 대해 “마음챙김 선 수행자의 관점에서 불교를 개인의 비즈니스에 어떻게 접목시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지 고민이 담긴 책”이라며 “평점 5점 만점에 5점을 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극찬했다.

테인 로리는 애버딘대학교를 졸업한 후 지난해까지 약 7년간 대규모 비영리 조직의 CEO로 일했다. 그가 해당 조직을 맡은 7년 중 무려 6년간 영국에서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선정됐다.

테인 로리의 저서 ‘더 부디스트 CEO’는 온라인 구매 사이트 아마존에서 구입 가능하다.

박정현 객원기자

태국, 17개 불교사원 대대적 보수 나선다

약 23억 6000만 원 투입
“다양한 신앙 공존 위해”



태국 불교사원의 모습.

태국정부가 100년 이상 된 불교사원 17곳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에 나선다.

태국 매체 Thai PBS WORLD는 12월 12일 “정부 부대변인 라차다 드나드렉이 송크라, 파타니, 얄라 및 나라티왓 지방에 있는 17개 중요사원에 약 6300만 바트(한화 약 23억 6000만 원)를 투입, 보수할 것을 다음해 최우선 과제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17개 사원 보수 후에는 외딴 지역에 있는 7개 사원과 고대 유적지도 순차적으로 보수된다. 무슬림이 우세한 지방의 경우 반군이 수십년 동안 벌인 무력충돌로 인해 방치돼 수리 및 개조가 필요한 사원이 140여 곳에 달한다.

라차다 부대변인은 “이 지역에서 소수인 불교도들과 각기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간의 다양성과 평화로운 공존을 촉진함은 물론,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오래된 사원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라며 정부가 주도해 보수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보수 작업은 남부 국경 지방 행정 센터, 국립 불교 사무소, 미술부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불가佛家문학과 선가禪家문학에 대한 새로운 접근!



대원불교학술총서 • 5

한국 선어록의 문예 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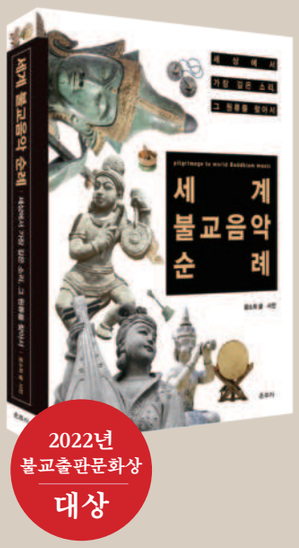
고려 말의 뛰어난 선사로서 특출한 선시와 어록을 남긴 백운, 태고, 나옹의 문학을 선적 통찰과 문예 미학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

전재강 지음/신국판/312쪽/값 20,000원

불교음악 범패의 원류를 찾아서!

세계 곳곳을 누비며 찾아 기록한 20년 여정의 대기록!

세계 불교음악 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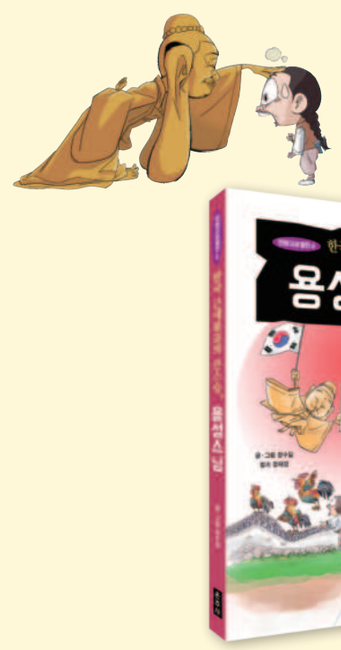


2022년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왜 불교음악은 나라마다 다른가? 각국의 불교음악은 어떻게 변용되었으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 세계 불교음악의 현장을 생생한 기록과 풍부한 사진으로 보여준다.



윤소희 지음/사륙배판/440쪽
값 28,000원



재미있는 만화로 만나는 용성 스님 일대기!

한국 근세불교의 큰스승, 용성 스님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로 참여한 독립운동가이자 불교의 근대화와 대중화에 앞장선 한국 근세불교의 중흥조 용성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그려냈다.

정수일 글, 그림/사륙배판/200쪽/값 16,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이강옥 교수의 한국선 이야기 ㉔ 근현대 선승과 수행자



▶한줄요약
근현대에 이 땅엔 위대한 선승들과 수행자가 많이 출현했다. 근대 선승들은 일제강점기라는 힘든 역사 속에서도 치열하게 정진했다.

치열하게 정진한 이 땅의 선승과 수행자

1. 시대의 질곡과 선승의 빛

근대에 들어서면서 위대한 선승들이 연이어 이 땅에 와주셨다. 근대 선승들은 일제강점기라는 질곡의 시간대에 생의 일부를 걸었다. 그 고통과 번뇌가 수행의 과정에 깃들었다. 그만큼 수행은 치열했고 단단해졌다.

시대와 수행이 긴밀했던 세 분의 선승이 먼저 떠오른다. 고봉(古峰, 1890~1961)은 박팽년의 후손으로 통도사에서 출가를 기다리던 중에도 양반 행세를 했다. 오만한 행자를 혜봉(惠峰, 1816~1881)께 데려갔다. "너를 거드름 피우게 하는 그 물건이 무엇인가!" 화두를 내리면서 신분해방을 선언했다. '그 물건'을 찾아 용맹정진하기를 4년, 1915년 4월 어느 아침 붉은 해가 가슴속으로 솟아오르는 체험을 했다. 인가를 받던 날 고봉은 승복을 벗어버리고 대구로 갔다. 1919년 대구 남문 밖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한 것이다. 고봉은 감옥살이를 하며 받은 고문으로 평생 불구로 살았다.

조선총독부 판사가 되어 독립투사에 대한 재판을 도맡았던 효봉(曉峰, 1888~1966)은 근원적 참회를 하고 출가했다. 법기암 토담집으로 들어가면서 깨닫기 전에는 나오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수행을 한 지 1년 반 만에 벽을 박차고 뛰쳐나왔다. 용맹정진 끝에 해오를 얻었다. 세월이 흘러 노구에 치명적 병이 들었다. 앉을 힘이 없어 천정에서 드리워진 줄을 잡고 좌선했다. 죽을 때까지 화두를 들었던 것이다.

아들의 죽음이 일본 유학 시절 개 한 마리를 버린 업에서 비롯한 것임을 확인하고 출가한 제선(濟禪, 1912~1971)은 우리나라 최초 무문관인 도봉산 천축사 수행을 완수했다. 6년 만에 무문관 문을 열고 나오면서 공식적 만남을 거절했다. "부처님은 생사자재하고 언행일치하는 실력을 갖추셨다. 그런 실력을 갖추지 않은 요즘 선지식은 혹세무민하는 악업을 짓고 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부산으로 내려가 여수행 배에 올랐지만 그 후 행방이 묘연했다. 바다에 몸을 던졌을 것이다. 6년 무문관 수행에 자기 목숨을 바친 것이 분명해졌다.

고봉과 효봉과 제선, 그 결단과 수행력은 시대의 질곡에 맞선 수행자가 더 찬란한 빛을 발산했음을 보여준다. 제선의 투신에 의한 수행 종결과 효봉의 투병 수행도 그 간절함에서 차이가 없다.

2. 7일 선정 삼매

〈화엄경〉은 보현보살 열 가지 삼매의 신통을 환희롭게 보여준다. 화두수행의 선정삼매는 불보살 삼매의 위용에서 비롯하는 것일 테다. 우리나라 선수행도 선정삼매를 중시하고 그 기간도 7일 전후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해안(海眼, 1901~1974)은 7일 견성을 표방했다. 7일 만에 깨치지 못하는 것은 수행 자세가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시간이 짧아서가 아니라 했다. 철우(鐵牛, 1895~1979)와 적명(寂明, 1939~2019)도 '장소와 의지'만 있다면 일주일 만에 '체험'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 용맹정진이 대체로 일주일 전후로 이뤄지는 것도 이런 전통에 이어진 것이다.

화두삼매가 되면 주객이 사라져 새 세상을 경험한다. 남방불교의 '니미따'나 대승불교의 '일몰관(日沒觀)' 등과는 달리, 화두의 삼매는 보고 듣는 대상이 없어서 어렵기는 하지만, 일단 들기만 하면 깨달음에 문득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3. 경허 가풍

경허(鏡虛, 1849~1912)는 근대 화두수행의 출발점이다. 경허는 죽음에 맞닥뜨렸을 때 엄청난 공포가 일어나는 걸 자각하자 교학을 중단하고 화두수행을 시작했다. '소가 되어도 구멍 뚫을 코뚜레가 없다'는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옥죄던 의심이 사라지고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경허는 근기에 따라 제자를 이끌었다. 수월(水月, 1855~1928)에게는 7일간 〈천수다라니경〉만 외우게 했다. 수월이 주력 삼매에 완전히 들어가자 아랫마을 사람들은 천장암에서 불기둥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다. 혜월(慧月 1861~1937)에게는 〈수심결〉을 먼저 가르쳤다. 혜월은 그 구절구절에서 강력한 의심을 일으켰다. 경허가 물었다. "형상 없으되 뚜렷한 그 한 물건을 일러라." 혜월은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의심 덩어리가 가슴에 사무쳤다. 바위 굴 속으로 들어가서 '이 한 물건이 무엇인가?'라는 일념만을 지속했다. 7일째, 신골에 짚신을 걸고 '탁!' 치는 소리에 '한 물건'이 환히 보였다.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 펼쳐졌다. 경허가 물었다. "참선은 무엇 하려고 하는가?" "못에는 고기가 뛰고 있습니다." "자네는 지금 어디 있는가?" "산꼭대기에 바람이 지나갑니다." 경허는 혜월을 인가했다.

한암(漢巖, 1876~1951)도 "마음 밖에 부처가 있고 자성 밖에 법이 있다는 생각으로 불도를 구하지 말라."는 〈수심결〉 대목을 읽는 순간 의식이 정지되는 충격을 느꼈다. 경허는 "무릇 형상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라는 〈금강경〉 구절로 한암의 심안을 열어주었다. 한암은 통도사 내원선원 조실로 추대됐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맹산 우두암으로 떠났다. 겨울이면 사람이 살기 어려운 북녘의 깊은 산사에서 그는 확철대오하기 위해 목숨을 내놓았다. 어느 날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서 타오르는 불길에 온갖 번뇌가 타서 사라졌다.

천장암 경허 문하에서 살아가던 만공(滿空, 1871~1946)은 "만법귀일 일귀하처가 무슨 뜻입니까?"라는 질문을 듣는 순간 앞이 캄캄해졌다. 아산 봉곡사로 가서 정진을 새로 시작한 어느 날 마주한 벽이 사라지고 훤한 세상이 나타났다. 첫 번째 깨달음이었다. 마곡사 토굴로 찾아온 경허가 제자의 공부를 점검했다.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다"며 무자화두를 주었다. 통도사 백운암에서 보름 동안 화두만 들고 있을 때 새벽 종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현상 세계가 무너지고 우주 법계가 보였다. 두 번째의 큰 깨달음이었다.



경허는 한국 근대 화두수행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사진은 경허 스님 진영.

고봉·효봉·제선·경허·성철 등 출현
일제강점기에도 치열한 수행 이어져
경허, 한국 근대 화두 수행의 출발점
파주·방행으로 제자들 길러낸 성철
백봉, 〈금강경〉 읽어본 적 없이 견성

보림 뒤 경허로부터 인가를 받은 만공은 스승을 이어 제자를 이끄는 선지식이 되었다. 만공은 수행자의 마음과 상태를 간파하는 능력이 탁월했다. 당시 내로라하는 선지식들로부터 인가를 받은 전강(田岡, 1898~1975)이 찾아오자 "너의 깨달음은 저 불목하니보다 못하다"고 내쳤다. 전강에게 분심이 일어났다. 만공이 의도한 것이었다. 전강은 초심을 되찾아 더 치열하게 정진하여 깨달음을 완성했다.

4. 성철의 파주와 법전의 기백

성철은 파주(把住, 꾸중하고 가라앉히는 것)와 방행(放行, 격려하고 놓아주는 것)을 적재적소 자유자재한 드문 선지식이었다. 성철로부터 화두를 받은 법전(法傳, 1926~2014)은 7개월 동안 화두 일념이 지속됐다. 부엌에서 된장국에 넣을 채소를 썰고 있었는데 컴컴했던 부엌이 대낮처럼 밝아졌다. 스승을 찾아갔다. "무엇이 네 송장을 끌고 왔노?" 법전은 오른쪽 주먹을 들어 보였다. 성철이 다시 말했다. "다시 일러라." 법전은 왼쪽 주먹을 내밀었다. "말로 일러라" 법전이 "아이고, 아이고" 곡을 했다. "다시 한 번 더 일러라" 순간 법전은 말문이 꽉 막혀버렸다. 성철이 법전의 멱살을 잡고는 문밖으로 내동댕이치고 세숫대야의 물을 퍼부었다. 겨울이라 온몸을 적신 물이 얼어붙었다. 선방으로 달려간 성철이 고함을 질렀다. "밥값 내놓거라 이놈들아!" 양철통의 물을 한 수좌를 향해 쏟아 부었다. 입승에게 다가가서 또 고함쳤다. "이놈아, 밥값 내놓으란 말이다!" 뺨을 후려쳤다. 뒷날 법전이 그 까닭을 물었다. "제일 어리고 가장 늦게 참여한 네가 밤낮 가리지 않고 공부하는데, 먼저 와있는 수좌들은 무얼 하고 있느냐는 경책이었다." 수승한 선지식을 절대적 이상으로 받들 수 있었던 행복한 수행 풍경이다.

분발한 법전은 생사를 건 수행을 하기로 결심하고 묘적암으로 갔다. 가져간 쌀을 다 먹도록 공부를 마치지 못하면 굶어 죽기로 했다. 석 달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마음에 통쾌한 변화가 있음을 자각했다. 스승이 계시는 성전암으로 달려갔다. 철망을 뛰어넘어 마당에 우뚝 서서 사자 소리를 냈다. 그리고는 쓰러졌다. 깨어난 제자에게 스승이 물었다.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냐?" "죽은 사람 앞에 술이 석 잔" 성철이 또 물었다.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냐?" 법전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하고 했다. 그리고 바로 일어나 방 안을 거닐면서 오도송을 읊었다.

5. 〈금강경〉 한 번 읽지 않은 백봉

세속에서 스승 없이 견성한 거사 백봉(白峯, 1908~1985)의 존재는 재가 수행자들의 희망이다. 백봉은 국내와 만주에서 항일독립운동을 하다가 사형수가 되기도 했다. 해방 뒤 교육사업을 하면서 무자화두를 받았다. 화두 일념이 바로 되었다. 불보살이 현현하는 등 희유한 체험을 연이어 했지만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화두만 들었다. 보름간 가행정진을 할 때였다. 몰래 뒷산 바위 위로 올라가 선정삼매에 들었다. 아랫마을 사람들이 암자 뒤 바위 쪽에서 불빛이 솟구치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은 그곳에 금광이나 금불상이 있다며 삽과 곡괭이를 들고 달려갔다. 바위 위에는 눈 속에 파묻힌 사람이 코만 내밀고 가늘게 숨을 쉬고 있었다. 몸을 녹여주었다. 거룩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한 도반이 선어록을 읽어주었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그 순간 몸이 굳었던 백봉이 벌떡 일어났다. 백봉의 몸에서 방광이 다시 시작됐다. 예배당의 새벽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도송을 읊었다. 도반이 다시 〈금강경〉을 읽어주자 구절구절 명쾌하게 풀어냈다. 백봉은 〈금강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다.

6. 거울

이제 말을 그치고, 〈맛지마니까야〉 '파발수레의 경'의 감동적인 대목을 거울삼아 우리를 비춰보자. 수행승들이 말했다. "세존이시여, 존자 만따니뿟따는 자기 고장 토박이 수행승으로 스스로 욕망을 여의고 수행승들에게도 욕망의 여읨에 관해 설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수행승들에게도 만족에 관해 설하고, 스스로 한가하고 수행승들에게도 한가함에 관해 설하고, 스스로 정진수행하고 수행승들에게도 정진수행에 관해 설하고, 스스로 계율을 갖추고 수행승들에게도 계율의 갖춤에 관해 설하고, 스스로 삼매를 성취하고 수행승들에게도 삼매의 성취에 관해 설하고, 스스로 지혜를 성취하고 수행승들에게도 지혜의 성취에 관해 설하고, 스스로 해탈을 성취하고 수행승들에게도 해탈의 성취에 관해 설하고, 동료수행자들을 훈계하고, 인식하게 하고, 교시하고, 독려하고, 고무하고,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동료수행자들이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싸리뿟따가 물었다. "벗이여, 무엇을 위하여 세존을 따라서 청정한 삶을 영위하십니까?" 만따니뿟따가 답했다. "벗이여, 집착 없이 완전한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 세존을 따라서 청정한 삶을 영위합니다." 〈끝〉

〈연세대 객원교수〉

건강한 수행을 위한
기적의 소금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그대로 담은
최초의 제품, 소금이 아닌 소금,
기적의 소금으로 불리고 있는 소금이 있다.

강원도 고성 수평선 넘어 6KM 떨어진 깊은 바다, 수심 605m의 깊은 심층수를 길어 올려 첨단공장에서 정성을 다해 정성을 다해 만든 건강을 위한 제품입니다.

깊은바다 해양심층수의 깨끗함, 풍부한 미네랄을 살려 나트륨은 적고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바다의 모든 미네랄은 풍부한 소금, 모든 미네랄은 들어 있지만 쓴맛이 없는 부드러운 짠맛의 소금,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을 한포 한포 물에 타서 드시면 새로운 건강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씨아드의 첨단 기술과 생명살림의 마음을 담아 물에 타서 수시로 마실수 있도록(1포/500ml) 개발했습니다.
김오곤 원장 처방에 따라 몸에 좋은 침향을 첨가한 제품도 있습니다.
좋은 제품 드시고 모두 건강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 오씨아드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은 강원도 고성 해양심층수 특화산업단지에 있는 해양심층수 엠큐눈소금 전용공장에서 생산 판매됩니다.





엠큐해양고미네랄(75,000원)
3g x 31포 x 2박스 + 180g 1병



김오곤원장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125,000원)
3g x 31포 x 3박스=93포(침향 7% 함유)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소금인간- 소금이 답이다" 책(18,000원판매중)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주문 전화 및 대리점 희망 전화 : 033-631-9976, 010-5022-0442
www.mqsalt.com, www.ociad.com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경남 고성 대명사, 전국 캠핑장 캠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 등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문의 010-3267-1263

이안의 Media In Buddha ❻ 영화 〈빌리 엘리어트〉와 연극 〈광부화가들〉



▶한줄요약

11월 4일 221시간만에 구조된 봉화 광부의 기적 같은 생환은 동체대비 발원의 드라마였다. 광산촌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영화 〈빌리 엘리어트〉와 연극 〈광부화가들〉도 동체대비의 발원을 확인할 수 있는 명작들이다.

예술하는 광부에게서 동체자비를 본다

참사, 전쟁, 질병, 기후재앙, 경제시장 폭락 등 궂은 일이 잇달아 벌어진 2022년이었다. 암울하고 참담한 사고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가슴 에이게 한 일은 이태원에서 하룻밤에 수많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은 참사였다. 서울 한복판에서 참사가 벌어지고 있는 바로 같은 시기에 봉화에서도 목숨이 걸린 사고가 있었다. 수백 명이 휘하게 불빛 비치는 거리를 지나다가 당한 사고와 달리 봉화의 사고는 깊은 산골, 그냥 산골도 아니고 땅을 깊이깊이 파고 내려간 갱도가 무너진 아래 두 분의 광부가 며칠 째 매몰되어 있다는 소식이었다.

광산은 늘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곳이다. 봉화 광산에서는 사실 여름부터 조짐이 있었고, 이태원 참사 며칠 전에 두 광부는 무너진 갱도 아래 갇혀 있었다. 사고 소식과 구조 상황이 뉴스에 나오긴 했어도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었다. 외진 곳이기도 하고, 사고 인원이 많지 않아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 않다보니 그런 사고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았고, 단신으로 다룬다 해도 대중들이 뉴스 자체를 별로 눈여겨보지 않는 시대이기도 했다.

그러다가 이태원 참사 소식에 대중들은 뉴스에 집중했고, 눈과 귀를 열었고,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기를 기원했다. 그렇게 뉴스 앞에 모인 대중들은 봉화 광부들의 사고 소식을 알게 되었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들이 무사하게 구조되기를 빌고 또 빌게 되었다.

사고가 발생한 것은 10월 26일, 그리고 이분들이 가족들 곁으로 살아 돌아오게 된 날이 11월 4일, 무려 221시간이 지나고서였다. 이 생환 소식은 '기적' 과도 같았다. 살고자 하는 의지와 살리고자 하는 노력,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생환에 대한 발원을 함께 세운 날들. 두 광부의 생환은 바로 '동체대비(同體大悲)' 의 지극함에 대한 응답과도 같았다.

'동체(同體)' 는 한 몸 또는 같은 몸이라는 뜻이니 남과 내가 하나라는 말이다. 이 말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희노애락(喜怒哀樂)을 부처님은 마치 자기 몸이 겪는 것처럼 똑같이 느낀다는 뜻으로, 뭇 중생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통과 슬픔 앞에서 나와 남 사이에 추호의 타산이 없이 사랑과 연민을 한껏 베푸는 것이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가르침이다.

서로 다투고, 겨루어 남보다 나은 자리와 재산을 차지하는 것을 성공으로 보는 인간사에서 동체대비의 순간은 흔치 않다. 봉화 광부 두 분의 생환은 한마음 한뜻으로 그 흔치 않은 경우가 실현되는 기적이었다.

광부는 도시가 아니라 광산이 있는 지역에 모여 산다. 자원이 묻힌 곳은 대개 깊은 산중에 있다 보니 광산촌이라고 한다. 광산일은 장비며 기술이 나아졌다고는 해도 몸을 쓰는 일을 해야 한다. 빛이 미치지 않는 땅 속이 일터인데, 이 일터는 사람이 자원을 취하면 취할수록 더 깊숙한 곳으로 길을 내야 한다. 고되고 험한 일일 것이다. 그래서 광부의 일터를 '막장' 이라고 하는 것이리라.



영화 〈빌리 엘리어트〉의 한 장면.



연극 〈광부화가들〉의 한 장면.

땅 위에서 사는 존재인 인간들에게 땅속이 위험하기는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르지 않다. 금이나 보석을 탐하는 정도를 넘어 인류의 문명에 광산이 중요해진 것은 산업혁명 이후부터다. 대량생산과 도시화, 공장과 공산품의 시대가 되면서 광물 자원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졌고,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사회의 그늘을 드러내는 소설이나 영화에 광산촌과 광부가 등장하게 되었다.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처지도 일터만큼 낮지만, 목숨을 걸고 일하는 만큼 서로에 대한 강한 동료애와 소속감으로 뭉쳐있는 광부 사회는 남성 중심으로 그려지는 광산지역과 광부에 대한 묘사는 영국 영화 〈빌리 엘리어트〉(2000년, 스티븐 달드리 감독), 한국 영화 〈꽃피는 봄이 오면〉(2004년, 류장하 감독)과 같은 작품들에서 아주 전형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빌리 엘리어트〉는 1980년대 중반, 영국의 광산촌이 배경이다. 대처 정부가 20여 곳의 탄광을 폐쇄하고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영국 전역에서 광부 노동조합이 총파업으로 맞서던 시기다.

영화의 주인공은 광부의 어린 아들 빌리(제이미 벨). 파업에 앞장 서는 빌리의 아버지인 재키 엘리어트(게리 루이스)는 남자는 강해야하고, 강한 사람이 되려면 힘을 길러야 한다는 믿음을 가진 어른이다. 막내아들 빌리를 어려운 살림에도 돈을 마련해 체육관 권투 교실에 보내는 건 앞으로 거친 세상을 헤쳐 나가는 어른이 되려면 마땅히 힘을 키워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런데 빌리는 권투 대신 여자 아이들이 배우는 발레 수업에 매혹된다.

아들이 권투 대신 몰래 발레 수업의 유일한 남자 교습생이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아버지에게 빌리가 아무리 "발레 무용수는 운동선수만큼 단단하다. 웨인 슬립(영국의 유명 무용수)도 단단하다"고 주장한들, 발레 선생님이 빌리는 대단한 재능을 타고 났다고 설득하든 아버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1980년대 영국 광산촌 배경으로
발레리노 꿈꾸는 빌리 성장 그려
과정서 이웃들 '동체대비' 보여줘
노동자 예술 그려낸 '광부화가들'
예술 통한 자기 정체성 찾기 확인

그렇게 고집불통이던 아버지 앞에서 춤을 춰 보이는 아들의 간절한 몸짓이 드디어 아버지의 마음을 흔든다. 목숨 걸고 권투든 뭐든 승부를 하더라도 그보다 더한 힘과 의지를 보일 수 없을 만큼 결연한 빌리의 춤은 아버지에게는 존재를 뒤흔드는 시련이다. 취미를 넘어서는 재능 앞에서 기뻐하기에는 발레라는 건 단지 '남성은 권투, 여성은 춤' 이라는 고정관념을 넘어서 완전히 다른 세상, 다른 차원을 감당해야 하는 도전이기 때문이다.

그 뛰어난 재능을 살려주려면, 탄광촌 발레 선생님이 수업료 없이 가르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로열 발레 학교 정도는 가야 한다는 데, '로열' 이라는 건 광부 살림으로는 어림도 없이 비싸다는 뜻이고, 원한다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심지어 입학시험을 보는 것만도 광부 살림으로는 턱도 없는 비용이 든단다.

동네 발레 수업료도 감당하기 벅찬 형편인데다가 파업으로 당장 쪼들리는 상황에서 아들의 꿈, 아들의 재능, 아들의 의지는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다. 지금껏 파업을 함께 해 오면서 일터로 돌아가는 동료들을 '배신자' 라고 비난해 왔는데, 아들을 위해 현장으로 돌아가려는 아버지의 마음은 마치 무너져 내리는 갱도 앞에 선 것과도 같을 것이다.

그런 아버지의 고통을 마침내 이웃들이 알아주고, 다들 어려운 형편이면서도 백짓장 맞들 듯 빌리의 입시 비용을 모아주는 마음이 곧 '동체자비' 의 정신이요, 실천이다. 그 동체자비는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또 넘어서는 치열한 예술로 갚을 수 있을 뿐이다. 영화가 시작할 때 침대 위에서 뛰어 오르던 빌리가, 탄광촌 체육관에서 권투 대신 발레로 세상을 향해 도전장을 내밀었던 빌리가, 시험장에서부터 광산촌 출신이라고 업신여기는 시선을 무릅쓰고 갱도대신 발레를 선택한 빌리가 마침내 백조가 되어 무대 위를 날아오를 때, 아버지와 탄광촌 이웃들 모두는 함께 날아오른 것이고, 함께 성공한 것이다. 그리고 실화다.

영화에 이어 뮤지컬로도 많은 사랑을 받는 〈빌리 엘리어트〉의 작가인 리 홀의 다른 작품인 연극 〈광부화가들〉 또한 눈여겨볼만한 작품이다. 극단 차이무 출신 배우들이 지금 한참 무대에서 열연하고 있는 이 연극에는 '광부의 아들' 이 아니라 '광부들이 직접' 예술을 한다는 것의 어려움과 의미와 가치를 묻고 보여준다.

강신일, 박원상, 김중기, 문소리 등 스크린에서 잘 알려진 연기자들이 연기의 합을 맞추는 〈광부화가들〉은 1930년대 영국 동북부 뉴캐슬의 탄광지대 애싱턴 지역의 광부 예술가 집단의 실화를 무대에 올린다. 지역 노동조합 소속 광부들이 매주 모여 이런저런 공부를 하다가 '미술감상수업' 을 해보기로 하면서 막이 오른다.

평생 미술관 한 번 가본 적 없는 광부들에게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며 미켈란젤로든 별 감흥이 없으니 미술감상수업을 맡은 강사 라이언은 난감하기만 하다. 유명하다는 작품들을 미술관에서 실제 작품으로도 아니고 노조 회관에서 슬라이드로 보여주려던 수업 대신 차라리 광부들이 직접 그림을 그려 보기로 하면서 광부들만이 아니라 강사인 라이언에게도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

광부들이 그리는 세상은 그리스 신화나 성서 이야기, 아니면 궁정에서 노니는 왕족이나 귀족의 모습이 아니다. 바로 광부들 자신과 이웃의 모습이다. 좁은 갱도에서 일하느라 잔뜩 몸을 굽힌 노동자 자신, 바람 부는 세상에서 이웃들과 어울리는 자신들의 모습.

실제로 193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활동한 '애싱턴 우드혼 탄광 노동조합 미술감상반' 은 '애싱턴 그룹(Ashington Group)' 이라는 미술동인의 이름으로 여러차례 전시회를 열고, 강연회에도 초청 받으며 미술계에 새로운 시선과 방식으로 광부의 예술, 노동자의 예술을 알렸다.

이들 가운데 누구는 더 실력이 뛰어나기도 했고, 누구는 더 주목을 받기도 했으며, 그래서 그룹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라는 제안을 받기도 했다. 그렇게 미술계의 주목을 받은 올리버(강신일, 박원상 분)가 뛰어난 안목을 가진 부유한 미술 수집가 헬렌(문소리, 송선미 분)으로부터 재정적 후원을 받을 기회를 제안 받았을 때, 그는 독립적인 화가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광부의 아들로서 성공한 화가가 된 조르주 루오처럼 부귀와 영예를 누렸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올리버는 광부 동료들과 함께 하는 길을 선택한다. 더 이상 광부가 아닌 '예술가' 로 성공하는 것보다 '노동자 자신의 예술' 을 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광부가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화제가 되고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이 광부라는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드러내는 예술성을 성취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연극 내내 무대를 채우는 실제 인물들의 사진과 그들이 그려낸 작품을 통해 관객에게 전달된다.

대중들 모두에게 생환이라는 기적으로 감동을 전한 봉화 광부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갱도 안에서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갱도 밖에서는 반드시 자신들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리라는 믿음, 동체자비로 모든 이가 고난을 함께 하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내내 이 기적의 감동이 함께 하기를.

〈영화평론가〉

장엄하고 은은한 염불소리가

법당과 사찰을 감돌고 휘돌아 불자들의 심금을 울려야 할 깊고 심오한 염불소리! 가 지방 업자들의 단순 시공으로 이장 마이크시설 수준이 되어 염불 스트레스와 성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스님들에게 ..... 서울 토박이 낙원동 출신 베테랑 음향 전문가에게 맡기시면... 단 한번의 최고 시설로 나머 염불인생이 편하기 그지 없어 보물이 따로 없습니다.

20년간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1천여 사찰 시설했지만 고장없음, 만일 고장이 난다면 입소문 때문에 장사를 고만 두어야 함, 시설비 190만원 ~ 수 천만원까지

전국을 다니며 시설함으로 귀 사찰을 부근을 지날때 견본으로 일단 소리만 비교
(귀 법당소리와 비교시 장난감 수준 차이! 소리비교비용은 커피한잔!)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무선마이크 4개, 본품들은 시중에 없음 (특징 : 중국제 아닌 국산)

원톱 시스템 다목적 방생용
한번에 최고의 성능을 구입하시면 절약
속에 후회가 없다는 뜻!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무선 2 /
유선 2 /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색소폰
무선전용마이크)
실내 40평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정가(스탠드 포함) 89만원

시중에 없음
염불시 마이크와 2m
멀리서도 소리 월등
스탠드 분리형

시중에 없음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가격 65만원
▣ 한국사찰 각종 "재" 전문

방송장비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각종 방송시설
MASS Concert MICROPHONES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공희



계좌번호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 www.yangjikukak.com

구광국의
화엄으로 본 보로부두르대탑 ❼ 〈화엄경〉 통해 본 대탑 불상



▶ 한줄 요약
보로부두르대탑의 구조와 불상의 배치는 〈화엄경〉의 '십지품'을 재현했으며, 전체 회랑은 〈화엄경〉 '입법계품'의 가르침을 표현한 부조상이다. 이에 따라 보로부두르대탑은 화엄세계관와 사상으로 조성된 화엄경불탑이라 할 수 있다.

대탑 구조 · 불상, '화엄경 십지품' 재현

보로부두르대탑(Borobuduru Stupa)이 '화엄경탑' 임을 들어내기 위해 앞글에서 보로부두르대탑의 10층 구조와 〈화엄경〉 '십지품' 을 배대했다. 또한 대탑 4개 회랑의 부조상 배치와 52수행계위를 담고 있는 〈화엄경〉 '입법계품'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서로 연관돼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에는 보로부두르대탑 4방과 8~10층에 조성된 불상의 상징성을 파악하여 대탑이 화엄경탑임을 밝히고자 한다.

현재 보로부두르대탑 관리국은 대탑 부처상들의 명호를 크롬(Krom)의 주장인 "금강계만다라에 의한 불상의 배치"에 의존해 대탑의 5방불의 이름을 정하고 있다. 금강계만다라에서는 동서남북과 중앙에 5개 원단인 해탈단이 있다. 그중 중앙단은 비로자나불(지권인), 동쪽은 아촉불(촉지인), 남쪽 보생불(여원인), 서쪽 아미타불(선정인), 북쪽은 불공성취불(시무외인)이 있다. 각각의 단은 다시 5개의 원단인 월단을 가진다. 그 안에서 다시 동서남북과 중앙이 있고 각각의 5방불은 중심에 모셔지고 4대보살이 4방에서 애호하는 구조를 하고 있다.

이러한 금강계만다라의 부처님 배치와 보로부두르 대탑의 불상 배치를 배대하면 금강계만다라 해탈단 중앙단과 대탑의 정상 중앙탑을 서로 대응할 수 있는데 이곳에는 비로자나 부처상을 모신 흔적이 없다. 또한, 대탑 4방위 불상을 위한 동서남북에 해탈원단이 있어야 하는데 4방향에 원단의 흔적도 없다.

또한 대탑의 3층의 104존(각 면에 27존씩)불상, 4층에 104존, 5층에 88존, 6층에 72존, 총 370존 불상은 방형 외곽을 따라 배치돼 있는데 금강계만다라 상에서는 이 방형 가장자리는 금강계만다라 월단의 4섭지보살과 밖의 4공양보살 자리이다. 금강계만다라는 방형과 원을 주요 요소로 이용하여 불보살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데 불(佛)의 자리는 선이 아닌 더 신성한 원에 위치한다. 따라서 4방 부처상이 방형 외곽을 따라 배치돼 있다는 것은 금강계만다라와 관련없음을 의미한다.

금강계만다라와 연관이 없는 예는 더 여러 가지가 있다. 금강계만다라는 5불과 8공양보살, 16대 보살, 4섭불 그리고 4바라밀보살로 37존으로 이뤄졌는데 이 37은 절대적 수로 대탑에 등장해야 하는데 찾을 수 없다.

금강계만다라 부처의 수인과 대탑 4방향 부처상의 수인을 배대한 결과 6층까지는 일치하나 7층 64존의 부처상이 모든 방향으로 설법인을 수인하고 있어 6층까지 방향별로 선정된 수인과 완전히 다른 수인이다. 8, 9, 10층의 72존 불상의 경우도 비로자나불이라고 주장하나 지권인 수인이 아닌 전법륜이다. 금강계만다라와 수인이 불일치한다.

또한 대탑의 중앙 불상의 머리 스타일이 역시 금강계만다라 비로자나불과 일치하지 않는다. 비로자나불은 상투와 왕관 그리고 보석 장식이 대표적으로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불상들은 전혀 장식이 없는 여래형 복발형 불상이다. 이는 금강계만다라와 관련이 없음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보로부두르대탑 8층 부처상. 〈화엄경〉 '십지품' 의 구성에 따라 재현돼 있다.

불탑은 소의경전의 불타관에 따라 조성되며 그 경전의 주요 부처님이 그 불탑에 불상으로 등장한다. 이는 즉 불탑의 불상의 명호를 파악하면 어느 경전과 사상을 모티브로 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불상의 명호가 없을 경우 탑의 탑신과 부조상의 내용을 통해서도 불상의 명호를 파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유인즉, 경전이 한 사상 체제에서 탑의 기단 · 탑신 · 상륜부 구성의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로부두르대탑이 발견된 후 대탑과 직접적인 문헌적 자료가 지금까지 발견되고 있지 않아 대탑 불상명호를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앞에서 살펴본 '십지품' 을 재현한 10층 구조와 〈화엄경〉 '입법계품' 을 표현한 부조상을 주요 단서로 대탑의 불상 역시 〈화엄경〉 속 화엄사상과 불타관과 관련돼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보로부두르대탑의 불상은 10층에 걸쳐 설치돼 있기에 대탑의 10층 구조를 밝혀주는 '십지품' 을 통해서 각 층에 배치된 불상과 십지품의 각 계위에서 출현하는 부처님과 연관돼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대탑의 1층은 십지품의 초지 환희지(歡喜地)와 배대된다. "이 지(地)에 머무는 보살은 원력으로 많은 부처님을 보게 되며, 이른바 여러 백 부처님을 보며, 여러 천 부처님을 보며, 여러 백천 부처님, 여러 억 부처님, 여러 백억 부처님, 여러 백천억 부처님, 여러 억 나유타 부처님, 여러 백억 나유타 부처님, 여러 천억 나유타 부처님, 여러 백천억 나유타 부처님을 뵙는다. 모두 공경하고 존중하고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며, 의복과 음식과 와구와 탕약과 모든 필수품을 받들어 이바지하며, 모든 스님에게도 공양하고, 이 선근으로 아뇩다

塔 10층 구조, '십지품' 맞닿아
모든 층 불상들 수행계위 연관
전체 회랑은 '입법계품'과 연결

라삼먁삼보리에 회향하며 여러 부처님께 공양했으므로 중생을 성취하는 방법을 얻었다."
〈대방광불화엄경〉中

부지런히 정진하여 잠깐 사이에 백 삼매를 얻고, 백 부처님을 본다(한글대장경〈대방광불화엄경〉3, p.107). 이 지에서 친견하는 부처님이 대탑의 불상으로 모셨지만 현재는 없다. 하지만 불상을 조성하려했던 자리는 확인이 된다.

2층과 배대되는 2지 이구지(離垢地)에 머무는 보살은 서원하는 힘으로 많은 부처님을 본다. 현재 대탑에는 불상이 없으나 배치를 위한 회랑의 흔적을 볼 수 있다.

3층과 배대되는 3지 발광지(發光地)의 보살은 "서원하는 힘으로 많은 부처님을 보게 되며, 그 수행의 결과 유의법을 알게 되며, 부지런히 정진하면 잠깐 사이에 백천 삼매를 얻고, 백천 부처님을 본다." 이 지의 수행자가 볼 수 있는 부처님을 3층 4면에 104불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4층은 배대되는 염혜지(焰慧地) 보살은 부지런히 정진하면 잠깐 동안에 억 삼매에 들어가고, 억 부처님을 보게 된다.(위의 경전 p.154)

4지의 수행 보살이 볼 수 있는 부처님을 4회랑 네 방향에 총 104불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5층은 5지와 배대된다. 이 난승지(難勝地)에서는 앞의 지(地)들과 다르게 친견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공양하고 불법에 의존해 출가가 이루어짐은 부처의 세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보살이 부지런히 정진하면 잠깐 동안에 억 삼매에 들어가고, 억 부처님을 보게 된다. 대탑의 5층은 이 5지의 보살이 친견하는 부처님을 불상 88상으로 조성하였음으로 보인다.

6층은 6지와 배대된다. 6지 현전지(現前地)의 보살은 서원하는 힘으로 많은 부처님을 보게 된다. 6지의 보살이 친견하는 부처님이 6층 네 방향에 72불상으로 조성됨을 알 수 있다.

7층은 7지와 배대된다. 6지까지는 수행자가 부처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보게 되는 다양한 부처의 모습이 대탑의 4방향에 수인이 다른 부처상으로 표현되었다면, 7지 염혜지(焰慧地)에서는 수행자는 스스로 수행에 의해 번뇌를 떠나 적멸 선정에 들어 중생으로서의 특성과 방위를 떠났으므로 4방향에 같은 수인을 한 불상을 설치하였으므로 사료된다.

8층은 8지의 배대된다. 8지 부동지(不動地)의 보살은 이 지에 머물고는, 삼매의 힘으로써 한량없는 부처님을 항상 뵈오며, 여러 부처님에게서 여래의 깊고 깊은 법장을 얻고 차별한 세계들과 갖는 한량없는 법을 밝게 알게 된다.

이곳 8지가 7지까지와는 다른 경계임은 8층의 구조에서 나타나고 있다. 기존 방형의 구조와 달리 전체가 회랑이 없는 원형단이며, 그 위에 32개 원형 탑이 원을 그리며 설치된 구조로 각 탑에는 한 존의 전법륜 수인의 불상이 모셔져 있다.

전법륜 수인은 '여러 부처님이 8지 수행보살 앞에 나타나 여래의 지혜를 주는 내용' 과 일치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방형 구조에서 원형 구조로의 전환은 그전과 다른 경계의 세계를 드러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7지까지는 한 몸으로 행을 이루었으나 8지부터는 '한량없는 몸의 행' 으로 이루어지며, 한량없는 부처님을 친견하는데 이는 대탑에서 처음과 끝이 없이 이어지는 8층 32개의 불탑 배치 구조와 배대됨으로 보인다.

대탑의 9층은 9지 선혜지(善慧地)와 배대된다. 이 지의 보살은 부처님 경지에 들어가서 여래를 친근하고 보살들의 매우 깊은 해탈에 들어가서 항상 삼매에 있으면서 여러 부처님을 뵙고 잠깐도 떠나지 아니하며, 낱낱 겁마다 한량없는 부처님과 한량없는 백 부처님, 한량없는 천 부처님과 내지 한량없는 백천 억 나유타 부처님을 뵙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며, 여러 부처님 계신 데서 가지가지 문난하여 설법다라니를 얻어 그러한 선근이 점점 더 밝고 깨끗해진다.

보로부두르대탑 10층은 10지 법운지(法雲地)와 대응된다. 10지의 보살의 몸에서 광명이 발하고 특히 정수리의 광명이 부처님 발바닥으로 들어가고 다시 부처의 양미간에서 빛이 발하여 이 지의 보살 정수리로 들어가 백만 가지 삼매를 얻어 부처님 경계에 들어가 열 가지 힘을 구족하고 부처님 가운데 섞이었다. 이 삼매에 들 때 십억 부처세계의 티끌 수 같은 보살들이 모두 부처님의 신력으로 와서 증명하는 것은 시방의 모든 세계에서도 다 같이 일어난다.

대탑의 정상인 10층은 16개의 불탑이 전법인수인 불상을 모시고 원형을 유지하며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부처님을 묘사하고 있음으로 보인다.

위 십지품의 각 지에서 살펴보았듯이 대탑 각 층의 불상들은 십지품에서 수행하는 수행자가 각 계위에서 수행력의 힘과 과보로 볼 수 있는 부처님임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보로부두르대탑의 구조와 불상의 배치는 〈화엄경〉의 '십지품' 을 재현하였으며, 전체 회랑은 〈화엄경〉 '입법계품' 의 가르침을 표현한 부조상임으로 보로부두르대탑은 화엄세계관와 사상으로 조성된 화엄경불탑이라 할 수 있겠다.〈끝〉

〈동국대 박사〉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23-0708
010-7384-1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허망한 생각에서 단상 이견이 나온다

〈斷常〉 〈二見〉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㊽ 단상과 이견

〈원문〉 "세존이시여, 괴로움이 소멸된 진실한 법인 멸제(滅諦)는 불가사의하여 일체중생들이 마음으로 생각을 붙일 바를 뛰어넘었으며, 일체 아라한이나 벽지불들의 지혜로도 헤아릴 수 있는 경계가 아닙니다. 마치 소경으로 태어난 이가 모든 빛깔을 보지 못하며, 태어난 지 이레 된 아이가 해를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이 괴로움이 소멸한 진실한 법(苦滅諦)도 그와 같아서 일체 범부들이 마음으로 생각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이승의 지혜로 헤아릴 경계도 아닙니다.

범부의 마음에는 뒤바뀐 두 가지 소견이 있고, 일체 아라한·벽지불의 지혜는 청정하다 해도 멸제를 증득한 것은 아닙니다. 변견(邊見)이란 것은, 범부들이 5수음(受陰)에 대하여 '나'라는 허망한 소견으로 고집하여 두 가지 소견을 내는 것을 말하니 곧 상견(常見)과 단견(斷見)이 그것입니다. 모든 변천하는 것(諸行)이 항상함이 없다고만 보는 것은 바로 단견이고 바른 소견이 아니며, 열반이 항상하다고 보는 것은 상견이고 바른 소견이 아니니, 허망한 생각으로 보는 탓으로 이와 같은 소견을 내는 것입니다.

이 몸의 여러 근(根)에 대하여서는 분별을 내어 생각하되, 지금 있는 법이 망가지는 것만 보고, 다음에 다시 일어나는 것은 보지 못하므로 단견을 내나니, 허망한 생각으로 보는 탓이며, 마음이 서로 계속하는 데 대하여서는 캄캄하여 이해하거나 알지 못하고, 잠깐 사이에 의식(意識)의 경계를 알지 못하므로 상견을 내는 것이니, 허망한 생각으로 보는 탓입니다.

이렇게 허망한 생각으로 보는 것이 저 참뜻에는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여 잘못된 생각으로 분별하되 단(斷)이라 하거나 상(常)이라 합니다.

뒤바뀐 중생들은 5수음에 대하여 항상함이 없는 것을 항상하다고 생각하며, 괴로운 것을 즐겁다고 생각하며, 나라고 할 것이 없는 것을 나라고 생각하며, 부정(不淨)한 것을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체 아라한·벽지불들의 청정한 지혜를 가진 이도 일체지(一切智)의 경계와 여래의 법신에 대하여는 본래부터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강설〉 이 대목에서는 범부들의 뒤바뀐 소견에 대하여 주의를 준다. 괴로움이 소멸한 진실한 법(苦滅諦)이 있는데 소경이 빛깔을 보지 못하고 갓난아기가 해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뒤바뀐 소견 곧 허망한 생각 때문에 괴로움이 소멸한 진실한 법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수음(五受陰)은 오취온(五取蘊)이라고도 하는데 오온(五蘊)을 달리 부르는 말이다. 중생이 과보를 받는 법이므로 총괄하여 수(受)라 하는 것이다. 〈능엄경(楞嚴經)〉에는 "아난아 이 오수음은 다섯 가지 망상이 성립하는 것이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단견이나 상견을 가져 그릇된 견해를 가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단견이란 있는 것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상견이란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곧 유(有)와 무(無) 어느 한 쪽에 치우쳐 식심에 떨어져 그릇된 판단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허망한 생각이다. 멸성제(滅聖諦)에 갖추어진 상(常), 락(樂), 아(我), 정(淨)의 열반 4덕을 모르고 오음에 대하여 뒤바뀐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또 오음에 대하여 뒤바뀐 생각이란 다시 말하면 〈반야심경〉에 나오는 '오온개공'을 모른다는 것이다. 인무아(人無我)와 법무아(法無我)를 모르기 때문에 오온에 집착하여 오온이 '나'인 줄 알고 법신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다.

일체지(一切智)라 말은 경론에 따라 네 가지의 뜻으로 설명된다. 첫째는 부처님을 지칭하는 말로 사람을 뜻한다. 완전한 지혜를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라는 뜻이다. 두 번째는 부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을 아는 지혜라는 뜻으로 이때는 지혜를 의미하는 말이 된다. 셋째는 모든 것을 아는 것 자체를 뜻하는 말로 지혜가 나오는 원점을 뜻하는 말이 된다. 네 번째는 모든 것이 공하다고 아는 것을 지혜라 한다. 지혜가 공을 뜻한다. 〈끝〉

〈반야불교연구원장〉

깊은 수행과 함께 기초도 튼튼해야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㊶ 선정수행 조건과 깨달음 위한 조절법

불교의 궁극적 목표 성불 위해선
선정수행 다섯 가지 조건 갖춰야

선정수행 잘 할 수 있는 5가지 조건
- 계율(戒律)를 잘 지켜 나가는 것
- 음식과 의복 지혜롭게 갖추는 것
- 참선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
- 세속 불필요한 모든 緣 끊는 것
- 올바른 스승을 가까이 모시는 것

깨달음을 얻기 위한 마음가짐
- 보리심과 서원을 일으키는 것
-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 대신심·대분심·대의심 일으키는 것

깨달음 얻기 위해 몸·마음 조절
- 첫째, 음식을 조절하고,
- 둘째, 수면을 조절하고,
- 셋째, 몸·호흡·마음 조절

몸과 호흡과 마음을 조절할 때 참선에 들어갈 때와 있을 때와 나올 때, 양상 서로 다른 구분 조절하는 방법에서는 3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게 중요
- 3가지 고르지 못해 조절할 땐 몸과 호흡, 마음에 순서 없이 부조화된 것부터 여법히 조절

결론

지금까지 선정삼매를 이루기 위한 다섯 가지 조건과 깨달음을 위한 몸과 마음의 조절법 등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불교의 궁극적 목표인 성불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정수행을 잘 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첫째가 계를 잘 지켜 나가는 것이고, 둘째가 음식과 의복을 지혜롭게 갖추는 것이며, 세 번째가 참선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 네 번째는 세속의 불필요한 모든 연(緣)을 끊고, 다섯 번째는 올바른 스승을 가까이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첫 번째 마음가짐은 보리심과 서원을 일으키는 것이며, 두 번째 마음가짐은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세 번째 마음가짐은 대신심·대분심·대의심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몸과 마음을 조절하는 법에서는 첫째, 음식을 조절하고, 둘째, 잠을 조절하고, 셋째, 몸과 호흡과 마음을 함께 조절하는 것입니다.

몸과 호흡과 마음을 조절할 때는 참선에 들어갈 때와 참선 중에 있을 때와 참선에서 나올 때의 양상이 서로 달라 세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되고 있지만 조절하는 방법에서는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참선 중에 몸·호흡·마음 이 세 가지가 고르지 못하여 조절할 때는 몸·호흡·마음에 순서 없이 부조화가 된 것부터 먼저 여법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보리심과 서원을 일으키고 과거세에 지은 영겁의 악업을 참회하여 장애를 없애고 몸과 호흡과 마음을 올바르게 조절하여 참선을 할 때 몸과 호흡과 마음에 막힘이 없도록 조화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깊은 선정·삼매에 들어 깨달음을 얻어 성불할 수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깊고 높은 수행법이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가장 기본적인 수행법이나 예비적인 수행법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기초가 튼튼히 다져지지 않으면 결코 깊은 수행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진심법문에서 말씀드린 선정삼매를 얻을 수 있는 인연 조건들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몸과 마음의 조절 방법들에 대해서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실천을 해 나간다면 분명히 크고 깊은 대도를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부할 수 있을 때 공부합시다! 감사합니다. 다같이 성불합시다! 〈끝〉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㊽ 한밤의 슬기로운 님의 경

'지금'에는 형체도 이름도 없다

"이미 지나간 것, 그것은 이미 버려졌고 또한 미래는 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현재 일어나는 상태를 그때 그때 잘 관찰하라. 정복되지 않고 흔들림 없이 그것을 알고 수행하라. 이와 같이 열심히 밤낮으로 피곤을 모르고 수행하는 자는 한 밤의 슬기로운 님, 고요한 해탈의 님이라 불리리."

속았다는 말을 자주 한다. 다음부터는 속지 말아야지 하며 다짐도 한다. 그리고 다시 속는다. 머쓱해서 웃어보아도 웃는 것이 아니다. 도돌이표 같은 수행이 한심하지만 멈출 수도 없는 노릇이다. 나름은 열심히 정진하고, 경을 보는 알음알이도 적지 않고, 나름 체득도 하고, 법문을 들으면 금방 이해도 한다. 이러니 참으로 갑갑하고 속상하고 무엇을 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얻어질 듯 말 듯해 답답할 것이다.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기는 매한가지이고, 속는 지점은 늘 비슷하다. 아예 모르면 포기 하겠지만 모르는 것도 아니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꼴이 되어버린다. 그때 지금까지 사실 그대로 흐르는 흐름에 누가 끼어들어서 옳고 그름으로 혼란스럽게 하는지를 알게 되는 날이 생긴다. 그러고 보니 개입한 옳은 방향이란 없었고, 개입하지 않은 틀린 방향도 없었던 것인데 전전긍긍하면서 지내온 날들이 떠올라 헛웃음만 나올 뿐이다. 돌이켜보면 오온의 개입이 있건 없건, 시비[是非]를 하건 말건 상관없이 모든 일들이 '사실 그대로'였던 것이다.

그러나 인식하는 '사실 그대로'와 있는 그대로의 '사실 그대로'가 다르다는 것을 뭇 삶은 알기 어렵다. 예를 들어, 사과를 사물로 바라본다고 할 때, 전자(前者)는 눈에 투사된 사과를 진짜 사과라고 말하는 것이고, 후자(後者)는 눈에 투사된 사과를 그냥 사과로 두는 것이다. 사과를 보는 것에 전자와 후자는 다른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전자는 사물의 어떤 고정성에 묶여 사과라는 실제를 만들어 사과가 아닌 것과 사과를 구분하고, 획일성을 유지하는 마음의 지배를 받아 그것에 따라 인지하여 다른 관점을 수용하지 못하게 한다. 후자는 사과라는 이름의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그 이름의 변화에 대해 어떠한 고정성에 묶여 있지 않으므로 그것이 불려지는 그것만을 인지한다. 지금 보고 있지만 변해가는 인지는 계속 변화한다고 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그 보는 지금의 인지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둘 다 사과라는 똑같은 이름의 사물을 보고 있지만 고정된 이름으로 보고 있는 것과 변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은 현저하게 다른 이름이 되는 것이므로 같은 이름이라 말하지 못한다. 변화한다는 것은 이미 변한 것이지만 물질의 연속성에 묶여 있으면 이미 지나갔다는 의미를 온전한 파악으로 가지지 않는 것이다.

이미 지나갔다는 사실은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으니, 어느 것과 다시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나타나지 않은 미래의 무엇과도 연결될 수 없다. 세상에서 연속성을 가지는 물질은 생겨날 수도 없고, 존재하여 있을 수도 없다. 그러나 뭇 삶은 물질의 연속성으로 보고 연결하여 근심 아닌 근심을 하게 된다.

뭇 삶은 연속성과 찰나를 자신의 인식에서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여의치 않으면 당황하여,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살피지만 인지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사물의 연속성과 찰나를 어느 관점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 뒤죽박죽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연속성은 물질 본연의 불변[如如]을 말하는 것이고, 찰나는 물질의 성질을 말한다. 물질의 성질을 연속성으로 보든지 물질의 본연을 찰나로 인식하게 되면 오류가 나타나고, 이미 지나간 것에서 무엇이 없어지지 않았고 무엇이 없어졌는지를 알지 못한다. 사실 그대로[如實]는 언제나 온전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개체에 의해 변화하는 것이 없다. 모든 일에서 이렇게 알고 이렇게 관찰한다면 흔들림 없는 앎이 무엇이고, 피곤하지 않는 앎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끝〉

〈(사)여시아문 선원장〉

꿈이 이루어지는 도량 함안 마애사

천년의 물 흐름 속 영험한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청룡대불

지성으로 기도드리면
반드시 꿈이 이루어지는 기도도량입니다

미리 부처님 친견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어 발원하는 모든 일들
원만성취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10월 완공 예정
2024년 1월 1일 갑진년(청룡의 해) 새해 점안법회 예정
055-585-5114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마 애 사



함안 마애사 청룡대불

2022년 12월 21일 수요일 | 불기 2566년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17호 | 17 | 전면광고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드는 이가 있으면
설사 커다란 불 속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불이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부지 : 20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밑 주차가능 - 매가 : 40억
- 위치 : 경기 - 부지 : 450평
- 건평 : 약 100평
- 산 밑 주차가능 - 매가 : 30억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 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천년사찰 터 다량 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 잡종지 내의 대지 143평
- 가액 : 1억2천5백만원(조정 가능)
- 노스님 몸 아픈 관계로 급 양도
- 가전제품 보시 - 당일법회 가능
- 현재 운영중입니다.
- 법사님, 보살님도 환영합니다.

010-4180-17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내 지하철 역세권(150m)
- 3층 건물에 3층 약50평, 옥상 사용가능
- 10년 이상 운영(타지역 이주 관계)
- 도시가스 난방, 가전제품(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집기 일체)
- 방편있는 스님 유리,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5백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5백만원

010-9231-6825

멋진사찰(급급)안내

-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 대지 : 약 173평
- 건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 4~5평
- 요사채 : 1동 약 23평, 1동 약 25평, 2층 약 6평
- 가액 : 3억2천만원에서 5천만원 빼드림

010-4999-5622

선불사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예천군 감천면
- 대지 : 대지 70평
- 법당, 요사채 (임법당)
- 가액 : 5천만원

010-6243-1627

사 찰 안 내

경남 합천군 대병면 합천호수로 합천호수 아래 무학대사 자연동굴 80평(옛굿당)이 옆에 있습니다.

- 대지 : 410평, 임야 217평
- 요사채 52평, 법당 16평 가건물
- 가액 : 3억 2천만원

010-2078-959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유계리
- 계곡물 흐르는 청정지역
  대지 : 388평
- 대웅전 요사채 1동
  산신각 용왕당 1동
- 가액 : 3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4123-7594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거제시
사찰 법당 3채 및 요사 1채
대지 : 136평 규모
가액 : 3억원
가격 절충 가능

010-4509-4061

사 찰 안 내

- 익산마을 끝자락 조용한 곳
- 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 산신각 요사채 문화재급 약사여래불 모심, 법당집기 일체 포함
- 사유지 포함 약 1,000평의 법당, 3억 5천만원

010-5581-3081

조그마한 사찰 양도 및 전·월세 안내

- 보증금 : 2천만 원
- 매 월 : 20만 원
- 몸만 오시면 됨 (일체 구비 됨)
- 양도합니다.

010-3938-4646

양평 전원주택지 및 선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331-24번지 일대 (100평, 200평, 360평 등 평수 다양)
- 특징 : 서울에서 1시간 거리, 진입도로 포장 완료, 토목공사 완료, 전망 및 조망 매우 좋음(평당 70만원)
- 참선(명당)자리 : 약 2500평 (계획관리+보존임야)
- 특징 : 개인 수행 정진하기 좋고 조용함, 필요시 인·허가 가능(매수자가 비용 부담)

향후 투자성 A급 평당 15만원,
계획관리 약 1400평 나머지 보존임야

010-2215-3657

부산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온천장 시장 바로 인근
- 2층 약 50평(방, 친견실)
- 시설비 3천 2백만원(2개월 전 완전수리)
- 보증금 2천만원, 월70만원
- 개인사정으로 급 양도

010-3582-8975
010-5511-7000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생활안내 · 불자정보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디자인이 산뜻해 졌습니다.
글자 크기가 커졌습니다.

POINT 01 광고 가독성과 정보전달을 위하여 크기를 **1.5**배 키웠습니다.

POINT 02 불자정보
기본 5cm ➡ **6**cm로 커졌습니다.

POINT 03 생활안내
기본 4cm ➡ **6**cm로 커졌습니다.

문의 | 010-4648-8200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 - 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합장주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 15,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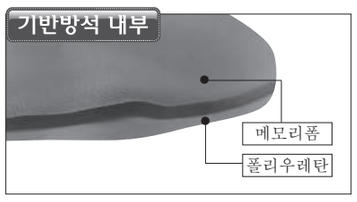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제품의 특징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4만원/회 ◆가로 8㎝: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417호 | 18 | 전면광고

계를 지키면 늙도록 편안하고 잘 지내게 되나니, 지혜는 사람의 보배요, 복은 도둑맞는 법이 없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출요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사 찰 행 사 전 문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범음 · 범패

범음범패, 각단예불의식, 천수바라, 작법, 법고, 송주북, 정근북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1528-7 금륜사
전화 010-7579-82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천도재, 49재 회향

혼자서 여법하게 봉행합니다
바라, 피리, 극락무
올려드립니다.
010-2204-8375



추천 - 책이름 검색 해보세요 !!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광복사 결혼상담소

짝을 만나 행복을
은평구 수색로 22길 20
010-5624-1365
02-306-7988

세종 명리심리 철학원

사주, 신년운세, 궁합, 택일, 작명
자녀진로, 적성, 진학, 취업, 진로
010-6593-2953
문자, 카톡 상담 환영합니다
톡상담 ID : sejong77

불상제작(용품) 전문점

(오래된) 불기, 불서 고가매입
법당철거, 법당제작, 탱화, 동북, 개금
-사찰 사고 팝니다-
010-9177-7842

강원도와 충북 제천 사이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청정지역에 위치한 사찰(절)에서
염불기도로 업장은 소멸하고 몸과 마음은 힐링하며 후회 없는
회향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부처님처럼 모시겠습니다.
*나이, 학력, 성별 상관없이 출가를 하실분 모십니다.
연락처 010-8945-1424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한국불교태고종 용천사

- 초하루법회(매주 첫째주 일요일)
- 문도회법회(오전 10시) 기도도량 / 천도제
- 육효학 강의(4개월 완성) 비구스님, 비구니스님
- 위치 : 경북 칠곡군 북삼읍 숭산로 185-53

054-972-1080
010-2622-4345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영험약수"로 힐링(치유)가능

◈ 효능 : 변비, 오십견, 몸 아프신 분 ◈
◈ 식약청 46가지 검증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적천리 113 미륵암
지평대사 : 033-336-2309 / 010-4804-2309
※ 몸 아프신 분들 천도재 해드립니다.
※ 땅 양도 안되시는 분들은 연락주십시오.

이젠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
hyunbulnews.com에서도
불자정보 · 생활안내를
생활안내
찾아보실 수 있어요
NAVER 불자정보·생활안내 검색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백룡사
• 주 지 : 지오 스님 (속명 : 강종기)
• 주 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용산리 421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9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영명사
• 축산 영명사 신도회
• 주 소 :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로251-11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전화 한번에 끝!
자동이체로 전환하세요
(02)2004-8212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 · 불자정보
(사찰, 포교당 양도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교의 현대화 —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kakao Ch 카카오톡 채널에 현대불교신문 검색
NAVER 현대불교신문



김서정의
절집나무이야기

㉔ 충남 서산 간월암 소사나무

오랜 바람으로 깨달음을 얻는다

절에 갔으면 절을 해야 한다. 그래서 대웅전을 찾는데 간월암 편액만 보인다. 오래 고민할 필요는 없다. 갯벌 지나 올라온 곳에서 본 사철나무 건너 팽나무 뒤 종무소 빼고는 가장 큰 전각이다. 안에서 나는 스님의 운율이 작은 섬을 두루 돌아 안면도 넘어 서해바다까지 갈 기운이 느껴지지만, 일단 조심스레 문을 연다. 고개 숙여 서 있던 사람들이 바람결을 느낀 듯 얼굴을 든다. 보살님이 손을 젓는다. 문턱 넘어 한 발짝도 디디지 못하고 바람 소리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분히 문을 닫는다.

오랜 바람에 씻겨 나간 단청들이 빛바래 보인다기보다 나무 속살을 보여주고 있어 정겹다. 그 사이 새겨진 거북이와 물고기들이 바닷바람을 직격으로 맞는 전각을 지탱하기 힘들지 않을까 공감해보며 위를 올려본다. 팔작지붕 용마루가 굵은 줄에 감겨져 있다. 태풍이 몰아닥쳐도 덜컥거리지 않을 듯 견고하다. 그래도 불안하다. 두리번거리며 마당을 서성이니 소사나무가 두 그루 보인다. 언뜻 연결이 된다. 인천시 영흥도에서 본 소사나무 군락지 쓰임새는 바닷바람을 막아주는 방풍림이다.

방풍림으로 적당한 나무는 키가 크고 빨라 자라야 한다. 바람을 이기는 힘이 커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낙엽수보다 상록수, 그 중에서도 수명이 긴 침엽수를 많이 선택한다. 하지만 소사나무는 잎의 수명이 1년인 낙엽수이고, 잎이 넓은 활엽수이고, 키가 10m가 넘지 않는 관목 혹은 소교목이다. 그래도 소사나무가 방풍림으로 인식된 건, 영흥도 주민들이 농지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수종을 심어봤는데 다른 나무들은 죽고 소사나무만 살아남았단다.

자작나무과인 소사나무 이름은 서어나무의 한자 서목(西木)에서 왔다고 한다. 서어나무보다 잎이 훨씬 작고 키도 작아서 이름 앞에 작을 소(小) 자를 붙여 소서목(少西木)이라고 했다가 '소서나무' 를 거쳐 '소사나무' 로 불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사나무는 서어나무와 같이 언급되는데, 숲이 안정적으로 세팅된 극상림의 대표 수종인 서어나무 속에 속하는 대표적인 나무가 소사나무, 개서어나무, 까치박달 등이다. 이 나무들은 잎과 열매 모양이 비슷해서 구분이 어려운데, 소사나무는 서어나무보다 나무껍질 표면이 거칠거칠하다.


소사나무 그림자가 흙속 뿌리처럼 보인다.

간월암으로 직진하는 해풍을 막아줄 크기도 숫자도 아니지만, 참새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조잘거리는 그곳 소사나무 줄기를 보니 역시 거칠면서 뒤틀려 있다. 나무는 바람에 저항하지 않고 바람의 힘에 순응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나무는 목질부를 이루는 셀룰로오스 즉 세포 섬유질로 바람 에너지를 흡수하게 한다. 그러다 보니 찢겨 나가는 건 살점 떨어지듯 아프지만 미련을 버리고, 펀치를 맞은 듯 패인 구석은 붕대로 감쌀 겨를 없이 또 부는 바람이 잠시 머물게 한다. 오로지 기나긴 생존을 위해 부딪치는 세월을 뛰어넘지 않고 온전히 갈 길만 가는 소사나무, 그 가지 끝에 갈기갈기 찢어진 듯한 잎 모양의 누런 과포가 열매를 흔들며 붙잡고 있다.

그 바람의 끝을 보러 육지보다 작은 소원등들이 걸려 있는 간월암 끝으로 간다.

절에 가면 부처에게 절을 해야 하는데, 49재를 지내는 듯한 분들이 있어 절을 못한 게 아쉬워 소원등을 보며 마음속으로 소원을 빈다. 혹 결례로 망자가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하는 불행은 막아 달라고 말이다. 그래도 몰라 바다를 등지고 여전히 곡이 흘러나오는 간월암을 향해 주문을 보낸다. 극락왕생. 간월암 주소는 충남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1길이다. 부석면(浮石面)은 마을이 천수만의 적돌강에 떠 있는 커다란 바위 같다고 해서 붙여졌다는데, 본래 섬이었던 간월도도 이제 방조제로 연결된 육지가 되었고, 달이 차고 기우는 때에 따라 섬도 되었다 육지도 되었다 하는 간월암, 애매모호한 공간의 작은 섬 전체가 절인 간월암(看月庵)과 간월암(看月岩), 그 경계는 있는가, 없는가?

오래전 바람에 눈을 떠도 섬인 게 분명했을 간월암은 피안도(彼岸島), 피안사(彼岸寺)라고 불린 적이 있단다. 간월암 이름과 관련해서는 서산에서 태어났다는 무학 대사가 이곳에서 수행을 하던 중 둥두렷이 떠 있었는지 가늠만 해보지만 달을 보고 깨달음을 얻어 간월암이라고 한단다. 하지만 조선 개국에 참여한 무학대사를 잊은 듯 억불정책을 폈던 조선 시대에 이곳은 양반의 묏자리가 되었단다. 이후 1941년 만공선사가 중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데, 그 계기는 무학대사가 심었던 귀목나무가 죽었다 살아난 걸 보고 실천했다는데, 식물 이름에 귀목나무는 없고, 느티나무 방언이라는 걸 안다는 것, 그 경계는 있는가, 없는가?

사람 사는 동네를 보호하기 위해 조성하는 방풍림, 그 사이에도 바람은 분다. 생명을 불어넣는다. 그 생명의 에너지가 경계 없이 드나드는 간월암, 그곳에 가면 바람으로 깨달음을 얻지 않을까? 달이 차도 달이 기울어도. 〈끝〉 〈작가 겸 숲해설가〉



승한 스님의
불교시 감상

㉓ 손택수의 '모기 선(禪)에 빠지다'

'이 뭣꼬', 우리는 왜 사는가?

죽비(竹篦)
열대야다 바람 한 점 들어올 창문도 없이 오후 내내 달궈놓은 옥탑방 허리를 잔뜩 구부러트리는 낮은 천장 아래 속옷이 후줄근하게 젖어 졸다 찰싹, 정신을 차린다 축축 늘어져가는 정신에 얼음송곳처럼 따끔 침을 놓고 간 모기

불립문자(不立文字)
지난밤 읽다 만 책장을 펼쳐보니 모기 한 마리 납작하게 눌려 죽어 있다 이 뭣꼬, 후 불어냈지만 책장에 착 달라붙어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체액을 터트려서 활자와 활자 사이에 박혀 있는 모기, 너도 문자에 눈이 멀었더냐 책장이 덮이는 줄도 모르고 용맹정진 문자에 눈먼 자의 최후를 그렇게 몸소 보여주는 것이냐 책 속의 활자들이 이 뭣꼬, 모기 눈을 뜨고 앵앵거린다

향(香)
꼬리부터 머리까지 무엇이 되고 싶으냐 질푸른 독을 품고 치잉칭 또아리 튼 몸을 토막토막 아침이면 떨어져 누운 모기와 함께 쓰레받기 속에 재가 되어 쓸려나가는 배암의 허물

은산철벽(銀山鐵壁)
찬바람이 불면서 기력이 다했는가 은빛 날개 날쌘 몸놀림이 슬로우모션으로 잔바람 한 줄에도 휘청거리다 싶더니, 조금 성가시다 싶으면 그 울음소리 엄지와 집게만을 가지고도 능히 끌 수 있다 싶더니, 갈수록 희미해져가는 울음소리, 사라진 그쯤에서 잊고 살던 시계 초침소리가 들려온다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 화장실 물 내려가는 소리, 간간이 앓아 누우신 아버지의 발은기침 소리도 계단을 타고 올라온다 저 많은 소리들을 저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다니"

(손택수 시집, 《호랑이 발자국》, 창작과비평사, 2003)

아이고, 모기가 선(禪)을 하다니, 그놈 참 기특하다. 갸륵하다. 미물이 아니라 영물(靈物)이다. 장 콕토의 시 '귀' 같다. "내 귀는 소라 껍질/ 바다의 파도 소리를 듣는다." 장 콕토는 '귀' 라는 작은 우주로 '바다의 파도' 라는 우주의 소리를 들어냈다. 손택수 시인 역시 '모기' 라는 하찮은 미물[속(俗)](손바닥을 때려죽여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에서 선(禪)이라는 최고의 승(僧)을 발견해냈다. 이렇게 하찮은 것에서 성(聖)과 우주를 발견해내는 것이 '시인의 눈' [시안(詩眼)]이다. 변방의 변방을 중심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시인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다. 기쁨이다. 사치(?)다.

와-, 그런데 손택수 시인은 절집 속내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었을까? 가톨릭 신자로 알고 있는데 젊은 나이에(이 시는 그가 30대 초반에 펴낸 첫 시집에 실려 있다) 어떻게 그리고 절집 풍속과 어려운 불교 용어들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었을까? 손택수 시인이 가톨릭 신자라는 것을 알기 전에 필자는 그의 첫 시집인 〈호랑이 발자국〉을 읽고 그가 틀림없이 불자일 것이라고 단정해버렸다. 큰 절, 부방장 스님, 석종, 부도, 돌종, 중, 참선, 죽비, 불립문자, 이 뭣꼬, 용맹정진, 향, 은산철벽, 설법, 골굴사, 관음, 지장, 약사 부처, 경, 팔만대장경, 사경, 금강경, 반야심경 …. 모두 그의 첫 시집 안에 들어 있는 불교용어들이다. 45개가 넘는다. 이 정도 용어를 알고, 그 용어를 용법에 맞게 정확히 쓰려면 불교에 대한 상당한 내공이 없이는 그 용어들을 쓸 자리에 정확하게 쓸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손택수 시인의 첫 시집을 읽고 그가 틀림없이 불교신자일 것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었다.

시로 돌아가자. 시골 태생인 필자는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모기의 밥이 되어 살았다. 어떤 날은 너무 심하게 모기 밥이 된 탓에 온몸이 간지럽고 부어올라 병원까지 간 적도 있다. 그때는 모기가 보이는 즉시 "때려잡자 공산당"이 아니라 "때려잡자 모기"였다. 어쩌면 그때부터 모기와 공산당은 어린 필자에게 이퀄 관계[주적(主敵)]였는지도 모른다. 그때나 지금이나 모기는 보이는 족족 때려잡아 죽이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런데 손 시인은 그런 모기를, 자신의 팔뚝에 입(침)을 꽂아 놓고 (맛있게) 피(밥)를 빨아먹는 모기를 '후줄근하게 늘어진 자신의 정신에 얼음송곳처럼 따끔한 침' 을 놓는 죽비로 승화시켜놓았다. 시인이 아니면 도저히 상상해낼 수 없고 발견해낼 수 없는 비유이고 상징이다(시인들은 아마 이 비유와 상징의 즐거움 때문에 시 쓰는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지도 모른다).

불립문자 또한 어떤가. 불립문자는 "불도(佛道)의 깨달음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므로 말이나 글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밤 읽다 만 책장을 펼쳐보니 모기 한 마리가 납작하게 눌려 죽어 있다". 필자도 어린 시절 국어책을 읽다가 잠든 다음날 아침, 데칼코마니처럼 책 양쪽 면에 납작하게 눌려 죽어 있는 모기들을 많이 보았다. 하지만 필자는 여태껏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 하물며, 그것을 성스런 우주[선(禪)]로 읽고, 그 경계까지 모기의 도(道) 닦는 모습을 끌어올린다는 것은 상상도 못해봤다. 그런데 손 시인은 그것을 보고 (어릴 때인지, 시인이 되어서 인지는 모르지만) 손 시인은 바로 화두 하나를 집어 들었다. "이 뭣꼬". "무법가득분(無法可得分)". "이 뭣꼬". "이 뭣꼬". (끊임없이) 의심에 의심을 더하는, 최고의 간화선(看話禪) 화두 하나를 집어 들고 '용맹정진' 했다. 손 시인이 얼마나 치열하게, 그리고 용맹하게 세상을 살아오고,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진솔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향' 과 '은산철벽' 에서도 그런 손 시인의 삶은 (부처님의 손바닥처럼) 감춘 것 하나 없이, 군더더기 하나 없이, 깨끗이 보여준다. 아무리 높은 도라도 도로서의 의무를 다하면 쓰레기에 불과하다. 도통했다고 오도송을 읊는 자신의 육신 또한 (내다버려야 할, 벗어버려야 할) '배암의 허물' (재)에 불과하다. 손택수 시인은 한창 젊은 나이에, 아니 너무 일찍 세상을 알아버리고, 자신을 알아버리고, 도를 알아버렸다.

불립문자, 그러기에 손택수 시인은 그 경지를 글(시)로 말할 수 없다. 글 너머에 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 또 다른 글이 있고, 시 너머에 시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또 다른 시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젊은 손택수 시인을 그렇게 아프게 했을까. 도로 가게 했을까. 손택수 시인은 지금도 그것을 "이 뭣꼬", "이 뭣꼬" 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미물에 불과한 모기 한 마리의 생로병사를 이렇게 정밀하게, 그리고 생생하게 묘사한 세밀화는 본 적이 없다. 한 미물의 깨침 과정도 이렇거늘, 인간이라는 이름의 우리들은 과연, 지금 어떤 미물의 삶을 살고 있는가. 〈불교문학연구소장〉



문현공 교수의 죽음학과 불교 ⑬ 죽음을 가까이 하는 것의 이익

▶한줄요약
우리가 죽음이라는 생의 종착역에 도달하게 될 때 우리는 죽음을 체감하면서 그동안 삶을 가득 채워 왔던 갖가지 걱정들, 우리가 막연히 쫓아왔던 목표가 그리 중요하지 않았음을 실감할 것이다.



죽음이란 스승에게 가르침 얻자

알베르 카뮈(Albert Camus)는 "경험은 만들어낼 수 없다. 반드시 겪어야만 한다"라고 말했다. 죽음도 그런 것일까.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잃기 전까지는, 자신이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일까. 스티브 잡스(Steve Jobs)는 스탠퍼드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인상적인 연설을 남겼다.

"제가 열일곱 살 때 이런 문장을 본 적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올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저는 큰 감명을 받았고 이 구절을 마음에 새기며 매일 아침 거울 속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오늘 내가 하려던 일을 할까?'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나는 머지않아 죽을 것이다'란 사실을 떠올리는 건 나에게 정말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잡스는 애플의 창업주이며 스마트폰 시대를 연 선구자다. 그는 애플을 설립한 뒤 최초의 개인용 PC를 개발해 보급하며 성공 신화를 썼다. 그러나 몇 년 뒤 제품 판매 부진 탓에 10년도 안 되어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다. 잡스는 좌절하지 않고 작은 컴퓨터 그래픽 회사를 인수해서 '픽사(Pixar)'를 설립했고 세계 최초의 3D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Toy Story)'를 제작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 재기에 성공한 잡스는 얼마 뒤 다시 애플의 최고경영자로 복귀했고 2007년, 그는 손 안의 컴퓨터이자 최초의 보급형 스마트폰 '아이폰(i-phone)'을 개발해 출시했다. 적자를 거듭하던 애플은 잡스의 복귀 이후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었다.

스마트폰은 21세기의 모든 산업 분야를 혁신했다. 대변혁의 시작은 잡스의 발명품인 아이폰이었다. 그는 스탠포드대학 연설에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

"누구도 죽기를 원하지 않지만 죽음은 우리의 숙명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죽음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아쉽게도 잡스는 췌장암으로 2011년 56세의 나이에 세상과 이별했다. 어쩌면 잡스가 전무후무한 업적을 남긴 힘의 원천은 그가 평소에 죽음을 가까이했다는 점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죽음에 가까워진 시점이 아니라 일상에서 자신의 죽음을 떠올리는 것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까.

5세기경 실론(Ceylon, 현 스리랑카)의 위대한 성인이었던 '붓다고사(Buddhaghoṣa)'는 〈청정도론(Visuddhimagga)〉을 편찬했다. 경에서 그는 죽음에 대한 명상이 우리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줄 것이라 말하며 다음과 같이 죽음 명상의 방법과 태도를 제시한다.

"생명기능이 끊어진 것, 이러한 죽음에 집중하는 것이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이다.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을 닦고자 하는 사람은 조용한 곳에 혼자 머물면서, '죽음이 올 것이고, 생명기능이 끊어질 것이다' 혹은 '죽음, 죽음' 하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생각할 때는 슬픔이 일어나며, 증오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기쁨이 일어나고, 무관심한 사람의 죽음을 생각할 때는 절박함이 일어나지 않는다. 절박함을 가지고 '죽음이 나에게 다가올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을 닦아야 한다."

또한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이 잘 수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마치 살인자가 내 앞에 나타난 듯이, 혹은 삶의 남은 시간은 매우 짧은 것 등을 떠올리며 절박함을 일으켜야 한다."고 언급하며 '절실한' 마음으로 죽음을 가까이해야 함을 강조한다.

아울러 붓다고사는 절박한 마음으로 죽음을 가까이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이익을 얻게 되리라고 설한다.

"죽음을 사색하는 자는 깨어 있는 의식을 가지게 될 것이며 내면의 방일함은 제거될 것이다. 그는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을 싫어하게 될 것이다." "죽음에 대한 성찰은 선악을 명확히 구분하는 능력을 주며, 재물에 대한 집착심을 버리게 한다." "평소 죽음을 사색하지 않은 자는 죽을 때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다. 그러나 죽음을 사색한 자는 두려움이나 공포 없이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흥미롭게도 현대의 '공포 관리 이론(Terror Management Theory)'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청정도론〉에서 말하는 것과 유사하다. 예를 들면 〈청정도론〉에서 죽음을 명상하는 것은 방일한 태도를 제거한다고 말한 점은, 공포 관리 이론에서 자신의 죽음을 각성한 사람이 '제한적 시간관(limited-time perspective)'을 갖게 되었다는 점과 유사하다. 제한적 시간관을 각성하면 우리 삶에 남은 시간이 한정되었음을 자각하고 순간순간의 소중함을 느끼게 한다.

"죽음은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스티브 잡스, 죽음 성찰한 현자
'청정도론' 죽음 마음챙김 강조
죽음 통해 삶 가치 각성 가능해

또한 〈청정도론〉에서 죽음에 대한 사색은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을 싫어하게 된다고 말했는데, 그 대상으로는 돈, 외모, 인기 같은 삶의 외적인 요소가 있다. 공포 관리 이론은 실험을 통해 이를 증명했다.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삶의 외적인 요소와 내적인 요소의 중요성을 평가한 뒤 죽음과 고통에 대한 질문지를 작성했다. 질문지를 작성하며 죽음에 대해 생각한 참가자들은 삶의 의미, 가족, 사랑, 평화, 행복 등 내면적 요소를 우선순위로 두었다.

"죽음에 대한 성찰은 재물에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게 한다"라는 〈청정도론〉의 언급 역시 공포 관리 이론의 '스크루지 효과(scrooge effect)'와 유사하다. '스크루지'는 찰스 디킨스(Charles Dickens)의 소설 〈크리스마스의 캐럴〉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으로 스크루지는 지독한 구두쇠로 타인에게 동전 한 푼 베푼 적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속에서 한 유령을 만나게 되고, 이 유령을 통해 자신이 죽고 난 뒤의 상황을 보게 된다.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은 없었고 오직 비난과 조롱만 난무했다. 꿈에서 깬 스크루지는 자신의 죽음을 자각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 많은 이들에게 가진 것을 베풀기 시작했다. '스크루지 효과'라는 용어는 이 소설에서 연유했다.

실제로 공포 관리 이론에서는 죽음을 가까이하는 것이 기부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음을 실험으로 증명했다. 실험에서는 장례식장과 평범한 거리, 두 곳의 장소를 정해 자선행에 관한 인터뷰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장례식장에서 인터뷰한 참가자들이 거리에서 인터뷰한 사람들보다 자선행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약 1500년 전의 경전인 〈청정도론〉에서 말하는 내용이 현대의 공포 관리 이론과 비슷하다는 점은 주목할만 하다.

죽음학의 선구자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Elisabeth Kübler-Ross)도 비슷한 맥락에서 죽음을 바라본다. 그녀는 죽음이 단지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이 있음을 관찰하면서 죽음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죽음은 고통이나 공포스러운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일종의 스승인 것이다.

퀴블러로스는 저서 〈죽음, 성장의 마지막 단계(Death: The Final Stage of Growth)〉에서 "죽음은 삶의 최후에서만 체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삶에서 자주 경험하는 것이다. 직장을 잃거나, 이혼하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이사하거나, 졸업하는 등 삶에서 일어나는 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죽음과 같은 경험을 한다. 삶의 변화란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정상적인 일이다. 우리가 만약 죽음을 직시하고 이해할 수 있으면 인생에서 일어나는 큰 변화나 괴로움을 잘 받아들이고 대처해나갈 수 있다"고 말하며 죽음의 의미를 되짚어 본다.

평범한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시한부 판정을 받거나, 사업에 실패하는 등 삶의 고난에 직면하면 대게 세 가지 반응을 보인다. 첫째는 좌절에 빠져 정신이 삶에서 빠져나가버린 '이탈'이며, 둘째는 비참함과 괴로움을 감추고 묻어두려 하는 '은폐' 심리, 셋째는 세상과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둔 '개방'적인 상태에 자신을 두는 것이다. 자신에게 닥친 고통 속에서도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이고 힘든 이에게 손을 내미는 것.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죽음과 삶의 고난에 맞닥뜨린 사람은 그 자신을 '성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청정도론〉, 공포 관리 이론, 퀴블러로스의 주장에 따르면 죽음은 우리를 부나 성공 같은 외적인 것과 관계없이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스승이다. 죽음을 가까이하면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각성할 계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죽음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죽음을 '대비' 하는 측면도 있다. 죽음을 미리 떠올리는 것은 전쟁에 참가하기 전의 모의 훈련과 비슷하다. 혹한의 날씨를 따듯한 집에서 상상한 하고, 실제로 거리에 나가 온도를 체감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죽음 역시 평소에 가까이해보는 것과 실제로 죽음을 겪는 것에는 큰 격차가 있을 것이다.

전쟁에 참가하기 전에는 훈련을 한다. 훈련 상황은 실제 전쟁에 돌입했을 때보다는 실감이 덜하다. 전쟁을 몸으로 겪어본 사람들 눈에는 훈련하면서 전쟁에 나가도 잘할 수 있다고 말만 하는 사람이 한심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훈련은 반드시 효과가 있다. 만약 기본적인 훈련도 없이 전쟁에 뛰어든다면 허둥거리다가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할 가능성이 많다. 〈청정도론〉에서는 "평소 죽음을 사색하지 않은 자는 죽을 때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다. 그러나 죽음을 사색한 자는 두려움이나 공포 없이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죽음을 가까이하는 공덕을 설하기도 했다.

죽음 또한 참전을 위한 훈련과 비슷하다. 나의 죽음과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거나, 명상하거나, 글로 적어보는 등 우리가 직접 죽음을 체감하기 전 미리 죽음을 가까이하는 것은 일종의 훈련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미리 생각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보낸 뒤 우리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들이 떠나기 전 그들과 남은 삶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알려준다. 그리고 나의 죽음을 미리 떠올리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 인생에서 중용한 것은 무엇인지, 내가 죽음 속으로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생각하게 한다.

언젠가 우리가 죽음이라는 생의 종착역에 도달하게 될 때 우리는 죽음을 체감하면서 그동안 삶을 가득 채워 왔던 갖가지 걱정들, 우리가 막연히 쫓아왔던 목표가 그리 중요하지 않았음을 실감할 것이다. 또한 우리 곁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였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이름의 스승에게 가르침을 얻어야 한다. 〈끝〉

〈동국대 응용불교학 전공 조교수〉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 行禪 전문 신발 -

수 행 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무압박 양말 증정)



수행화 그레이블랙

Hit 어싱 슈즈 특판가 : 65,000원
무료배송(무압박 양말 증정)

■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 효과
■ 일반인도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기능성 신발

· 소 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적용 캔버스화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바닥으로 땅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접지기능
일반신발 대비 1/10 수준의 3mm 밑창 두께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대행 스님

그냥앉고서고먹고자고이러는게그대로부처님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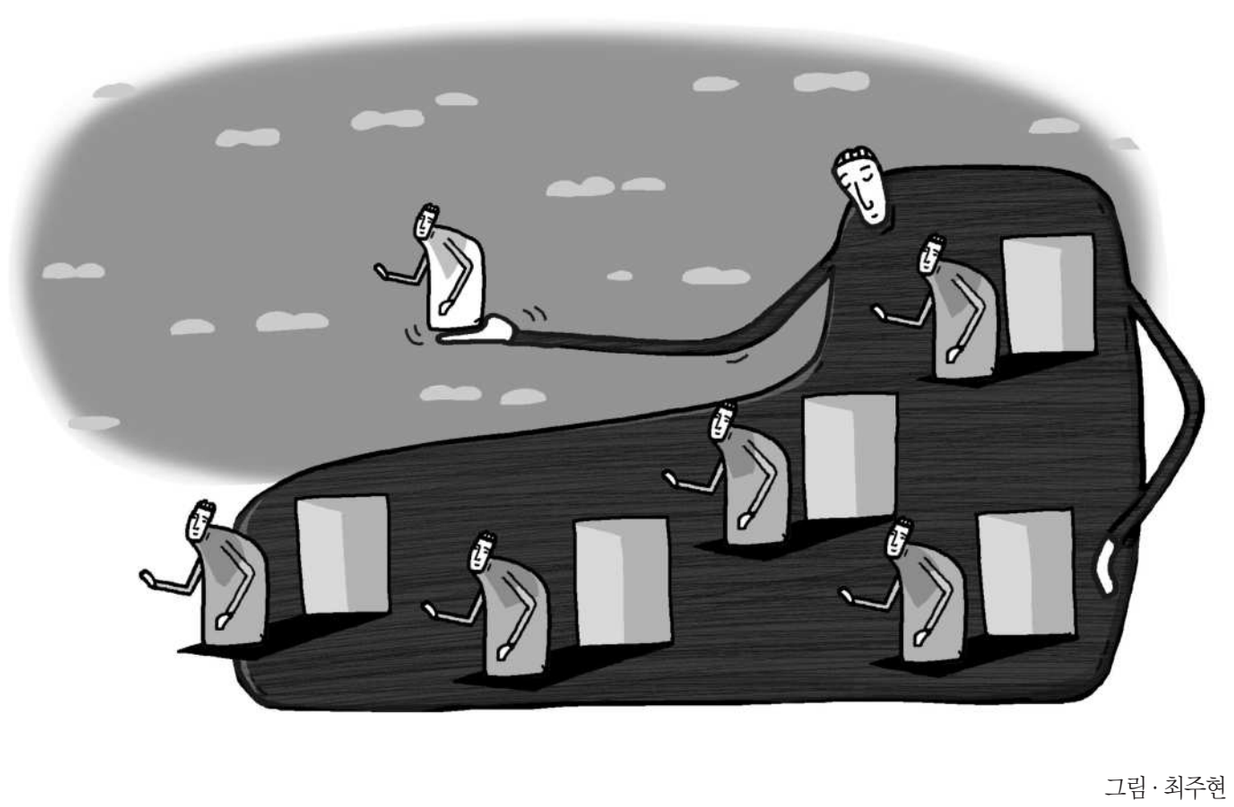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자리를 하면서 생각을 해 봅니다. 불교는 어느 한계점을 가지고 국한돼 있는 게 아닙니다. 풀 한 포기도 생명 없는 게 없기에 풀 한 포기도 불교라는 뜻입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벌레 하나도 불교 아닌 게 없습니다. 기독교나 가톨릭교, 알라신교, 티베트 불교, 일본 불교 또 남묘호랑개교 또는 어떠한 종교를 막론해 놓고 한 버스를 탄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란 이름입니다. 꼬리표입니다.

그러나 불교라는 이 자체는, 여러분이 좋은 말을 하시면 바로 그게 교입니다. 그리고 불은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니만큼 불교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톨릭교를 믿든지 기독교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타의에서 구하고 타의에 맹종하고, 내가 잘되게 해 달라고 이리 놓고 빌고 저리 놓고 빌고 고상을 걸어 놓고 빌고 '성모마리아!' 하고 타의에서 구하거나 십자가를 걸어 놓고 타의에서 구하거나 부처님 모셔 놓고 타의에서 구하거나, 이거는 전부 여러분이 미신의 짓을 해서 미신이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에 그렇다면 그 차원을 가지고, 그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은 요다음 세상에 다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물이 얼음이 됐다가 녹듯이 인간도 잠시 없어졌다 잠시 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에 와서 또 그 차원을 가지고 살아나가게 마련이거든요. 이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넓게. 깡통은 깡통대로 모여 있고 금은 금대로 모여 있고 은은 은대로 모여 있고 넝마는 넝마대로 모여 있듯이, 사람도 역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누가 이리로 모이라고 안 해도 다 끼리끼리 모여서 살기 마련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차원도 끼리끼리 모여서 한 가정을 이루고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 부딪고 서로 울고 괴로워하고 가난을 밀치지 못해서 애쓰고 끝내는 허무감을 느끼면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생각을 끊질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공부는 부처님 당시에 가르쳐 주신 그 뜻과 더불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나가려면 삼천 년 전이다 삼천 년 후다 그런 게 있지만 진리에 속해 있는 것은 삼천 년 전이 따로 없고 오늘입니다. 삼천 년 전도 오늘이요 삼천 년 후도 오늘입니다. 삼천 년 전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가 도망가고 오늘의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삼천 년 전의 그 진리가 지금도, 바로 오늘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발과 종점이 따로 없듯이.

여러분이 타는 데를 시발점이라고 그러지만 바로 거기서 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타고 갔는데, 시발점이라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도 또 종점입니다. 그래서 종점과 시발점은 둘이 아니듯이 진리도 역시 그러하다 이겁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 24시간도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는 거나 듣는 거나 말하는 거나 가고 오는 거나 만남이나 모두가 고정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공과 색이 둘이 아니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경전에 있는 대로 말씀을 안 해 주고 당신은 왜 그런 말만 하느냐고 그러실지 모르죠. 그러나 팔만대장경을 49년을 설하셨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오밀조밀, 또 변하고 부서지고 없어지고 죽고 생하고 이러는 도리를 그때에 방편으로 말씀하셨고 지금 시대가 변천하는 대로 지금도 역시 방편을 잘 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체를 비유해서 볼 때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지수화풍으로 돌아갑니다. 지수화풍인데 그게 허무한 게 아닙니다. 지수화풍이 우리의 생명을 생기게 해 준 바로 바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수화풍이 이 몸뚱이다 할지라도 지수화풍을 먹고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알지 못하시걸랑 여러분 인체 속의 이 오대양 육대주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오장육부 안에 들어 있는 생명체 의식이, 천차만별로 돼 있는 그 모습들이 전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여러분이 많은 줄 모르시죠? 그렇게 이름을 많이 가지고 계신 줄 모르시죠? 그렇게 여러분은 여러분 하나의 그, 사장이라고 그럴까, 계장이라고 그럴까, 지배인이라고 그럴까? 그 지배인이 돼서 여러 공장을 이끌어 가시는 줄 모르고 계시죠?

여러분이 한 생각을 내면, 악을 내든지 선을 내든지 잘못 내든지 또 잘 내든지 다 따라 주는데, 이 속의 모든 중생들을 가량 10억이라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이 10억입니다. 이 육신은 여러분의 집입니다. 집 속에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10억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량으로 쳐서. 그러면 그 10억의 마음들을 이끌어 가려면 여러분이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처인데, 지배인은 부처인데 이 배 속 오장육부에 전부 중생들이 들어 있어요. 그것이 인과로 인해서 그 모두가 뭉쳐서 바로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그럼 왜 어머니 아버지가 필요한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뼈와 살을 빌려서 몸을 받았지만 거기 영혼이 개입되지 않는다면 임신이 되질 않습니다. 생명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있음으로써 영혼이 같이 삼합이 한데 합쳐져야 생하기 때문에 그걸 삼신이라고 그럽니다. 그 삼신이 한데 합쳐서 생명이 하나 구성될 때에 정자 난자가 우글우글 합쳐서 많은 그 모습이 있다가 한 개만 남기고 다 없어지고, 그 모습은 다 없어졌으나 과거에 살던 의식들, 악업 선업 이런 자기가 살던 그 인연대로 모두 자기 몸속에 뭉쳐서 그 영혼 속에 다 짊어지고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그 오장육부에 인연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다 지금 뭉쳐서 한 조가 돼 가지곤 이렇게 움죽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 안이나 또 내 몸 안이나 다 말입니다.

대충 이렇게 해 가고 요다음에 또 자세히 질문하신다면 대답해 드리죠. 그런데 그거를 다 지배해 가지고 나가려면, 그거를 이끌어 나가는 데는 모두 한마음으로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이것도 고정됨이 없이 쉴 사이 없이 초월해서 돌아갑니다. 우리도 24시간 돌아가는데,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고 말입니다, 안에도 그렇고 바깥에도 그렇고. 이거는 천체물리이기도 하고 과학이기도 하고,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또. 의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몸에서 돌아가는 거를 어떻게 해야만이 한마음으로서 내 지배하는 마음대로 순리적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가? 첫째, 내가 주인공한테 맡긴다. 주인이자 공했다는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주인공이 뭐 말라빠져 죽은 거냐고 하시겠지만 여러분이 없다면 이 세상이 벌어지질 않았어요. 여러분이 없다면 부처도 없고 종교도 없고 세상도 없고 가정도 없고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어요. 자기가 없으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생겼으니까 소크라테스 말마따나 "자기부터 알라. 인간부터 돼라. 인간이 된다면 모든 것을 파악하고 모든 것을 제재(制裁)하고 물리가 터질 것이니라." 했습니다. 부처님도 역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해 드릴 것은, 처음이니까 아우트라인만이라도 얘기해 드릴까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뚱이 속의 그렇게 많은 중생들이 찰나찰나 마음을 내게 해서, 여러분을 자꾸 괴롭게 하고 그냥 외롭게 하고 병고로 또 휘달리게 하고 그러니 여러 인과, 인과라는 건 자기가 지은 대로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오는 대로, '주인공' 하는 것은, 주인공이다 하는 걸 잘 들으세요.

하나는, 이게 불가에서 말하는 건 오신통이라고 합니다. '오신통을 굴린다면 누진통에서 굴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신통을 벗어나야 누진통에서 그 통을 굴리지 그 통 안에 있어서는 통을 못 굴린다, 통 바깥으로 나와야 통을 굴린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 22면으로 계속



열 마디 백 마디 좋은 말보다 한 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 21면에서 계속

숙명통 타심통 천이통 천안통 또 신족통, 이 다섯 가지를 지금 현대의 말로 우리가 비유하자면 컴퓨터 탐지기 또는 팩스, 무전통신기, 천체망원경 이 다섯 가지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진통을 바로 레이더망이라고 해도 됩니다, 들이고 내는 데에 역점을 두는.

그러면 요 컴퓨터 숙명통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아까 내가 그거 말하다 마치지 못했죠? 그 무수히 나오는 게, 과거에 짊어지고 있던 것이 입력이 돼 있어요. 여러분의 오신통 가운데에 숙명통이라는 게 컴퓨터인데 과거의 모든 것이 거기 입력이 돼서 지금 현실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인공' 하는 건 천체를 보고, 한 시스템을,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현재 나오는 거를 다시 주인공에다 맡겨라,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서 해결할 수 있다, 거기서 아프게 한 거니까 거기서 낫게 할 수 있다, 거기서 안 되게 하는 거니까 거기서 되게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나오는 구멍에다 되놔라 이겁니다. 그래야만이 앞서 입력된 것이, 팔자 운명이 다 무너지고 오간지옥이 무너지고 업보가 무너지고 화산지옥이 무너지고 화탕지옥이 무너지고, 모두가 무너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노래를 카세트에 넣었다가 거기 또 노래를 넣으니까 앞서 노래한 것이 지워지듯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거는 이해로 공부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을 믿는 데는 이해가 가야만 되겠어서 이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그 의식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데, 때를 맞춰서 그냥 쏟아져 나오는 대로 거기에 끄달리지 마시라 이겁니다. 거기에 속지 말고 거기에 끄달리지 말고 나오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거기다 맡겨 놔라.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다 다시 놓을 때에 앞서 입력됐던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다면 여러분이 새로 입력을 해 넣으니까 새로 새살림하듯이 내 머리가 개운하게 맑아지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렇게 10억이라는 그 숫자가 그냥 뒤범벅이 돼서 끊지 않고 순서껏 돌아가면서 잔잔하게 물이 흐르듯이 돌아가니 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며 내 몸이 얼마나 건강해지며…, 내 마음이 건강해지고 내 몸이 건강해지자 내 가정도 화목해지고 또 돈도 달아나다가 '아이구, 요 집은 화목한데!' 그러고 들어오는 겁니다. 돈도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생명이 있고 생각이 있는 이상, 돈이라고 생명이 없고 생각이 없습니까? (탁자를 두드리시며) 이것도 움죽거리고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니 그 마음들을 한데 규합해서 돌아가게 하는 그 작업을 우리가 한다면 그 모든 게 무너지면서 쉴 수가 있는 그 마음 말입니다. 또 그거는 그렇다고 놔두고요, 주인공에다 맡기고, 아까 얘기한 거 그대로 그렇게 자기를 믿으세요.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자기 자신이 공해서 돌아가는 그걸 한데 합쳐서 주인공이라고 그런 거니까요. 우리가 허공을 믿겠습니까, 형상을 믿겠습니까, 이름을 믿겠습니까? 부처님을 보더라도 내 형상과 둘이 아니요, 부처님의 생명도 내 생명과 둘이 아니요, 그 마음 내는 것도 내 마음 내는 거와 둘이 아니니 그거를 둘로 보지 마시라 이겁니다.

위로도 보지 말고 아래로도 보지 말고 똑같이 남이 아픈 거를 내가 아픈 듯이 모든 것을 둘이 아니게 본다면 그것이 자비요 진실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사랑 사랑 입으로만 외우지 진짜 행을 못 하는 그런, 입에 붙은 밥알처럼 그렇게 사랑 사랑 하지 마십시오. 이론으로는 세 살 먹은 애도 다 부처님 법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하는 건 팔십을 먹어도 행하질 못하고 있거든요. 제 말이 그른가요? 열 마디 백 마디 좋은 말을 하는 거보다 한 번 좋은 실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를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또 그건 제쳐 놓고, 지수화풍이 바탕이 돼서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대두돼 있는 그 자료를, 자료라고 합니다. 누구를 막론해 놓고, 거지든 거지가 아니든 못났든 못나지 않았든 위대하든 위대하지 않든 그거를 막론해 놓고 평등하게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다 이 소립니다, 재료를. 지수화풍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지수화풍으로 인해서 미생물로서 생해서 수억겁 광년을 거쳐 오면서 쫓고 쫓기면서 죽고 살면서 진화돼서 인간까지 이렇게 온 것입니다. 여기까지 와서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재료로 여러분한테 다 주어져 있으니까 마음대로 그것을, 우리가 큰 모터를 돌리려면 전력을 크게 끌어야 하고 쪼끄마하면 쪼끄맣게 끌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전력을 쓰듯이 나한테 주어져 있는 재료를 마음대로 끌어서 쓸 수 있다 이 소리죠. 그것이 무엇으로 쓰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게 오신통, 그 자체가 그 시스템이 다 돌아가면서, 즉 그걸 한 조로 생각한다면 맷돌을 생각해 보십시오. 심봉을 꽂아야 아래 위가 딱 맞으면서 돌려도 이탈을 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여러분이 물건을 넣어도 갈려 나옵니다. 심봉을 꽂지 않고는 그 맷돌은 이탈을 하기 때문에 물건을 넣어도 갈려 나올 수가 없죠.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배울 때는 심봉을 꼭 꽂아라 이겁니다. 즉, 심봉이 주장자입니다. 거기다가 모든 걸, 한 구멍에서 나오는 거를 한 구멍에다 뭉쳐 놔라 이겁니다, 용도에 따라서 모든 걸. 거기서 모든 게 생산이 돼서 나오기도 하고 헌 쇠는 용광로에다 넣고 또 거기서 넣는 작업만 해도 쇠가 생산이 돼서 그냥 나오듯이 그거를 알면, 즉 말하자면 자기를 발견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발전소로 화하죠. 용광로였는데 나중엔 자가발전소가 돼 버렸어. 둘이 아닌 공부를 하는 도리가, 그거 자가발전소로 다시 화했죠.

우리 생활이 공부고 생활이 좌선이고 생활이 참선입니다. 생활 빼놓고 중생들 빼놓고 따로 뭐 남는 게 있다고 부처가 있습니까? 우리 생활이, 그냥 앉고 서고 먹고 자고 똥 누고 이러는 게 그대로 부처님 법이자 여러분 법이에요. 부처님 법이 따로 있답디까? 아니, 절에 가야만 부처님이 계십디까?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 여러분이 변소에 있기 때문에 그 부처는 변소에 있다 이거야. 여러분이 길에 걸어가기 때문에 부처님이 걸어가신다 이거야. 여러분이 안방에 앉았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 이겁니다. 여러분과 부처를 둘로 본다면 부처님이 49년 설한 게 상당히 허망하게 떨어집니다. 그 말씀이 허망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입니다.

얘길 하다 이리로 꿰어지고 저리로 꿰어집니다마는 잘 이해해서 들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있는 동시에 오신통 그 자체에, 아까 맷돌이라고 그랬지만, 그 자체에 시스템이 같이 돌아가면서, 보면서 들으면서 말하면서 과거의 숙명통을 알면서, 이렇게 전부 그게 한데 돌아가니까 여러분은 그저 거기에다가, 안 되는 게 있다 이럴 때는 '아하! 이거는 안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되게 할 수도 있다. 내 주인공밖에 없어!' 하고 맡긴다. 몸이 아프더라도 30%는 의사의 딴 손을 빌려야 하지만 70%는 우리가 충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100%를 의사가 다 못 해 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말입니다. 70%는 우리가 충당해야 된다는 그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 위로도 보지 말고 아래로도 보지 말고 똑같이
> 남이 아픈 거를 내가 아픈 듯이
> 모든 것을 둘이 아니게 본다면
> 그것이 자비요 진실한 사랑이다.

여러분이 몸이 괴롭거나 몹시 아프면 의욕이 없어지고 살맛이 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생각해서 그 모든 팀들을 같이 같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도리를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한 조를 한데 합쳐서 찰나찰나 돌아가니까 주인이자 공했다, 주인공(主人空)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 나가 없는 겁니다. 부처도 따로 없고 중생도 따로 없고, 모두가 따로 없는 겁니다. 요거 요렇게 말씀해 드리죠. 우주 천지 삼라대천세계의 근본은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직결돼 있고 이 세상 돌아가는 살림살이는 천체가 다 인간의 마음 근본에 직결돼 있다, 가설이 돼 있다 이겁니다, 전기 가설 돼 있듯이.

그러니 여러분이 한 가정에서 '아유, 저놈 저놈! 왜 저렇게 잘못만 하고, 사람 되려면 아직도 멀었나, 이러한 짓만 하니.' 하고서 그런 속상한 일이 있걸랑 그 애를, 자고 들어오거나 뭐, 별짓을 다 하고 들어오더라도 평등한 말을 부드럽게 해 주면서 이 주인공에다 맡기세요. 주인공에 맡기면 내 아들이라는 게 가설이 돼 있고 엄마라는 게 가설이 돼 있고 죄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스위치를 올리면 거기도 불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우리 현실에 이익하고 서로가 이익하고 내 중생도 이익하고 모든 중생과 더불어 부처도 한자리를 하면서 우리가 이익을 도모해야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현실이 없다면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미래에 죽어서 천당에 가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없는데 내일이 어디 있나요? 내가 오늘 구덩이에 빠지게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구덩이에 안 빠집니까? 그러니까 구덩이에 지금 빠졌다 하더라도 '아, 이 구덩이에 빠진 것도 내 주인공으로부터 내가 왔으니 내 심부름을 잘못했든 잘했든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맡겨 놓는다면 누가 구해서라도 구덩이에서 나온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공만이 여러분을 이익하게 하고 이끌어 가고 형성시켰고 또 병고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있고 자기 통 안에서, 즉 오신통 안에서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벗어나지 않으면 자기를 마음대로 굴릴 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자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자기를 건강하게 해 나갈 수도 있거니와 또 식구들을 기쁘게 해 줄 수도 있고 또는 식구들을 이끌어 나갈 수도 있고요.

여러 신도님들이 이 한마음 공부를 하면서 가정에 부지깽이 하나라도 늘어 가고 사람이 돼 가고 애들도 공부를 잘해서 걱정 없게 되고 이렇게 가정이 다복해지는 것은 이 공부하고부터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공부할 겸 몸 건강하게 살 겸, 화목해질 겸 또는 내가 나를 알 겸…. 그것이 뭡니까? 내 몸 없어지면 부딪침이 없어서 공부 못 해요. 그러면 죽어서 또 태어나고 또 죽어서 또다시 태어나고 그러는데 말입니다, 한번 뱀 소굴이나 까치 소굴이나 또는 짐승의 소굴로 잘못 들어가기 아주 쉽죠. 내가 살아서 눈을 못 뜨고 귀를 못 뜨면 죽어서도 그 부부지간에 사는, 살 대고 사는 그것만, 뜻만, 의식만 알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소굴에나 들어가요. 만약에 그 모습을 가지고 나온다면 그 모습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 습이, 그 관념이 박혀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저 기복에 젖고 욕심에 젖고 아상에 젖고 아만에 젖고 '나'라는 데 젖고 아집에 그냥, 하여튼 젖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 몸뚱이가 자기라는 거지. 몸뚱이가 뭐가 자깁니까? 운전수가 자기고 몸뚱이가 차예요. 운전수가 끌고 다니는 차란 말입니다. 운전수가 가자고 그래야 일어나지 가자는 말 안 하면 안 일어나요. 그런데 뭐가 여러분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주인이 바로 여러분을 끌고 다닙니다.

왜, 이런 게 있죠. 부처님 모셔 놓고 문수 모셔 놓고 보현 모셔 놓고, 삼 불을 모셔 놓죠. 내가 처음에 그거를 볼 때 '아, 저거는 부처님이구나!' 했는데, 생각 내기 이전을 말해요. 생각을 냈다 하면 법신이에요, 문수. 생각을 냈다 하면 문수 법신인데 그 생각을 내면 바로 또 몸이 움죽거리거든요. 그게 보현이에요, 보신. 화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셋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자 부처님의 마음이자 부처님의 몸이자 이랬단 말입니다. 움죽거림이다. 그러니까 삼심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삼심이 일심이니라. 삼심이 일심이니 그 일심으로 도를 닦아라, 마음을 닦아라.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마음 내기 이전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하면 마음을 내는 게 있고 몸이 움죽거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 여러분도 삼심이 일심이고 일심이 온 생활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0년 12월 2일 국외지원법회 법문 중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일일시호일

장 천공에 협착까지…
병마와 맞선 어린생명의 사투

베트남 출신 뚜안 · 보티캄터 부부 유학생 모임에서 만나 결혼
32주만에 태어난 아들 중환자실…현재 병원비만 3000만원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 현불논단 |

언론, 신뢰 회복 위해서는…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옥스퍼드大 뉴스 신뢰 조사서
韓언론 46개국 중 '40위' 기록
대중 "뉴스 불신, 편향적" 인식

정치권 편가르기, 진영 갈등에
언론들도 편승해 분열 부추겨
편향적 뉴스, 인식 왜곡 이끌어

2022년 사자성어 '過而不改'는
韓사회와 언론에 해당되는 金言
언론, 저널리즘 원칙에 충실하길

한국 언론이 불신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실시한 뉴스 신뢰도 조사 〈디지털 뉴스리포트 2022〉에서 한국은 전체 조사대상 46개국 중 40위라는 최하위의 부끄러운 순위를 기록했다. 또한 한국 이용자 3명 중 2명(67%)이 뉴스를 선택적으로 회피한 경험이 있는데, 그 주된 이유가 "뉴스를 신뢰할 수 없거나 편향적"(42%)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국제 조사기관 입소스가 28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 정치적 갈등에 대한 조사에서 '이념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87%로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기록했다. 국민 갈등과 분열이 위기의 임계점을 이미 넘어섰으며, 상대를 향한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는 극단주의 정치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후진적 정치에 편승해 '편가르기' '진영 갈등 부추기기'를 일삼는 언론의 행태는 가히 심각한 수준으로서, 이런 퇴행적 관행이 지속하는 한 언론이 신뢰를 말하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언론이 신뢰를 얻기 위한 기본 조건은 사실과 의견의 분리, 주관과 객관의 구분, 취재원 실명 보도, 엄정한 사실 검증, 시민에 헌신하는 보도, 투명한 취재 방법 공개, 적극적인 정정보도 등을 준수하는 일이다. 하지만 현재 드러나는 언론의 모습을 보면 과연 이 원칙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유튜브 유사 언론 채널이 생산하는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검증 없이 받아 유통하거나 확대 재생산하는가 하면, '미디어 비평'이란 이름으로 출발한 프로그램이 한쪽 편은 때리고 비판하면서 특정 진영의 스캔들에는 선봉에서 방어전을 펼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언론이 기본 원칙을 멀리하고 정파적 편향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신뢰 회복의 길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언론의 지나친 정파적 편향성과 가짜뉴스의 확산은 뉴스 이용자의 편향된 뉴스 소비로 확증편향을 강화해 왜곡된 사회인식을 부추길 것이다. 또한 정파적 뉴스 소비 성향이 강화되면 정치권에 대한 비호감이 언론에 대한 비호감으로 전이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고, 이는 민주주의 발전 및 언론 신뢰 구축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된다.

신뢰를 뜻하는 영어 단어 'Trust'는 '편안함' '위안'을 의미하는 독일어 'Trost(트로스트)'에서 온 말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게 되면 그와의 관계가 편안해지고 그로부터 위로받고 싶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이용자에게 믿음과 편안함을 주는 언론과의 관계가 편향과 왜곡의 토대 위에 구축된 것이라면 그것은 문제이다.

독일의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Niklas Luhmann)은 신뢰를 '기대치에 대한 확신'이라고 정의하였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개인이라는 점과 점 간의 관계, 즉 연결로 구성된 그물망 속에서 존재한다. 그리고 연결의 강도는 신뢰에 비례한다. 연결의 강도가 강하고 다양할수록 우리는 인간적으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다.

교수신문은 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투표를 통해 올해의 사자성어로 '과이불개(過而不改)'를 선정했다고 한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잘못"이라는 뜻으로 논어의 위령공편에서 처음 등장한 말이다. 선정에 참여한 교수들은 학계의 연구윤리 문제와 함께 정치권의 행태를 꼬집었다고 하는데, 이 현상이 어디 이 두 영역에만 국한할 일이겠는가.

언론은 취재 방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관과 객관을 구분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엄정한 사실 검증뿐만 아니라 정정과 사과를 두려워하지 않는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충실해져야 한다. 이것이 새해를 앞둔 언론이 신뢰 회복을 위해 다시 디뎌야 할 첫걸음이다.

社 說

상월결사 법인화, 새로운 포교 발판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결사체인 상월결사가 12월 18일 사단법인 출범식을 가졌다. 법인 설립을 통해 영속적인 활동 단체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한국불교에서는 그동안 수많은 결사가 있었다. 하지만 결사 당시 결사에 동참한 이들이 모여 사단법인을 만든 것은 최초라 할 수 있다.

상월결사를 이끄는 회주 자승 스님은 이사장으로, 결사에 동참하는 스님들은 이사 등으로 자리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기부금 CMS 처리다.

이번 상월결사의 사단법인화로 인하여 결사에 지지를 보내는 수많은 성원들을 공적인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와 함께 상월포럼과 상월아카데미를 통하여 다양한 포교사업을 진행하는 점도 기대를 모은다. 기존 불자인연맺기 단체인 수미산원정대와 인도성지순례를 앞두고 있는 상월순례단과 함께 활동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상월결사는 새해를 맞아 이제 준비작업을 모두 마쳤다. 2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 인도 성지순례 이후 새로운 포교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기세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순례 과정에서 지은 게송 '땅이 노래하고 하늘이 춤추니 수미산이 사바세계로구나'는 수미산이 멀리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바세계 한복판이 그 곳이라는 일대 선언이었다. 이후 상월결사는 이러한 정신하에 '불교중흥'의 대장정에 이어 '국난극복' '세계평화'라는 사회적 운동까지 전개했다.

상월결사 사단법인화로 보다 체계적인 포교운동이 펼쳐지길 기대한다.

2023년 한국불교 도약 기대하며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마무리되고 있다. 올 한해 한국불교에게는 변화의 시기였다. 한국불교 장자종단 조계종의 신성(神聖)인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의 추대법회가 봉행됐고, 행정 수장인 총무원장에 진우 스님이 취임했다. 진우 스님은 취임 일성으로 "불교중흥의 새 역사를 열어갈 것"을 선언했다.

천태종 총무원장에는 무원 스님이, 관음종 총무원장에는 법명 스님이 취임하며, 종단 안팎의 변화를 예고했다.

무엇보다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되며 3년 만에 연등회가 대면으로 재개됐다. 특히 202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이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연등회여서 더욱 의미가 컸다. 경북 울진 산불,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내외 재난에 불자들이 앞장서 자비의 손길을 내민 것은 큰 감동을 줬다.

좋은 일만큼 궂은일도 적지 않았다. 올해에도 가톨릭 성지화 사업으로 불거진 주어사지 문제와 신안군 천사섬 사업 논란, 법계도 도용 등 종교편향과 불교 왜곡 사례들이 연이어 발생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불교계의 노력도 이어졌다.

내부적으로는 출가자 감소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조계종의 경우 올해 출가자 수가 61명으로 한해 출가자 100명 선이 무너져 사실상 '출가 절벽 시대'가 도래했음이 확인됐다.

출가자 감소 문제는 사회적 환경의 영향도 있지만, 출가 자원인 불자 청년이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간 도외시했던 세대 전승과 어린이·청소년·청년 포교의 여파가 직접적으로 다가온 것이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포교가 불교중흥"임을 강조하고 있다. 2023년 계묘년은 포교를 통한 불교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는 해가 되길 기원한다.



유응오의 **문화 산책**
⑩ 영화 '헌트'

사냥꾼과 사냥감

배우 이정재가 처음으로 메가폰을 잡은 '헌트'는 소재부터 흥미롭다. 전두환 정권 당시 안기부 내 해외팀과 국내팀의 반목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망명을 신청한 북한 고위 관리로부터 안기부 내에 스파이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해외팀 박평호(이정재) 차장과 국내팀 김정도(정우성) 차장은 스파이인 '동림'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된다.

영화제목이 헌트인 이유는 해외팀과 국내팀 둘 다 사냥꾼이 되지 못하면 사냥감이 되어야 하는 운명이기 때문일 것이다. '헌트'는 시종일관 긴장감이 유지되는데, 이는 '누가 동림인가?' 하는 의문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감독은 영악하게도 내러티브 상 박평호와 김정도 둘 다 동림일 수 있음을 암시함으로써 영화의 몰입도를 높였다.

5.18 민주화 운동,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이웅평 귀순 사건 등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봤을 때 이 영화는 전두환 정권이 시대적 배경이 분명해 보이는데, 동림의 모티브가 된 동백림(東伯林) 사건은 박정희 정권 당시에 벌어진 사건이다.

그래서인지 필자는 '헌트'를 보고나서 천상병 시인이 떠올랐다. 1967년 베를린의 한국유학생들이 한 동포의 주선으로 동베를린을 구경한 것이 동백림 사건의 발단이다. 동백림 사건에 연루된 천상병 시인은 6개월간 옥고를 치렀고, 그 과정에서 전기고문을 받았다. 고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천상병 시인은 평생 동안 자식을 갖지도 못하였고, 정신질환까지 앓아야 했다.

동백림 사건 당시 법정에서 변호사가 "두 사람은 네 것 내 것이 없이 지내는 사이가 아닙니까"라고 묻자 천상병 시인은 "아닌데요, 나는 가난해서 항상 일방적으로 받기만 했지 한 번도 줘보지는 못했죠"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처럼 천상병 시인은 천진한 사람이었다.

동백림 사건은 천상병 시인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서울대에 입학할 만큼 명석했던 시인은 평생 동안 백치처럼 살아야 했다. '귀천'을 비롯해 죽음을 주제로 한 많은 시편들을 남긴 것도 동백림 사건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1972년 천상병 시인은 자신을 간호해주던 친구 여동생과 결혼했다. 상처 입은 시인의 영혼을 평생 동안 위무한 것은 바로 시인의 아내였다. 그런 까닭에 천상병·목순옥 부부의 인연은 삼세(三世)의 지중한 인연이라고 밖에는 달리 형용할 말이 없다.

권력이라는 사냥꾼의 총에 맞아 피 흘려야 했던 천상병 시인은 이런 시구를 남겼다.

내 살과 뼈는 알고 있다.
진정한 고통
그 어느 쪽이 강자인가를…….

내 마음 하늘
한편 가에서
새는 소스라치게 날개 편다.

〈소설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BTN 붓다회
BUDDHACLUB
BTN 불교TV 방송포교 27년
만약, 이 시대에 부처님께서 나투신다면 어떻게 전법하실까요?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사람들을 만나면서 법을 전하였지만,
오늘날이라면 방송국 카메라앞에서 법문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방송포교 매체가 BTN불교TV입니다
BTN 붓다회는 BTN불교TV의 방송포교 원력을 후원하는 모임으로
누구나 동참가능합니다.
오늘 방송포교 불사의 주인공, 붓다회 회원이 되어주세요!!
가입문의 1855-0108
BTN 채널안내 | olleh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세계 7대 불가사의

ANGKOR

앙코르와트

현대불교신문과 함께하면 보다 편리합니다.

앙코르와트 직항 · 5성급 호텔 제공

1,390,000



현대불교문화사업단 02)2004-8213, 730-4008

(주)케이투어 아제여행 불교성지순례 & 특수지역전문 ajetour.co.kr